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 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국 여성해방운동이 투영된
민국시기의 신여성 복식 연구

202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여 채 령

중국 여성해방운동이 투영된
민국시기의 신여성 복식 연구

문 윤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여 채 령

인 준 서

여채령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5년 7월

심사위원장 최 배 영 (인)

심 사 위 원 윤 지 원 (인)

심 사 위 원 문 선 정 (인)

심 사 위 원 박 성 희 (인)

심 사 위 원 문 윤 경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민국시기의 신여성 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와 복식 개혁의 시기에 여성해방운동이 신여성 이미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 분석과 디지털 실전을 결합하여, 중국 신여성의 근대 복식 양상을 영상으로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복식이 단순히 신체를 가리거나 장식을 하는 기능을 넘어, 여성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상징적 매체임을 밝히는 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1898년 무술변법부터 1920년대 초 신문화운동에 이르기까지의 여성해방운동 전개 과정을 계몽기, 성장기, 절정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반전족 운동, 단발 운동, ‘천유(天乳)’ 운동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며 여성들이 어떻게 신체적,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고 유교의 전통적인 여성상으로부터 벗어나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나아갔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신여성 이미지와 복식 양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복식사학적 분석, 신체 이론, 문화사회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신여성 이미지 형성의 요인, 시각적 특성 및 사회문화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특히 민국시기 여성 복식이 전통적 예교 체계의 해체, 동서문화의 충돌과 수용, 성인 지각의 확장을 배경으로 하여, 관념의 해방, 복식 구조의 전환, 신체 재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은폐와 노출 사이의 경계를 재구성하였는지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복식이 단순한 외적 변형을 넘어 여성 주체성과 사회 인식 변동의 시각적 매개체로 기능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3D CLO라는 가상 복식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민국시기의 신여성 복식을 디지털 모델링 및 시각화의 방법으로 재현하였다. 여기에는 전

통성과 진보성이 공존하는 계몽기의 복식, 다양성과 개성 표현을 반영한 성장기의 복식, 단순성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절정기의 복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복식 문헌 연구를 넘어 정적인 복식 자료를 동적인 동영상 자료로 전환하는 연구 가치를 가지며 ‘신체-복식-사회’라는 분석 구조를 기반으로 민국시기 신여성 연구의 심화에 기여하는 의의를 갖는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 | 1 |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
| II. 이론적 배경 | 9 |
| 1.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개념 | 9 |
| 2.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이념 | 11 |
| 1) 계몽기의 평등과 독립 | 12 |
| 2) 성장기의 자유와 개방 | 15 |
| 3) 절정기의 개성화와 다양성 | 17 |
| 3. 중국 여성해방운동과 민국시기의 사회상 | 20 |
| 1) 중국여성해방의 역사 속 민국시기의 의의 | 20 |
| 2) 여성해방운동이 반영된 사회상 | 22 |
| 4. 선행연구 | 41 |
| 1) 중국 전통 여성에 관한 연구 | 41 |
| 2) 중국 여성 신체이론 연구 | 42 |
| 3) 중국 여성해방운동과 민국시기 복식 연구 | 44 |
| III. 중국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한 민국시기 신여성의 이미지와 복식 변화 | 49 |
| 1. 민국시기 신여성의 이미지 | 49 |
| 1) 신여성 이미지 형성 요인 | 49 |
| 2) 신여성 이미지의 특징적 요소 | 51 |
| 3) 신여성 이미지의 사회적 의의 | 54 |

| | |
|---|-----|
| 2. 민국시기 복식의 변화 양상 | 56 |
| 1) 전통 예교 관념의 완화와 신체 구속 해방 | 56 |
| 2) 전통과 서양 요소의 융합 및 복식 양식의 간소화 | 65 |
| 3) 여성의 정체성 의식과 복식의 신체 밀착 | 74 |
| IV. 여성해방운동이 투영된 민국시기의 신여성 복식 사례 및 3D 자료 구현 | 83 |
| 1. 자료 구현의 개요 | 83 |
| 2. 자료 기획 단계 | 84 |
| 1) 주제의 선정 | 84 |
| 2) 신여성 복식의 특성 | 86 |
| 3. 사례조사 및 분석 단계 | 98 |
| 1) 중국 박물관 현장의 사례조사 | 99 |
| 2) 신여성 복식의 사례 및 선정 | 103 |
| 4. 디자인 및 3D 제작 단계 | 116 |
| 1) 복식 모델링 및 원단 시뮬레이션 | 116 |
| 2) 아바타 설정 및 동작 디자인 | 117 |
| 3) 가상 카메라 운용 디자인 | 118 |
| 4) 무대 디자인 | 118 |
| 5) 콘티 및 동영상 제작 | 121 |
| V. 결론 및 제언 | 138 |
| 1. 연구 요약 및 결론 | 138 |
|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 139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 | |
|--|-----|
| <표 1>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이념 | 20 |
| <표 2> 여성해방이 반영된 전족 폐지 운동 | 27 |
| <표 3> 여성해방이 반영된 단발 운동 | 34 |
| <표 4> 여성해방이 반영된 천유 운동 | 41 |
| <표 5> 민국시기 중국 여성해방운동이 투영된 신여성 복식 | 98 |
| <표 6> 박물관 자료 수집 현황 및 참고 자료 | 99 |
| <표 7> 시기별로 자료 분류 | 103 |
| <표 8> 전통성과 진보성을 활용한 계몽기 복식 | 107 |
| <표 9> 다양성과 변화성 표현을 반영한 성장기 복식 | 111 |
| <표 10> 간결성과 실용성을 반영한 절정기 복식 | 115 |
| <표 11> 계몽기 복식 1 | 124 |
| <표 12> 계몽기 복식 2 | 125 |
| <표 13> 계몽기 복식 3 | 126 |
| <표 14> 성장기 복식 1 | 130 |
| <표 15> 성장기 복식 2 | 131 |
| <표 16> 성장기 복식 3 | 132 |
| <표 17> 절정기 복식 1 | 135 |
| <표 18> 절정기 복식 2 | 136 |
| <표 19> 절정기 복식 3 | 137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연구 구조도 | 8 |
| 〈그림 2〉 청나라 시기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 23 |
| 〈그림 3〉 가족 부츠를 착용한 여성 이미지 | 24 |
| 〈그림 4〉 근대 전통 남성 복식 이미지 | 25 |
| 〈그림 5〉 추군의 남성 복식 이미지 | 25 |
| 〈그림 6〉 근대 기생 이미지 | 26 |
| 〈그림 7〉 누가 기생이고 누가 학생인가 | 26 |
| 〈그림 8〉 1927년 경해여자사범학교 초등과 졸업식 장면 | 29 |
| 〈그림 9〉 장읍란의 체포 | 29 |
| 〈그림 10〉 민초 백미도(百美图) | 31 |
| 〈그림 11〉 1914년 『토요일』 잡지 표지 | 31 |
| 〈그림 12〉 단발 여성 백미도 | 33 |
| 〈그림 13〉 『량유(良友)』 잡지에서 단발 여성 이미지 | 33 |
| 〈그림 14〉 반나체 여성 이미지 | 37 |
| 〈그림 15〉 자연스럽고 풍만한 여성 이미지 | 37 |
| 〈그림 16〉 천유미(天乳美) | 38 |
| 〈그림 17〉 난간에 기대어 응시함(凭栏凝睇) | 38 |
| 〈그림 18〉 미스 비 | 38 |
| 〈그림 19〉 월분패(月份牌) 여성 이미지 | 39 |
| 〈그림 20〉 19세기 말~20세기 초 교실 풍경 | 58 |
| 〈그림 21〉 민초 시기 여성 복식 | 59 |
| 〈그림 22〉 1916년 배화여중(培華女中) 여학생들 | 59 |
| 〈그림 23〉 삼촌금련(三寸金蓮) 형태 | 62 |
| 〈그림 24〉 민국시기 진자색 자수 천신 | 62 |

| | |
|--|----|
| <그림 25> 문명신장(文明新裝) 유행을 반응한 복식 | 63 |
| <그림 26> 20세기 1920년대 초기에 서양 요소를 흡수한 개량 치파오 | 66 |
| <그림 27> 20세기 1920년대 서양 의상 | 66 |
| <그림 28> 서양 요소가 융합된 치파오 | 67 |
| <그림 29> 서양의 모던한 감각의 의상 | 67 |
| <그림 30> 서양식 얇은 직물로 제작된 | 67 |
| <그림 31> 문자형 고리(文字扣), 인심 고리(嵌芯扣), 인사경화 고리(嵌絲硬花扣) | 68 |
| <그림 32> 근대 여성 복식 이미지의 변천 | 70 |
| <그림 33> 20세기 초 상의하상(上衣下裳) 형태 | 71 |
| <그림 34> 20세기 초 상의하복(上衣下褲) 형태 | 71 |
| <그림 35> 문명 신장(文明新裝) | 72 |
| <그림 36> 중국 전통 포복 | 73 |
| <그림 37> 치파오의 초기 양식 | 73 |
| <그림 38> 1920년대 초 개량 치파오 | 79 |
| <그림 39> 1920년대 초기 개량 치파오 | 79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중국 여성해방운동과 그로 인한 변화의 양상은 단순히 여성의 지위 향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사회가 겪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중국 여성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특히 민국시기의 여성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복식과 사회 변화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국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그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을 밝히고자 한다.

중국 여성해방운동과 그로 인해 나타난 변화의 양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적인 여성해방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세기 중엽부터 유럽과 미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교육권, 재산권, 참정권을 요구하며 사회 변혁을 촉진시켜왔다. 1848년 미국에서 개최된 세네카 폴스 회의(Seneca Falls Convention)는 『여성의 권리 선언문(Declaration of Sentiments)』을 발표하며 여성에게 참정권과 법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미국 제1세대 여성주의 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¹⁾ 또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여성 참정권 운동(Suffragette Movement)을 통해 『선거법안(Electoral Reform Acts)』의 제정을 이끌어내며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획득하였다.²⁾ 한편, 독일과 북유럽 지역에서는 클라라 차이트킨(Clara Zetkin)을 대표로 한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부상하였다. 이

1) Offen, K. M(2000). European feminisms, 1700-1950: a political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pp.87-108

2) Winslow, B(2015). Sisters of Suffrage: British and American Women Fight for the Vote. In Teaching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Context. Routledge, p.187.

운동은 영국과 미국의 중산층 중심 여성 권리 운동과는 달리, 노동계급 여성의 노동권과 경제적 독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차이트킨은 1910년 코펜하겐 국제 여성대회에서 “국제 노동 여성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며 여성 해방은 계급 투쟁과 사회 구조 개혁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 이러한 생산 관계와 사회 제도 차원의 여성 해방 경로는 20세기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현되었고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 정책 이론의 근원이 되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유럽과 미국의 여성해방운동은 단일하고 직선적인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 쟁취, 사상적 혁신, 노동권 투쟁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현대 여성주의의 기본 구조를 함께 형성하였다. 이러한 다원적인 여성 해방의 경험은 19세기 말 중국으로 전해져 중국 청나라 말의 개혁파와 민국 초기 지식인들이 서구 사상을 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중국 여성해방운동에 이론적 자원과 실천적 시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여성해방운동은 중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여성해방운동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긴밀히 맞닿아 전개되었다.

중국은 20세기 초에 봉건 왕조에서 근대 국가로의 역사적 전환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변혁의 흐름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새로운 사회 의식의 각성과 함께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민국시기에 접어들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요구는 한층 더 뚜렷해졌고 여성 스스로도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고 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여성해방운동은 사회 전반의 근대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유교 윤리와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집단적 열망을 토대로 전개되었다. 지식인들은 점차 “여성 교육”과 “남녀 평등”을 국가의 부강과 민족 독립의 전제 중 하나로 논의하였다. 여성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부수적 존재가 아닌 국가와 사회 변혁

3) 劉孝華(2019). 蔡特金婦女解放思想研究. 燕山大學. 博士學位論文, p.18-20.

의 중요한 주체로 재인식되었다. 《건국방략(建國方略)》에서 강조된 “여성 해방은 혁명 성공의 한 부분”이라는 언급은 여성 문제가 정치화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⁴⁾ 동시에,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온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적 다윈주의 등의 사상이 중국 여성에게 “개인”, “권리”, “신체” 등 근대적 개념을 빠르게 수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여성은 더 이상 수동적인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하고 현대 사회의 주체가 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중국 여성해방운동은 단지 사상적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적 변화를 가져왔다. 여학교의 설립, 단발과 반전축 운동의 확산, 여성 언론 및 단체의 활발한 활동, 여성 참정권 요구 등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의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⁵⁾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외적인 생활양식과 복식의 양상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복식은 단순히 신체를 가리는 기능을 넘어 여성의 자주성, 새로운 사회적 역할, 정체성의 상징으로 자리잡으며 민국시기 여성의 사회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신여성 이미지는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복식의 변화를 통해 그 사회적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전통적으로는 넉넉하고 신체를 가리는 포의(袍衣) 중심의 복식이 주류였으나, 민국시기에는 서양식 재단이 융합된 치파오(旗袍)와 직업 복장으로 변화하면서 신체 곡선을 드러내고 직업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이 복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주체적인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실천적인 과정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와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D CLO를 활용한 가상 복식 모델링 기법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4) 蘇哲(2012). 建國方略. 江蘇警官學院學報, (3), p.61.

5) 朱曉慧(2015). 新中國建國初期的婦女解放：人權視角的透視. 人權, (3), p.90.

발전은 복식 연구의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본 논문은 이를 통해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시각적 재현을 시도하였다. 전통적인 도해 및 문헌 중심의 분석 방식과 달리 3D CLO는 복식의 구조와 착용 효과를 고도로 재현하여 학술적 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의 직관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의 모델링 제작 과정에서는 사료 이미지와 실물 자료를 기반으로 복식의 재단 비율, 소재의 질감, 색채 구성 등을 정밀하게 재현함으로써, 각 시기 여성복과 신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복식이 여성의 신체 윤곽을 강조하거나 은폐하는 양상은,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규범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복식의 외형적 변화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여성의 문화적 논리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계몽기, 성장기, 절정기에 해당하는 신여성의 대표적 복식을 실제로 재현함으로써 복식의 사회적·문화적 함의를 보다 생생히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세계적 여성해방운동의 흐름과 이를 수용 및 변형해 나간 중국 민국시기 여성의 사회적 변화 및 복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복식의 관점에서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문화적 및 역사적 의미를 심화시키고 신여성 이미지 형성의 사회적 메커니즘과 미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각화 기술을 바탕으로 복식의 시각적 재현을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 연구와 디자인 실천의 융합을 도모하고 현대 여성복 디자인과 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및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복식의 관점을 통해 민국시기 여성해방운동을 조망하는 것은 뚜렷한 시대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중국 민국시기(1912년~1949년)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여성 해방 운동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고, 그 운동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재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며, 나아가 신여성 복식의 변혁과 창의적 전개를 조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역사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현장 조사, 3D CLO 모델링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민국 시기 신여성 복식 변화 속에서 여성의 자아 정체성 인식이 어떻게 각성되었는지를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1) 연구의 방법

(1) 문헌 조사

본 연구는 연구의 방법 설정에 있어 중국 여성해방운동, 민국시기 복식 변화, 여성 이론 및 신체 문화 등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과 원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이론 배경과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수집된 자료 유형에는 학술 저서,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역사 문서, 민국시기 원간물, 신문 광고 패션 잡지, 월력화 및 삽화류 출판물 등이 포함되며 역사학, 의상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한다. 특히 『부녀잡지(婦女雜誌)』, 『량유(良友)』, 『여계(女界)』, 『영롱(玲瓏)』, 『도화시보(圖畫時報)』 등의 간행물들은 당시 여성의 일상 복식, 패션 트렌드, 광고 홍보를 이미지와 함께 담아내어 연구의 주요 시각 자료로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여성”의 정체성, 교육, 직업, 가족 내 역할 등을 다룬 방대한 텍스트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良友』는 1926년 이후 ‘패션’과 ‘신여성’을 주제로 한 정기적 기사를 통해 도시 여성의 신식 복식을 삽화·사진·

상품 광고로 시각화함으로써, 복식의 미학적 전환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부녀잡지(婦女雜誌)』는 여성 계몽과 도덕 교육의 맥락에서 복식 보도를 수행하며 국가 담론 속에서 여성이 ‘근대적 어머니’이자 ‘직업 여성’으로서의 이중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아울러, 장초(2023), 순샤오동(2021), 윤미영(2022), 루린(2024) 등의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역사적 깊이와 이론적 다양성을 아우르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미지 자료 분석 방법을 통해, 복식이 화보·사진·광고 등의 매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수용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민국시기 여성 이미지가 시각적 수단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며 나아가 신여성에 대한 미적 감수성과 정체성 인식의 사회적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현장 조사

본 연구의 표현력을 한층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가상 의상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3D CLO를 도입하여 민국 시기를 대표하는 세 유형의 신여성 복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원·모델링하고, 동적 시각화를 통해 본 주제의 연구 표현 경로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복식 사진 및 민국 시기 대표적 도상 자료를 종합하여 총 36세트의 가상 복식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모델링은 여성 해방 운동의 전개 단계에 따라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째는 ‘전통성과 진보성의 활용: 계몽기 복식’으로, 전통 예법과 개량 경향의 융합을 강조하였으며, 하이넥 사선 여밈 개량 장삼, 여성 남장 등 과도기적 복식 유형을 모델링하여 여성 해방의 초기 실천을 부각하였다. 둘째는 ‘다양성과 화려함의 표현: 성장기 복식’으로, 개량 치파오, 여학생복, 서양식 소품이 혼합된 스커트 등 다양한 양식과 화려한 디자인을 모델링하여 여성의 패션 및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드러냈다. 셋째는 ‘간결성과 실용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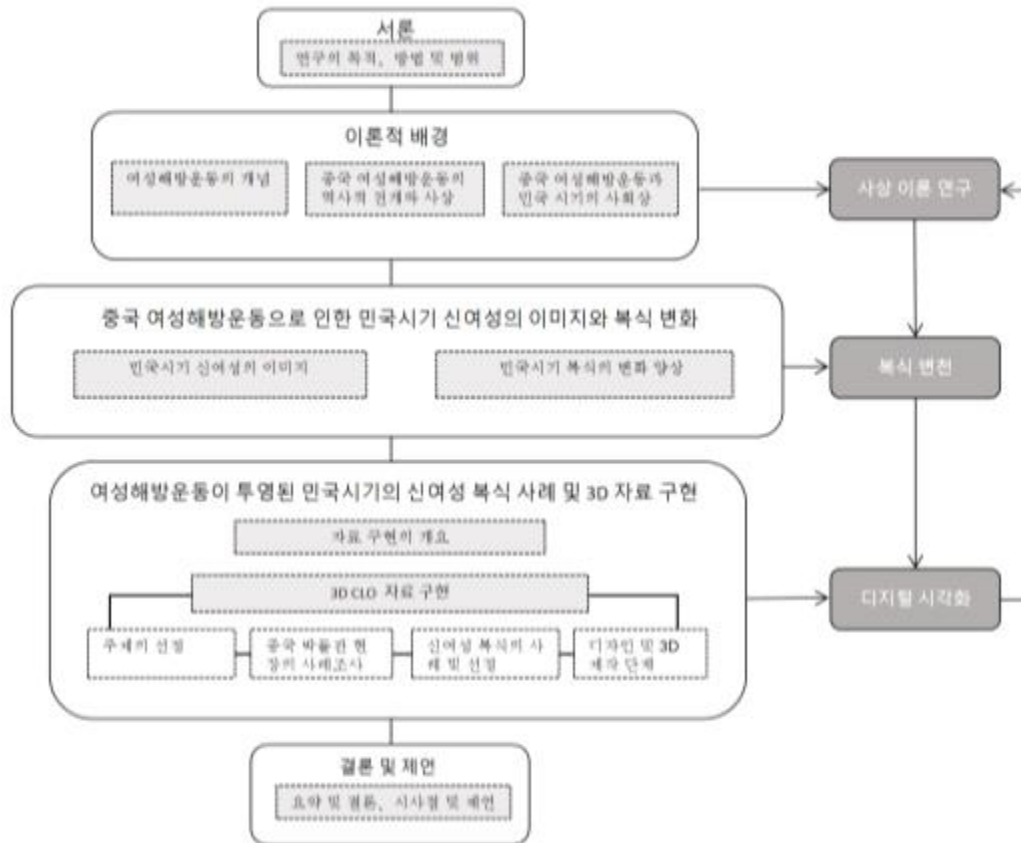
조화: 절정기 복식'으로, 직업용 치파오, 실용적 단정복 등을 모델링하였으며, 이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입하면서 기능성과 전문적 이미지를 중시하게 된 경향을 반영한다.

모델링 과정은 구조 도식화, 샘플 봉제, 소재 설정, 동적 시뮬레이션 등의 단계를 포함하며 최종적으로는 런웨이 동영상, 착용 시뮬레이션 이미지 등의 형식으로 출력되었다. 가상 작품은 복식의 세부 구조와 착용 상태를 직관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역사 복식 연구의 전달 효과와 활용 가치를 한층 제고시킨다. 본 연구는 3D CLO를 통한 3차원 모델링 기술을 통해 '텍스트-이미지-실물'의 연구 경로를 '가시화-재현-상호작용' 가능한 디지털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신여성 복식의 변천 과정을 시각적으로 복원하고 학술적으로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2) 연구의 범위

연구 범위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민국시기 도시 중산층 이상 계층의 여성 복식을 중심으로 한다. 주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깊이 받은 복식 유형을 포함하며 치파오, 단장, 여학생 교복, 여성용 양장 및 직업 복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베이징, 홍콩, 우한, 상하이 등 근대 문화 및 정치 중심 지역을 사례로 삼아, 신여성 복식이 복합적인 문화 권력의 영향을 받으며 어떻게 자아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실현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복식 어휘의 융합과 재구성 과정에 주목하며 완전히 서구화된 복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 고유의 복식 문맥 속에서 여성이 외형적 형식을 통해 어떻게 각성된 주체 의식과 사회적 위치를 전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 탐색을 통해, 본 연구는 '복식-신체-사회'의 삼중 구조 속에서 민국 여성들이 복식을 통해 자아 정체성, 사회적 구성, 문화적 표

현을 어떻게 실현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구조도

II. 이론적 배경

1.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개념

여성해방운동은 유럽에서 기원하였으며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는 서구가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중심의 페미니즘과는 달리, 중국의 여성 해방은 줄곧 국가 독립, 민족의 각성, 사회 변혁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중국 고유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독자적인 개념적 해석이 필요하다.

중국 여성해방운동은 광의적으로 볼 때, 청말 유신 시기 이후 여성들이 교육, 결혼, 직업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기반으로, 점차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을 촉진하고, 성별 위계 구조를 타파하며, 사회적 역할 정립을 재구성하려는 체계적인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중국 민국 시기의 제도적 맥락에서 볼 때, 여성해방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여성 해방은 단순히 서구 페미니즘 발전 모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위기 및 사회 전환의 배경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근대 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⁶⁾ 다시 말해,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출발점은 종종 국가의 근대화와 민족 독립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당시 민국은 봉건 왕조가 붕괴되고, 서구 열강의 침략 위협에 직면한 시기로 여성해방운동은 근대 중국의 여성 이론이 국가를 구하고 부강하게 하자”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성격을 띠었다.⁷⁾ 즉,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곧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6) 重木.(2024). “娜拉”在中国：大叙事下的女性解放. 澎湃新闻, <https://www.chinawriter.com.cn/n1/2024/0914/c404063-40320839.html>

7) 閔杰. (2004). 20世紀80年代以來的中國近代社會史研究. 近代史研究, 140(2), p. 233.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민국 시기의 여성해방운동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촉진하였다.⁸⁾ 이러한 근대화를 “국가 담론 체계에 내재된 여성 근대성의 구축”으로 설명하였다.⁹⁾ 즉 여성 해방의 본질은 단순히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아니라, 국가 권력 구조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였으며, 핵심은 교육, 혼인 제도 개혁, 신체 자기결정권의 점진적 실현을 통해 ‘근대 여성’으로서의 시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제도적 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들은 전족(纏足) 제도를 폐기하였고, 여성 교육이 점차 시행되었으며, 결혼에 있어 자유와 자율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일련의 사회적 변화가 뒤따랐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해방운동은 단순한 사회 구조의 전환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표현 형태이기도 하다. 장샤오홍(張小虹)은 “중국의 담론 체계에서 여성 해방은 단지 제도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성 이미지의 형성과 젠더 담론의 재구성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⁰⁾ 예를 들어 ‘신여성’ 이미지의 구축, 신체 및 복식의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식은 개인의 심미적 표현을 넘어서 사회적 젠더 관계를 반영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복식의 변화는 사회문화와 성별 인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¹¹⁾ 여성 복식의 변천은 여성 정체성 형성의 일환으로, 각 역사 단계의 복식 변화는 여성의 지위 변화 및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한 이미지 규율을 드러낸다.¹²⁾ 현재까지의 연구는 서양 여성 복식의 변천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으며, 중국 여성해방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복식 변화, 특히 민국 시기 ‘신여성’의 이미지와 복식 실천에 대한

8) 林曉珊. (2011). 走向理論自覺與方法自覺：婦女 性別社會學在中國（1995-2010）. 浙江學刊, (06), p.189.

9) 蘇曉康.(2025).被解放與被犧牲的——難以描述的五億中國女性.CND刊物和論壇.
<http://hx.cnd.org/?p=244137>

10) 顧燕翎、劉毓秀、王瑞香、林津如、范情、張小虹、黃淑玲、莊子秀、鄭至慧、鄭美里. (2020). 女性主義理論與流變（完整修訂版）(Vol. 62). 台灣：貓頭鷹出版社, p.2.

11) 謝子艷，戚孟勇. (2024). 人以載衣：探婦人畫報中的女性身體時尚設計. 设计, 9(1), p.681.

12) 谷鵬飛，趙琴. (2012). 中國當代服飾審美風尚與主體身份認同關係的嬗變. 社會科學戰線, (6), p. 148.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특수한 담론 환경에서는 고대 복식사를 연구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의 계보만을 따지는 접근 방식으로는 연구를 심화시키기 어렵다. 복식 분야의 지식에만 매몰되어도 역시 미래지향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학제 간의 융합적 시각을 반영한 첨단 연구 방법론의 도입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복식의 관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기존 연구에서 서구 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경계하고, 중국 담론 체계 속에서 여성 해방 개념의 토착적 논리와 역사적 심층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이념

중국 여성 해방운동의 발전 단계를 구분함에 있어 선행 연구에서는 보통 변법자강운동, 신해혁명, 신문화운동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여성 해방과 국가 정치 발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며 거시적인 역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시간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여성 주체 의식의 내적 변화나 문화적 실천 참여, 그리고 그것이 복식 표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설명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는 정치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시기 구분 방식이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발전 과정’을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그 주도 세력이 대부분 남성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실제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당시 여성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혁의 현장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수동적이고 주변적인 방식으로

13) 楊劍利. (2013). 國家建構語境中的婦女解放——從歷史到歷史書寫. 近代史研究, (3), p.124.

운동에 편입되었다. 여성의 정체성 의식과 관념의 변화는 정치적 정책의 제안보다 대체로 늦게 나타났고 생활 방식이나 복식 스타일과 같은 일상 문화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여성 주체 의식의 실제 성장 궤적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의 역사적 시기 구분 방식을 참고하되, 이를 보완하여 계몽기(1910년대), 성장기(1920년대-1930년대 전반), 절정기(1930년대 후반-1940년대)의 세 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여성 주체가 인식에 눈뜨고 사회에 참여하며 자아를 표현해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 해방 사상의 내적 발전 논리를 추적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여성의 실제 경험과 인식 변화의 흐름에 보다 부합하는 시간 구조라 할 수 있다.¹⁴⁾

또한 본 연구는 여성 복식을 사상 및 인식 변화의 구체적 표현 양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식의 변화와 여성 의식의 진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 여성 복식의 혁신은 정치 운동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각과는 밀접하게 맞물려 전개된다. 따라서 ‘계몽기-성장기-절정기’라는 분류 방식은 여성 사상의 점진적 전개를 보다 정확히 기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시기 복식 양식의 변화 특성과도 명확히 대응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해방운동과 신여성 복식의 변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이 세 단계 구분 기준을 채택하였다.

1) 계몽기의 평등과 독립

중국 여성해방운동은 중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정치 및 사상적 변혁이었

14) 張佳沁(2020). 身體解放運動影響下我國女性服飾變遷研究. 江南大學. 博士學位論文, p.13.

다.¹⁵⁾ 이 운동은 여성 주체 의식의 변화 과정에서 계몽적 역할을 하였으며 여성으로 하여금 평등과 독립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유를 촉발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바로 갑오변법운동이었다.

무술변법은 ‘백일유신’ 또는 ‘유신운동’ 이라고도 불리며 1898년 청나라 광서제가 강유위, 량치차오 등 개화파의 주도로 추진한 자본주의적 개혁 운동이다.¹⁶⁾ 열강의 침략과 민족 위기의 심화에 직면하여, 개혁파 지식인들은 서구 사회의 진보적 사상을 수용하고, 변법을 통한 국력 강화로 국가를 구하고자 시도하였다.¹⁷⁾ 이 과정에서 여성 문제는 처음으로 사회 개혁의 의제로 부상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교육권, 신체의 자유 등이 점차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무술변법 시기에는 ‘남녀평등’ 사상이 제기되었고, 여성 해방이 국가의 부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¹⁸⁾

이 시기의 여성 해방 사상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봉건 예교가 여성에게 가한 억압을 비판하며 특히 전족(纏足)과 삼강오상(三綱五常)¹⁹⁾ 등 악습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둘째, 여성의 교육권을 주장하고 “흥여학(興女學)²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문화적 소양 제고가 요청되었다. 셋째, 여성 해방을 국가의 흥망과 연계시켜 여성의 독립을 사회 진보의 상징으로 인식하였다.²¹⁾ 이러한 사상은 비록 강한 가국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평등과 독립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근대 여성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5) 周亞平(2000). 唐群英與近代女權運動. 湖南教育學院學報, (4), p. 34.

16) 李慶亨(2007). 明治維新與戊戌變法成敗因由之比較. 中華文史網, (12.1).
<http://www.historychina.net/qsyj/ztyj/sxwh/2005-04-13/26599.shtml>.

17) 李浩(2023). 國聞報與維新輿論場域研究(1897-1900).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p.81.

18) 薛文彥. (2001). 辛亥革命時期的婦女解放運動.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19(6), p. 66.

19) 胡嬌陽, 逯振煜(2025). 三綱五常的內在邏輯—以朱熹理氣先後的詮釋為中心. 文化學刊, p.132.

20) 尚宇菲(2024). 晚清興女學之濫觴及其方法論研究. 寧波大學學報(教育科學版), 46(5), p.64.

21) 董麗敏(2008). 民族國家, 本土性與女性解放運動——以晚清中國為中心的考察. 南開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p.32.

봉건 사회의 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을 엄격히 규율하였으며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강유위는 『대동서(大同書)』에서 “인류가 불평등의 고통을 가장 심하게 받는 자 중 하나는 여성이다” 라고 지적하였다.²²⁾ 그는 봉건 도덕 체계가 여성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여성을 사회의 하위 시민으로 만들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신체 자유권조차도 박탈하였다고 보았다. 전족, 삼강오상(三綱五常), “굶어 죽는 것은 사소하나, 정절을 잃는 것은 중대한 일로 여겨졌다” 등 봉건 예속 관습은 여성으로 하여금 혼인, 가정, 더 나아가 사회생활 전반에서 피지배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게 하였다.²³⁾ 위신과는 이에 대해 깊이 있는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봉건 예교의 속박은 여성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진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담사동은 『인학(仁學)』에서 남녀는 동일하게 천지의 정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무한한 성덕과 위대한 과업을 공유하며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⁴⁾ 그는 남녀평등이 단지 사회 진보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성 기반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위신과 지식인들은 여성의 신체 해방과 사회적 독립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전족 폐지, 여성 교육 장려 등 개혁 조치를 추진하였다.

위신과의 주장 속에서 성별 평등의 이념은 점차 중국 사회의 주류 담론 체계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강유위는 『실리공법전서(實理公法全書)』에서 인류의 평등은 기하학의 공리이며 사람은 자주권을 지닌다고 명시하였다.²⁵⁾ 그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에는 교육권, 노동권, 경제적 독립권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는 남녀 각기 자주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여성은 전통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경제적, 인격적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변법통의(變法通議)』에서 “남

22) 王英(2003). 康有為的大同書及其大同思想. 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學報, (4), p.108.

23) 李愛勇(2013). 康有為與大同書中的平等觀問題. 信陽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33(2), p.135.

24) 薛文彥(2001). 전계서, 19(6), p.66.

25) 薛治國, 劉立豐(2001). 自然人性與人人平等——實理公法全書評述. 萍鄉高等專科學校學報, (2), p.20.

녀 평권, 미국은 이로써 강하고 여성 교육의 보급으로 일본은 강해졌다” 고 지적하였다.²⁶⁾ 그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국가 재력이 여성 교육의 보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흥녀학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 교육이 개인의 자질 향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몽기의 여성해방운동은 평등과 독립이라고 강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평등은 위신파가 남녀 평권을 주장한 데서 드러나며 그들은 여성이 교육권, 경제권, 정치권 등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보았다.²⁷⁾ 독립은 여성이 단지 가정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을 받고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 속에 구현되었다.²⁸⁾ 비록 이 시기의 여성 해방 사상이 여전히 국가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현모양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여성 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은 점차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사회로의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전족과 같은 봉건적 악습은 점차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평등과 독립이라는 사상의 제시는 여성 정체성의 재구성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변천에도 중요한 사상적 동력을 제공하였다.

2) 성장기의 자유와 개방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성장기는 계몽기에서 실천 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²⁹⁾ 20세기 초, 중국 자본주의가 초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산계급의 민주 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권리 요구,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손중산(孫中山)³⁰⁾ 을 중심으로

26) 李媛(2017). 梁啟超變法通議中的啟蒙思想研究. 商丘師範學院學報, 33(2), p.53

27) 簡姿亞(2005). 從辛亥革命時期女性報刊看女性的覺醒. 湘潭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9(2), p.77.

28) 王靜(2004). 清末民初女子社團興起的歷史背景.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9(6), p.86.

29) 石琳(2015). 淺析五四時期婦女解放運動興起的特點. 黑龍江史志, (9), p.71.

한 자산계급 혁명파는 위신파의 남녀평등 사상을 계승하는 동시에, 여성 권리의 획득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여성들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였다.³¹⁾ 이 시기의 여성 해방 사상은 계몽기 무술변법 단계와 비교하여 세 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첫째, 여성의 의무를 강조하던 데서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³²⁾ 둘째,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태도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로 전환되었다.³³⁾ 셋째, 개별적인 자각 단계에서 조직화된 운동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³⁴⁾ 이러한 변화는 중국 여성들의 자유와 개방에 대한 의식이 점차 고양되었으며 여성 정체성의 형성이 전통 윤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혁명파는 여성이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것을 호소하였다. 1902년, 마군무(馬君武)는 영국 사회학자 스펜서의 『여권편(女權篇)』을 번역, 출간하였으며 이는 중국 근대 최초로 여성 권리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저작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³⁵⁾ 이후, 김천극(金天翮)의 『여계종(女界鐘)』가 연이어 출간되며 여성 권리 평등 사상의 확산에 일조하였다.³⁶⁾ 여성의 참정권 문제에 있어, 혁명파는 여성 가정혁명 이론을 제기하며 여성은 단지 가정의 일원이 아닌 국가의 일원이기도 하며 독립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⁷⁾ 혁명파는 또 여성 가정 혁명론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치 혁명은 국민 전체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고 가정 혁명은 국민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30) 周宇(2002). 天下為公——孫中山倫理思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p.7.

31) 張佳沁(2020). 身體解放運動影響下我國女性服飾變遷研究. 江南大學. 博士學位論文, p.15.

32) 賴莉雲(2004). 清末民初女權思想的演變. 經濟與社會發展, 2(12), p.96.

33) 姜衛玲(2016). 近代報刊中知識女性的身份認同與主體建構. 新聞戰線, (2), p.101.

34) 楊劍利(2013). 전개서, p.113.

35) 韓賀南(2012). 中共將婦女解放納入民族解放的歷史必然性及理論支撐. 中共黨史研究, (6), p.54.

36) 夏曉虹(2015). 女界鐘: 金天翮的“女權革命”論.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01), p.6.

37) 焦玉蓮, 王曉嶸(2007). 中國近代婦女運動對社會變遷的影響. 太原大學學報, 8(3), p.16.

것으로, 그 목적은 동일하다. 정치 혁명은 군주 법률의 직접적 억압에서 비롯되며 여성 가정 혁명은 군주 법률의 간접적 억압에서 비롯되니, 그 원인도 같다. 오늘날 가장(家長)의 위엄을 보라. 그것은 두 번째 군주의 권리와 같다.”³⁸⁾ 『중화민국 임시약법』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았고 이는 여성 집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여성의 정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³⁹⁾

성장기의 여성해방운동의 핵심은 자유와 개방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참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즉각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식 여성 집단의 부상과 여성 교육의 발전이 여성 집단의 조직 역량과 사상 표현력을 강화시켰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복식의 변화가 여성 자율 의식의 향상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재정의로 이어졌다. 자유와 개방은 단지 흥기기 여성해방운동의 목표에 그치지 않고 중국 여성이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여성은 점차 봉건 예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더 이상 가정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이러한 자유와 개방의 사상은 계속해서 민국시기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식 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현대 여성 복식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3) 절정기의 개성화와 다양성

오사 신문화운동은 중국 여성 해방 사상이 심화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집단적 권리 요구에서 개인화 다양화된 정체성 구축으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⁴⁰⁾ 1915년 『신청년』 창간으로 시작된 민주와 과학을 핵심

38) 蔣美華(2006). 辛亥革命時期女性角色變遷的特點. 山西師大學報: 社會科學版, 33(4), p.120.

39) 葉利軍(2004). 民初女子參政運動芻論. 求索, (2), p.233.

으로 한 신문화운동은 전통 윤리 질서를 충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여성 해방 관념이 정치적 투쟁에서 문화 비판과 개인적 사유로까지 확장되도록 이끌었다. 여성들은 기본적 권리 쟁취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의미·역할 정체성·삶의 가치를 더 깊이 성찰하며 자기의식·화려한 표현·문화적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⁴¹⁾ 여성들은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 존재의 의미, 역할의 위치, 삶의 가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시작하였으며 자아의식, 화려한 표현, 문화적 참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계몽기에서의 남녀평권 주장과 성장기에서의 사회 참여를 강조와는 달리, 절정기의 여성 사상은 더욱 강렬한 자주적 의식을 드러낸다. 여성은 더 이상 민족, 가족, 국가의 기능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는다.⁴²⁾ 이 시기의 여성은 더 이상 민족, 가족, 국가를 위한 기능적 존재로만 인식되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상의 전환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사회적 의무 중심에서 개인적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으로 여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둘째, 집단적 정체성에서 다양한 역할로 확장되며 여학생, 직업 여성, 예술 여성 등 세분화된 정체성이 나타난다. 셋째, 전통적 역할 동일시에서 화려한 표현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여성은 사상, 문화, 미학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한다.⁴³⁾

이러한 사상적 전환은 여성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특히 교육, 미디어, 출판, 예술 등 문화적 공간에서 여성은 사상 생산자이자 문화 창작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여성은 더 이상 ‘교육

40) 劉希(2020). 問題化新女性: 五四女性文學中性別二元論和本質論的反抗性話語. 澳門理工學報, (4), p.147.

41) 黃玥. (2021). 新青年喚醒新青年. 新華每日電訊, (001).

42) 余永躍, 雒麗(2018). 自由主義女權主義解讀. 山東女子學院學報, (3), p.1.

43) 方越(2024). 晚清男女小說家新女性書寫的不同面相.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1(06), p.119.

의 수혜자' 나 '전달 대상' 에 머무르지 않고 담론 체계의 구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성평등, 결혼의 자유, 직업윤리, 생활미학 등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였다.⁴⁴⁾ 이러한 지식 여성의 부상 은 여성 전체의 사회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 담론이 기존의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그것을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단계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복식은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 신분의 외적 표식이 아니라, 사상적 입장과 개인 의식을 드러내는 문화적 표현 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성들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라는 선택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를 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복장은 더 이상 가족 윤리나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 정체성, 가치 판단, 미학적 신념을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 시기의 복식은 단지 결과물이 아니라, 사상 전환의 산물이자 도구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여성이 더 이상 집단적인 해방 구호에 만족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⁴⁵⁾

이러한 복식 관념의 전환은 여성들이 '근대성' 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능동적으로 흡수하고 재구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은 서구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지도, 전통으로 회귀하지도 않고 다문화적 배경과 다층적 정체성 사이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복식 언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개별화되고 선택적인 사유 방식은 곧 '변화성' 과 '다양화' 가 절정기 여성 해방운동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된 깊은 이론적 배경이 된다.⁴⁶⁾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절정기의 여성 해방 사상은 '평등을 요구하는

44) 王政(2001). 越界.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p.20.

45) 吳聰, 劉亞茹, 陶曉晗, 嚴同彤(2023). 民國女性身體解放視角下旗袍廓形的設計變遷. 絲綢, 60(1). p107.

46) 朱琰(2017). 從旗袍之美看民國時期的大眾審美心理與女性服飾審美趨向. 南京藝術學院學報(美術與設計版), (02), p.92.

단계’에서 ‘자아를 추구하는 단계’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개인 의식의 강화, 다양한 역할의 정립, 문화적 참여의 확장은 이 시기 여성 사상의 주요 특성을 형성하며 복식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 변화의 반영 경로로 기능한다. 오사 운동 이후 중국 여성은 점차 주체 의식을 지닌 문화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였고 ‘신여성’은 더 이상 구질서에 대한 단순한 저항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개성화와 다양성은 민국 여성 복식의 다채로운 표현을 가능케 한 깊은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현대 여성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문화적 논리 또한 마련해주었다.

<표 1>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이념

| 시기 | 역사적 배경 | 핵심 이념 | | 주요 주장 |
|-----|--|----------------|---|----------------------------------|
| 계몽기 | 무술변법 당시, 개화파가 서구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권리에 주목하기 시작함 | 평과 등립 | 봉건 예교 비판 여성 교육 장려 여성 해방을 국가의 흥망과 연관 | 봉건적 악습 반대; 여성의 교육권 옹호; 여성의 권력 주장 |
| 성장기 | 신해혁명과 민주 사조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임 | 자와 유개 방 | 여성의 의무에서 권리 쟁취로의 전환 수동적 수용에서 능동적 권리 주장으로의 변화 개인 각성에서 조직적 운동으로의 발전 | 참정권 쟁취; 여성 단체 조직; 여성 정체성 향상 |
| 절정기 | 신문화운동이 여성의 개성과 다양성의 발전을 촉진함 | 개선 화양 다성 | 개성 표현의 강조 전통적 성별 틀의 해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현대적 주체로 전환 | 개성 표현을 강조; 성별의 틀을 허무함 |

3. 중국 여성해방운동과 민국시기의 사회상

1) 중국 여성해방의 역사 속 민국시기의 의의

민국시기는 중국 여성해방운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역사적 단계

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 정치 체제의 변화와 사회 근대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 집단이 교육, 사회 참여, 문화적 표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인식과 복식 표현에서도 전례 없는 주체성과 다양성을 드러내었다. 청말의 사상 계몽 단계가 이념적 구성에 중점을 두고 신중국 수립 이후의 정책 주도 단계가 제도화된 추진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민국시기의 여성 해방은 ‘자각성’, ‘실험성’, ‘문화 실천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중국 여성해방운동을 재조명함에 있어 가장 대표적이며 연구 가치가 높은 시기로 평가된다.⁴⁷⁾

본 연구가 민국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중국 여성 해방 역사에서 ‘사상과 실천의 결합’, ‘하향식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말 계몽 시기가 주로 남성 엘리트 담론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구성했던 것과도 1949년 이후 국가 기체에 의해 여성 이미지가 획일적으로 구축된 것과도 뚜렷이 구별된다. 민국시기의 신여성은 복잡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성장하였으며 이들의 복식 선택, 정체성 표현, 사회적 행위는 곧 ‘여성-신체-사회-복식’ 간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구 소재를 제공한다.⁴⁸⁾

따라서 본 연구가 민국시기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시기가 여성의 ‘의식 각성’에서 ‘현실 실천’으로의 중대한 도약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문화적 이행의 복합성과 시각적 표현은 신여성과 ‘복식’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풍부한 연구 내용을 제공한다. 이 시기의 복식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선택이 아니라, 여성 주체의식이 사회, 문화적 공간 속에서 시각적으로 구현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Joan Judge는 “민국시기의 신여성은 단지 사회적 의미에서의 역할 재구성일 뿐 아니라, 시각문화 속에서 자아 표현 방식을 확립한

47) 張春田(2015). 第二維新之聲—新青年中的啓蒙與自覺. 漢語言文學研究, 6(2), p.19.

48) 陳玉. (2008). 民國時期女性服飾的歷史變遷, 河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p.2.

존재였다” 고 지적하였다.⁴⁹⁾

2) 여성해방운동이 반영된 사회상

(1) 전족 폐지 운동

중국 전통적으로 여성 복식에는 엄격한 형식적 규범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안정적인 복식 구성 체계로 이어졌다.

중국 여성의 신체는 오랜 시간 동안 봉건 예교의 규율을 받아왔으며 그중 전족 제도는 여성 신체 억압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오대 시기(907년~960년)부터 시작된 전족은 여성의 “정절(貞節)”을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⁵⁰⁾ 이 제도는 여성의 이동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을 가정에 얽매이게 하고 사회 활동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남성은 외부 활동을, 여성은 가사와 양육을 맡는다’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男主外, 女主內)은 사회적 성별 분업 구조를 강화하였다.⁵¹⁾ 여성은 사회적으로 순종적이고 온화하며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었고 전족은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한 제도였다. 이에 따라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복식은 신체를 가리는 성격이 강하고 은유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넓은 소매, 겹겹이 포개진 치마, 신체 곡선을 완전히 은폐하는 복장 등은 봉건 사회 여성 복식의 기본 형태를 구성하였다.

49) Judge, J. (2001). Talent, virtue, and the nation: Chinese nationalisms and female subjectivit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3), p.765.

50) 陳梅(2013). 從身體社會學視角淺談中國古代女性纏足現象. *青年文學家*, (19), p.204.

51) 馮偉才(2006). 如何書寫中國女性身體史——從纏足開始. *二十一世紀雙月刊*, (97), p.123.



<그림 2> 청나라 시기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19세기 말, 위신 운동의 대두는 여성 해방 사상의 확산을 촉진하였고 전족 반대 운동은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첫걸음이 되었다. 엄복(嚴復)은 『천연론(天演論)』에서 사회의 진보는 국민의 소양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허슬리(Thomas Huxley)의 진화론 사상을 인용하여 “군학(群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여성의 신체 건강이 국가의 부강에 직결된다고 보았다⁵²⁾.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위신과 학자들은 여성 교육과 신체 해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족은 단지 봉건적 악습일 뿐만 아니라 국가 쇠퇴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전족 철폐를 주장하고 여성이 신체적 속박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02년, 청나라 정부는 『전족 금지 상유(禁止纏足上諭)』를 공포하였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방족회(放足會)”가 결성되어 자연 발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여성들에게 방족을 장려하였다.⁵³⁾ 그러나 방족은 단순한 생리적 해방에 그치지 않고 여성 복식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존 복식 체계의 해체를 초래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 복장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였다.

여성의 족부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복식 체계 역시 해체되었다. 전통적인 소족화(小脚鞋)는 천족(天足)과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여성은 신

52) 嚴復(2023). 天演論. 台北: 千華駐科技. p. 17.

53) 楊興梅(2006). 近代中國反纏足的努力與成效述略. 成都: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p.150.

발 선택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이에 따라 남성용 천신(布鞋), 만주식 두꺼운 밑창 신발, 서양식 가죽 구두 등 다양한 형태의 신발이 여성 복식 체계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여성은 전통적인 긴 치마를 유지하면서도 서양식 구두를 착용하여, “중서절충(中西折衷)”의 새로운 스타일을 형성하였고 또 다른 여성은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만주족 여성의 복장을 모방하여, 치과오나 마괘(馬褂)로 한족 여성의 전통 장삼을 대체하고자 시도하였다.⁵⁴⁾ 여성의 복식 실험은 단지 신발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식 변화는 전통 사회로부터 즉각적인 수용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림 3> 가죽 부츠를 착용한 여성 이미지

전통적인 복식 규범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착장 스타일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여성 복식은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⁵⁵⁾ 『여학보(女學報)』에는 여성 독자의 편지가 실리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방족 이후의 복식 선택에 대한 혼란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반드시 법을 마련하여 먼저 여성이 개량 복장을 하도록 해야 하며 대족(大脚)과 어울리는 복장이야말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⁵⁶⁾ 이 발언은 여

54) 張曉瑾(2012). 清末到民國的服飾改革與社會心理的變化. 藝術百家, (01), p.62.

55) 袁仄, 胡月(2010). 百年衣裳: 20世紀中國服裝流變. 上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p.62.

56) 荒林, 諸葛文饒(2007). 西方女性主義理論在中國的傳播和影響. 海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 p.77.

성이 단지 사회가 새롭게 부여한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시대 가치관에 부합하는 복식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복식의 변화는 단순한 착장 방식의 조정에 그치지 않으며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다. 일부 진보적 여성들은 “남녀평등”, “남녀동권” 사상을 수용하였고 “남과 여는 비록 형상이 다르나, 하늘이 부여한 권리는 동일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⁵⁷⁾ 자신의 독립성을 표현하고자 남성화된 복식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며 근대 남성 복식의 대표적 이미지로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을 살펴보면 여성 혁명가 추균(秋瑾)은 긴 남성용 장포와 천신(布鞋)을 착용하고 활동하였으며 “추선생(秋先生)”으로 불리기도 하였다.⁵⁸⁾ 이 시기 많은 여성 혁명가들은 남성화된 복식 이미지를 통해 여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거부하고 더 많은 사회적 발언권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일부 도시 여성들은 외투, 모자, 장갑 등 서양 복식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화된 복식 선택은 여성 복장 규범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4>

근대 전통 남성 복식 이미지



<그림 5>

추균의 남성 복식 이미지

57) 王耘(2008). 試析民國服飾文化的傳承與變異. 康定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17(3), p.59.

58) 郭延禮(2013). 解讀秋瑾: 上冊.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p.172.

또한, 복식에 내재된 전통적 계층 상징은 점차 약화되었고 복장 유행은 더 이상 상류 계층으로부터 하층 계층으로 확산되는 일방향 구조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 직업적 필요로 인해 기녀 집단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새로운 유행 복장을 수용하였으며 이는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봉건적 계급 관념에 가장 먼저 도전한 사례로 평가되며 여성 복식의 다양성 및 변화성을 갖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⁹⁾ 그러나 새로운 복식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가 여성과 기녀 간의 복식 경계는 점차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여성 착장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1912년, 『민립보(民立報)』는 화가 전병학(錢病鶴)의 작품 <누가 기녀이며 누가 학생인가>를 게재하였다. <그림 7>을 살펴보면 해당 작품은 여성 복식의 혼란을 풍자하고 여성 복장의 질서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⁶⁰⁾ 『신보(申報)』 또한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기녀가 여학생의 복장을 모방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며 여학생이 기녀의 복장을 흉내 내는 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이나?”⁶¹⁾ 이러한 평가는 여성 복식이 자유화되고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전통 관념의 틀 속에서 여성의 복장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6>

근대 기생 이미지



<그림 7>


누가 기생이고 누가 학생인가

59) 趙曉華(2014). 清末民初的女著男裝現象. 求索, 中華文明線上網, (12), p185.

60) 呂文翠(2015). 民初海上百美圖時尚敘事與性別文化的塑形嬗變. 清華中文學報, (4), p.415.

61) 盛羽(2003). 旗袍的歷史演變及社會價值初探.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16(3), p.93.

<표 2> 여성해방이 반영된 전족 폐지 운동

| 구분 | 특징 | |
|--------------------|---|---|
| 역사적 배경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위신운동의 전개로 여성 해방 사상이 확산됨; 전족 반대 운동으로 여성의 신체 형태가 변화하고 전통 복식 체계가 해체됨 | |
| 전통 복식의 특징 | 봉건 예교의 영향으로 여성 복식은 은폐성과 은은한 미를 강조하였으며 넓은 소매와 겹겹이 겹친 치마 등이 대표적임; 전족 제도는 ‘삼촌 금련’의 미적 기준을 형성하였고 전통적인 소족화는 여성 신분의 상징이 되었음 | |
| 복식 체계의 해체 | 방죽 운동은 여성의 족부 형태를 변화시켜 전통 소족화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만들었음; 신발 선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남성용 천 신발, 만주식 두꺼운 밑창 신발, 서양식 가죽 신발 등이 여성 착용 체계에 차례로 편입되었음 | |
| 복식 혼란 현상 | 중서 혼합 | 전통 긴치마에 서양식 구두를 매치함 |
| | 만주 복식의 모방 | 치파오와 마패를 모방하여 한푸를 대체함 |
| | 사회적 정체성 혼란 | 복식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음 |
| 여성 복식의 성별 표현 | 남성화된 복식 | 일부 여성이 평등권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남성복을 착용함 |
| | 서양식 복식의 융합 | 도시 여성들이 재킷, 모자 등 서양식 복장을 시도함 |
| 복식의 등급 관념 희석 | 기생 집단의 패션 영향 | 기녀 집단이 가장 먼저 패션 복식을 시도하였으며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였음 |
| | 사회적 인식의 충돌 | 신문과 잡지에서 여학생들이 기녀를 모방한다고 비판하였고 이는 정체성 불안을 야기함 |
| 사회적 반응 및 논쟁 | 복식의 자유화 vs 전통적 구속 | 복식이 점점 다양해졌지만 사회에는 여전히 여성 복장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존재함 |
| | 복식을 통한 정체성 경계의 모호화 | ‘양가 여성’과 ‘기녀’의 이미지 경계가 모호해짐 |
| 복식 혼란의 미학적, 사회적 의미 | 미학적 의미 | 복식 스타일이 점차 화려한 표현이 되었으나 여전히 중서 융합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 |
| | 사회적 의미 | 이는 여성들이 정체성 표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가 신여성 이미지에 대해 갖는 인식의 충돌을 드러냄 |
| 복식 이미지 |  | |

위와 같이 <표 2>에서 중국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으로 나타난 이 시기 여성 복식 이미지 혼란의 특징 내용은 정리되었다. 비록 복식의 혼란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시기의 복식 변천은 하나의 통

일된 규범으로 수렴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스타일이 뒤섞여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복식 이미지의 혼란은 전통과 현대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착장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분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남성복을 입은 혁명 여성, 서구 패션 요소를 수용한 도시 신여성, 그리고 풍속 경계에 위치한 기녀의 차림새까지—이처럼 다양한 복식 스타일은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 내 여성 문화의 갈등을 반영하는 축소판이었다. 복식 이미지의 다양성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복합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변화의 이면에는 여성이 자율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여성상을 향한 사회의 모호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2) 단발 운동

단발 운동은 민국시기 여성 신체 해방의 핵심적 표현 중 하나였다. 이는 ‘반전족’이나 ‘여학교 진흥’과 같이 정책적 또는 제도적 배경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과는 달리, 여성 주체가 주도한 심미적이자 정체성의 이중 혁신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금지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점차 대중적 유행으로 자리잡으면서 단발 운동은 시각적 이미지 차원에서 신여성의 외형을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성 질서와 신체 규율을 근본적으로 흔들여 놓았다.

신해혁명 이후 남성의 단변(변발 제거)은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성의 단발은 광범위한 억압에 직면하였다. 신문화운동의 도래와 함께, 단발은 점차 ‘이단’에서 ‘유행’으로 전환되었다. “중국 여성의 단발은 상하이에서 시작되었고 상하이 여성의 단발은 여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⁶²⁾ 는 말처럼, 여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식 여성 집단은 용기 있게 긴 땃은 머리를 자르며 ‘인격의 독립’과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였다.

62) 謝天開(2012). 民國女性的短髮風波. 時代人物, (5), p.120.

1920년 『민국일보(民國日報)』에는 「재론 여자 단발 문제」라는 제목으로 여학생들이 단발에 대해 논평하고 이를 적극 장려하는 글들이 여러 차례 실렸으며 위생상 이롭고 노동에 편리하며 사회 평등 의식의 고양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⁶³⁾이 시기 양카이후이(楊開慧), 덩링(丁玲), 류허진(劉和珍) 등 신여성들은 모두 단발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으며 이는 신여성 이미지 구축의 핵심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25년 5.30 참안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 운동이 확산되면서 단발은 급진적 표현의 하나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시위와 항의 활동에 참여하며 단발을 선택하였고 이를 봉건에 대한 저항이자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상징으로 간주하였다.<그림 8>참조), 혁명당 역시 단발 이미지를 통해 여성 대중을 결집시키고자 하였으며 “신해혁명은 남자의 변발을 없앴고 1925년에서 1927년의 혁명은 여자의 쪽머리를 없앴다” 고 말하기도 하였다.⁶⁴⁾ <그림 9>에서 나타나듯이 장읍란(張挹蘭)이 체포되었을 당시 보여준 단발머리와 장포(長袍)의 조합은, 당시 혁명 여성의 전형적 시각 이미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⁶⁵⁾



<그림 8> 1927년 경해여자사범학교
초등과 졸업식 장면



<그림 9> 장읍란의 체포

63) 周洪宇, 周娜(2016). 隱喻的身體: 民國時期學校中的女子剪髮問題. 華東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34(4), p.44.

64) 章開沅(2011). 辛亥百年遐思. 近代史研究, (4), p.4.

65) 楊聞宇(2010). 視死如歸的張挹蘭. 絲綢之路, (21), p.62.

정치적 상징 외에도, 단발은 1920년대 후반 패션 유행의 영향으로 여성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1927년 『민국일보』는 상하이의 단발 유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이발소의 유리창에 남녀 단발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쓰여 있고 머리 자르는 도안이 걸려 있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평준(平鬚)’, ‘달콤심(甜心)’, ‘쌍갈고리(双钩)’, ‘단갈고리(单钩)’, 오리꼬리(鴨尾)’ 등 다양한 단발 스타일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⁶⁶⁾ 또한 여성들은 단발 이후 헤어스타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발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한 달에 두세 번 다듬는다”고 하였다.⁶⁷⁾ 이 시기, 중국 여성의 전통적인 ‘세 갈래 머리, 두 겹 옷차림’이라는 안정적이고 폐쇄적인 복식 체계는 근대 사회의 급변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하였고 현대적 패션 시스템 속으로 흡수되었다. 당시 ‘패션(Fashion)’이라는 영어는 ‘번신(翻新)’으로 번역되었으며 음역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평가되었다.⁶⁸⁾ 복장과 헤어스타일은 끊임없이 ‘번신’되었고 여성의 패션 의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성 패션 담론의 부상은 단발 행위를 근대 소비문화 속에 정착시키며 이발과 복식의 조화는 신여성 정체성 표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각적 매체의 확산은 단발 이미지의 사회적 수용을 가속화시켰다. 『량우(良友)』, 『도화시보(圖畫時報)』 등 잡지들은 단발 여성의 이미지를 대거 게재하였으며 표지 사진 속 단발 여성들은 단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현대 여성 미학의 대표로 자리매김하였다.⁶⁹⁾ 『백미도(百美圖)』(〈그림 10〉)과 같은 예술 작품들 또한 점차 전통적인 ‘삼촌금련(三寸金蓮)’과 쪽머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단발에 치파오를 입은 신여성의 자태를 묘사하기 시작하였다.⁷⁰⁾

66) 姚霏(2009). 近代中國女子剪髮運動初探 (1903-1927) : 以身體為視角的分析. 史林, (2), p.59.

67) 姚霏(2009). 상계서, p.60.

68) 張小虹(2016). 時尚現代性.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p.71.

69) 曾越(2018). 民初新式百美圖的圖像範式與觀念重建. 四川戲劇, (3), p.140.



<그림 10> 민초 백미도(百美图)

뤄쑤원(罗苏文)은 민국 초 상하이에서 유행하던 『레베룩(禮拜六)』(<그림 11>참조) 잡지의 여성 표지 이미지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시선은 겸손하게 아래를 향하던 것에서 미소를 머금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태도는 경직되고 예법에 얽매이던 것에서 생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세는 긴장되고 엄숙하던 것에서 이완되고 자유로운 형태로 바뀌었다”.⁷¹⁾



<그림 11> 1914년 『토요일』 잡지 표지

여성의 이미지는 점잖고 겸손하며 피동적이고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럽게 활기차며 해방된 모습으로 대체되었고 헤어스타일은 복잡함에서 간결함으로 복식은 너르고 장식이 많은 형식에서 날씬하고 단순하며 활동

70) 呂文翠(2015). 전계서, p.388.

71) 呂文翠(2015). 상계서, p.391.

적인 ‘문명 신장(文明新裝)’으로 변화하였다.⁷²⁾ 표지 속 여성들은 당시 시대의 유행을 반영한 장신구들도 함께 착용하였는데, 머리 모양에는 유행하던 동양풍 쪽머리나 체비꼬리 앞머리 등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액세서리에는 서구풍의 실크 꽃 장식, 리본 타이, 스카프, 목걸이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무겁고 답답한 복식 스타일에서 해방되어 공적인 사회 공간 속에서 더 이상 ‘천편일률적’인 복식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개성과 진보적인 사상의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일련의 변화는 여성의 자아 인식과 사회적 인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백미도(百美圖)』에서는 신여성의 이미지가 여전히 땅은 머리나 쪽머리를 한 전통적 형태가 주를 이루었고 단발 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풍자 만화에만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가 여성의 단발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후 유럽과 미국 여성들, 영화 배우들의 단발 유행이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의 단발은 점차 패션과 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12>에서 나타나듯이 『백미도』의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속으로 점차 흡수되었다.⁷³⁾ 또한 일부 잡지들도 여성 단발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단발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1926년부터는 『량우(良友)』 잡지에서 단발 여성의 사진이 자주 실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발 여성의 이미지는 <그림 13>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혁명의 은유적 상징에서 벗어나 패션과 진보의 상징으로 재정립되었다.⁷⁴⁾

72) 劉瑜(2020). 民國文明新裝及其與改良旗袍的流行更替研究. 裝飾, (1), p.81.

73) 劉偉娜.(2018). 婦女雜誌(1915-1931) 圖像中民國女性風貌研究. 出版發行研究, (10), p.109.

74) 楊釗, 郭曉, 劉高品(2024). 世變與迭新: 民國時期女性耳飾樣態藝術研究. 寶石和寶石學雜誌, 26(6), p.158.




<그림 12> 단발 여성 백미도



<그림 13> 『량우(良友)』 잡지에서 단발 여성 이미지

단발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이나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여성들이 신체 해방의 과정 속에서 자아 의식을 강화하고 미적 주권과 사회적 역할의 재구성을 추구한 중요한 실천이었다. 이는 반전족 운동이 열어놓은 신체 각성의 흐름을 계승한 것이며 시각적 상징 차원에서 신여성 이미지 정립의 핵심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민국시기에 여성해방운동을 반영한 사회 현상인 단발 운동의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여성해방이 반영된 단발 운동

| 분류 | 특징 |
|---------------|--|
| 역사적 배경 | 남성 단발은 국가 정책이 되었으나, 여성 단발은 제한됨. 신문화운동이 자유 사상을 촉진하며 단발이 유행으로 전환됨 |
| 단발 운동의 등장과 영향 | 단발은 금기와 풍자의 대상에서 유행의 상징으로 변화, 1925년 이후 급속히 확산됨. 다양한 단발 스타일 등장 |
| 사회적 저항과 표현 | 초기에는 금지령과 조롱에 직면했으나, 여성의 평등권 의식을 자극함 |
| 지식 여성의 주도적 역할 | 여학생 집단이 먼저 단발을 시도하며 신여성의 상징이 됨 |
| 정치와 시각적 전과 | 단발은 정치 투쟁의 상징이 되었으며 언론에 단발 여성 이미지가 널리 실림 |
| 심미와 소비 문화 | 단발은 패션 소비에 편입되며 여성의 미의식이 근대화됨 |
| 복식 체계의 근대화 | 전통적인 머리 장식 체계가 해체되고 패션 담론이 복식 표현을 주도함 |
| 사회적 의미와 상징성 | 단발은 여성 신체 주권의 각성을 나타내며 신여성 이미지 구축의 시각적 상징임 |
| 여성 이미지 |  |

(3) 천유 운동

민국시기 여성 복식 이미지는 신체 곡선을 은폐하던 전통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곡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곡선미의 방향으로 전환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의 결과가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의 심화, 사회 인식의 변화, 외래 문화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천유(天乳) 운동의 추진, 언론 및 예술계에서의 여성 곡선 이미지 형성, 상업 광고를 통한 곡선미의 홍보, 그리고 여성 스스로의 패션에 대한 추구가 맞물리며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였고 결국 현대 여성 복식의 미학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복식 이미지는 예교의 제약을 받아, 느슨하고 평평하며 신체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가 중심을 이루었다. 주희는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에서 “여자는 신체를 드러내지 않는다(女子无裸露)”고 하여⁷⁵⁾, 여성은 신체를 가려야 한다는 관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복식 디자인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되었으며 한대의 유군(襦裙)부터 명청 시기의 마면군(馬面裙)에 이르기까지 여성 복식은 대부분 신체를 은폐하여 함축적이고 단정한 전통 미학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복식 관념이 점차 유입되었고 일부 도시 여성들은 서양식 의복을 시도하기 시작했지만, 사회 주류는 여전히 여성의 신체 곡선이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0세기 초, 가슴을 조이는 복장은 여성 복식 문화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이는 단정함과 자기 절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가오옌이(高彦颐)는 가슴의 볼륨을 억제하고 납작하게 만드는 속흉(束胸)⁷⁶⁾은 단지 여성이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유가 문화가 여성의 정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⁷⁷⁾.

1920년대 말, 국민정부는 “강국보종(强国保种)”이라는 목표를 따라 “천유(天乳) 운동”을 장려하며 여성이 가슴을 조이는 악습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75) 朱漢民(2018). 經典詮釋與道統建構——朱熹四書章句集注序說的道統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5(04), p.36.

76) 왕성카이(王星凱)(2021). 청말 민국기(天乳) 운동 : 여성 복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77) 高婧(2008). 清代世風影響下的仕女畫與女性審美. 電影評介, (18), p.87.

건강한 신체 형태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⁷⁸⁾ 정부는 속흉(束胸)이 여성의 출산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며 인구 증가와 국민 체질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1927년, 교육부장 주가화(朱家驊)는 『부녀 속흉 금지 제안(禁止婦女束胸的提案)』에서 “근래 여성계의 풍조는 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속흉을 미(美)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 유럽과 미국 각국 여성들은 모두 가슴의 발달을 중시하며 풍만하고 볼록한 가슴이야말로 위생에도 좋고 아름답다고 여긴다”⁷⁹⁾과 같이 설명하였다. 비록 정부는 천유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초기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비공식 담론에서는 “건강”과 “국민 체질”이라는 구호를 강조하였으나, 새로운 여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 시각화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는 “자연스러운 신체 곡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언론의 신속한 개입은 사회가 여성의 자연스러운 신체 형태를 수용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언론의 주도 아래, 전통 예술 작품에서 사라졌던 여성의 신체 곡선은 근대의 문자와 이미지 속에서 다시 등장하여 대중 앞에 직관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곡선미에 대한 찬미의 물결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며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⁸⁰⁾ 유명 화가 유해숙은 1925년 「인체 모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체는 불가사의한 영감을 지니고 있으며 곡선에서 끊임없는 흐름과 생명을 나타내어 정신과 육체를 조화롭게 하여 자연미와 정신미의 극치를 이룬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⁸¹⁾ 언론은 예술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과 만화를 앞다투어 게재하였고 여성의 신체는 노출되고 직관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14>참조) 누드화를 실는 것은 이 시기 신문과 잡지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으며 『량유(良友)』, 『영롱(玲瓏)』 등의 잡지는 유럽과 미국 여성들의

78) 何悅馳(2019). 天乳運動及其影響. 愛知論叢, (107), p.120.

79) 吳小璋(2015). 民國時期天乳運動探析. 貴州文史叢刊, (1), p.46.

80) 杜學元(2011). 社會女性觀與中國女子高等教育. 北京: 人民出版社. p.288.

81) 劉海粟(2001). 人體模特兒. 收錄於: 劉海粟藝術隨筆.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p.36.

패션 사진을 자주 게재하여 중국 여성들이 서양의 ‘자연스럽고 풍만한’ 신체 이미지를 모방하도록 장려하였다(<그림 15>참조). 『량유』는 1926년부터 10년 동안 총 135호에서 완전 혹은 부분 누드의 여성 인체 사진, 회화, 조각 작품을 200점 이상 게재하였다.⁸²⁾



<그림 14>

반나체 여성 이미지



<그림 15>

자연스럽고 풍만한 여성 이미지

언론의 영향으로 인해 예술계 또한 새로운 여성 신체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27년, 장한청(蔣漢澄)은 『북양화보(北洋画报)』 부간에 천유(天乳)를 주제로 한 두 점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작품은 <그림 16>에서 나타나듯이 몸에 꼭 맞는 짧은 저고리를 입고 가슴 곡선을 강조한 한 세련된 여성의 이미지를 묘사한 것이며,⁸³⁾ 두 번째 작품은 <그림 17>에서 나타나듯이 『난간에 기대어 응시함(凭栏凝睇)』이라는 제목으로, 몸에 밀착된 치과오를 입은 여성이 허리에 손을 얹고 먼 곳을 응시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⁸⁴⁾ 이러한 시각적 표현 방식은 여성의 신체 라인이 지닌 미감을 강화시켰으며 곡선미를 감상 가능한 하나의 이미지 기준으로 고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82) 曾越(2014). 社會·身體·性別. 廣西師範大學出版社. p.106.

83) 曾潔妤. (2017). 高底皮鞋長統襪, 袒胸露臂若為情——試從天乳運動看近代女性思想解放. 長江叢刊.p.90.

84) 張佳沁. (2020). 身體解放運動影響下我國女性服飾變遷研究. 江南大學. 博士學位論文, p.40.

1935년, 만화가 량바이보(梁白波)는 『미스 비(蜜蜂小姐)』를 창작하여, <그림 1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봉긋한 가슴, 가는 허리, 둥근 엉덩이로 구성된 ‘모던 걸(Modern Girl)’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⁸⁵⁾ 이 작품은 현대 여성 신체 이미지의 시각적 기준을 강화하였고 곡선미 유행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16>

천유미(天乳美)



<그림 17>

난간에 기대어 응시함(凭栏凝睇)



<그림 18> 미스 비

천유(天乳) 운동은 사회가 여성 신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

85) 李鎮. (2017). 蜜蜂小姐：梁白波與20世紀30年代上海漫畫. 裝飾, (4), p.81.

나라, 여성 복식 디자인의 변화도 직접적으로 촉진시켰다. 치파오는 가장 대표적인 복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초기의 느슨하고 일자형 디자인에서 점차 몸에 밀착되고 허리를 강조하며 옆트임이 높은 형태로 변화하여 여성의 곡선을 부각시켰다. 상업 광고 역시 ‘천유(天乳)’ 운동의 열풍을 타고 월분패나 신문 광고에서 가슴을 드러내거나 곡선이 뚜렷한 모던 여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삼았다. ‘요즘 곡선미 운동의 흐름은 출판계만의 일이 아니며 담배 회사의 사장이나 약을 파는 전문가들까지도 억지로 끌어들이며 이 기회를 틈타 앞다투어 홍보하고 있으니, 시대를 아는 영리한 인물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⁸⁶⁾

1920년대 초부터 월분패 화보는 이 시기 미인 이미지의 주요 매체로 자리잡았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항지영(杭杼英)은 당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여성의 곡선을 강조한 월분패 그림을 다수 제작하였다. 그림 속 여성들은 다양한 복장을 입고 여러 배경 속에서 아름다운 몸매를 드러내며 특히 풍만하고 둥근 가슴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그림 19>참조). 이러한 상업화된 이미지의 확산은 상류 사회 여성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주며 점차 이 새로운 유행을 받아들이고 추구하게 만들었다.⁸⁷⁾



<그림 19> 월분패(月份牌) 여성 이미지

86) 吳小瑋(2015). 전계서, p.47.

87) 曾越(2015). 民國女性的曲線革命與女裝風潮. 看歷史, (006), p.133.

자연스러운 신체 곡선을 표현하는 것은 점차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여성 스스로의 패션 의식 또한 변화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여성들은 재봉사에게 신체 곡선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복장을 직접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한 여성은 『가슴 높이를 재다(量胸高)』에서 “의복 길이, 밑단, 허리, 소매 끝, 목둘레 외에, 이제는 ‘가슴 높이’ 라는 치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와 같이 재봉소에서 경험을 기록하였다.⁸⁸⁾ 장아이링(張愛玲)은 혁명 전후의 여성 복식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혁명 이전에는 인간 자체는 부차적 존재였고 단지 시적인 선(線)을 중시했기에 여자의 체형은 공식화되었고 옷을 벗기 전까지는 그녀와 그녀 사이에 미적 차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이며 치파오의 역할은 구름을 받치고 달을 떠받들 듯, 인체의 윤곽 곡선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⁸⁹⁾

민국시기, 여성 복식 이미지는 신체 곡선을 은폐하던 전통에서 곡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단지 천유(天乳) 운동의 직접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언론, 예술, 상업, 여성 스스로의 주도적 참여가 어우러진 사회적 변혁의 결과였다. 치파오, 상업 광고 예술 작품의 확산은 곡선미가 점차 “직선미” 를 대체하여 새로운 여성 신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은 여성의 외형 이미지를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신체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현대 여성 복식의 전개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여성해방운동이 반영된 사회 현상 중 하나인 천유(天乳) 운동의 특징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88) 田伊婷(2017). 天乳運動與 1920-30 年代月份牌. 議藝份子, (28), p.27.

89) 周茜. (2008). 張愛玲散文更衣記解讀. 名作欣賞. (03), p. 45.

<표 4> 여성해방이 반영된 천유 운동

| 분류 | 특징 |
|-------------------|---|
| 역사적 배경 | 전통 복식이 신체의 노출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가슴을 억제하는 복식 문화가 보편적으로 나타나 유교적 미학을 반영함 |
| 천유 운동의 추진 | 1927년 정부가 ‘천유(天乳)’ 운동을 추진하며 자연스러운 체형을 장려하고 가슴을 억제하는 복식을 금지함 |
| 미디어를 통한 곡선미 유행 촉진 | 언론은 서구의 곡선미를 적극 홍보하였고 만화와 광고를 통해 여성 신체의 자연스러운 미적 감각을 확산시켰음 |
| 복식 디자인의 변화 | 치파오가 원래의 험렁한 형태에서 몸에 밀착되는 디자인으로 변화하며 여성의 신체 곡선을 강조함 |
| 여성 패션 의식의 변화 | 여성들이 몸에 밀착된 의복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의류 디자인에서 ‘가슴 높이’와 같은 신체 치수를 고려함 |
| 곡선미의 확립 | 다양한 사회적 힘이 전통적인 평면적 미를 대신하여 곡선미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새로운 신체 미의 기준을 형성함 |
| 사회적 의의 | 이는 여성 신체에 대한 자율성과 근대적 의식의 부상을 반영함 |
| 복식 이미지 |  |

4. 선행연구

1) 중국 전통 여성에 관한 연구

서구 여성사 연구의 영향을 받아 ‘여성 연구’는 학계에서 주목받는 연구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적 성(gender)’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에 간과되었던 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전통 중국 사회의 여성을 단순히 ‘가부장제’의 억압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이론적인 성찰을 시도하였다.

그 후 신체사적 관점을 반영한 중국 여성사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저서들이 있다. 가오옌이(高彦颐)의 『규

숙사: 명말청초 강남의 재녀 문화』, 『전족: “금런 승배”의 흥망 변화』, 이페이샤(伊沛霞)의 『내외: 송대 여성의 결혼과 생활』, 만수언(曼素恩)의 『수정록: 18세기 전후의 중국 여성』, 『장문 재녀』, 허샤오(贺萧)의 『위험한 쾌락: 20세기 상하이의 창녀 문제와 근대성』, 루웨이칭(卢苇箐)의 『변함없는 의지: 명청 시대의 정녀 현상』, 그리고 천가오화(陈高华)와 통샤오쑤(童芍素)가 공동 편찬한 『중국 부녀 통사』 등이 있다.

또한 천둥위안(陈东原)이 1928년에 집필한 『중국 부녀 생활사』는 중국 여성사의 체계적 서술을 시도한 최초의 저작으로 평가받으며 근대 여성사 연구에서 ‘억압-해방’이라는 주체적 논리 구조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⁹⁰⁾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은 서술 방식과 해석적 분석에서 모두 여성을 역사적 주체로 전제하고 있으며 담론 및 미시 권력이 각 역사적 시기 여성의 신체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역사, 사회적 배경이 여성의 신체에 어떠한 형성과 재구성을 초래했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2) 중국 여성 신체이론 연구

유사한 연구 방법과 목적을 바탕으로 여성 신체사는 20세기 1980년대 신문화사 흐름 속에서 신체사와 여성사가 상호 융합되며 등장한 새로운 연구 방향이다. 여성사는 신체사의 분석 범주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20세기 서구에서 유행한 실존주의 철학 사조의 심대한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프랑스 여성 사상가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대표 저서 『제2의 성』에서 실존 철학의 시각으로 여성의 생애 주기와 다양한 사회 집단 속 실질적 처지를 고찰하며 “여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⁹¹⁾ 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여성의 신체를

90) 陳東原(2009). 中國婦女生活史. 上海: 上海書店. p.268.

91) Beauvoir, S.(1949). Le Deuxième Sexe II: L'expérience vécue. Paris: Gallimard. p.45.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해석으로, 이후 여성 신체 연구의 전범이 되었다. 또한 프랑스 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신체를 권력과 연계시켜, 철학적, 역사적으로 신체에 대한 일련의 획기적인 사유를 전개하였고 그에 따라 신체는 더 이상 단순한 자연적 사실이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⁹²⁾ 푸코의 고전적 신체 이론은 여성 신체 연구에서 신체 의미의 전환에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대만학자 황진린(黃金麟)의 『역사, 신체, 국가: 근대 중국의 신체 형성(1895~1937)』⁹³⁾은 신체 사회 이론을 최초로 도입하여 신체의 근대적 문화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하였고 이는 대만 여성 신체사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유젠밍(游鑑明)의 『성별을 초월한 신체』⁹⁴⁾는 여성 체육 발전을 시각으로 삼아, 학교, 미디어, 사회 여론 등 담론 문화 미시 권력이 근대 중국 여성 신체를 어떻게 통제하고 생산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였다.

여성 신체사 연구는 중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순샤오둥(順曉東)은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국어 잡지 <량유> 속 신여성 복식의 특징』(2021)에서 1926년부터 1945년까지 『량유(良友)』 잡지에 등장한 신여성 이미지를 분석하여, 복식과 신체 미학 기준이 ‘발전-번영-전쟁’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는 이 시기 치과오 디자인이 점차 몸에 밀착되고 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며 곡선미가 주류가 되었고 이는 근대 여성 이미지의 시각적 재구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⁹⁵⁾ 본 연구는 복식 매체가 신체 의식 구성에 미친 영향력을 잘 보여주며 천유 운동과 시각문화 간의 내재적 연계를 입증하고 민

92) De Beauvoir, S(1951). Le deuxième Sexe, I. Les Faits et les Mythes. Revista Portuguesa de Filosofia, 7(1). p.76.

93) 黃金麟(2006). 歷史·身體·國家：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北京：新星出版社.p.352

94) 謝選駿. (2023). 纏足背后的亡國痛苦：纏足戰略考. 收錄于：謝選駿全集（第225卷），p.218.

95) 순샤오둥(2021). 중국 잡지량우(良友)에 나타난 신여성복식의 특성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산업디자인, 패션산업융합디자인학과, 경기도 용인.박사학위논문, pp.111-128.

국시기 여성 신체 미학 변화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장초(장초, 2023)는 박사학위논문 『신해혁명 이후 중국 광고 속 여성 이미지 변화 연구』에서 시각 문법 이론(Visual Grammar Theory)을 활용하여, 신해혁명 이후 중국 광고에서 여성 이미지의 시각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광고 속 여성 신체 이미지가 전통적인 ‘절제되고 내면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현대 소비 사회에 적합한 ‘아름다움, 패션, 욕망의 주체’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밝혔다. 장초는 광고 속 여성 신체가 국가적 도구적 상징에서 개인적 미적 표현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하며 이 변화는 20세기 초 여성 주체 의식의 부상 및 시각문화 확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⁹⁶⁾

한편,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여성 신체사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신문화사 연구’의 최전선에 자리 잡게 되었다.⁹⁷⁾ 조안 W. 스콧(Joan Wallach Scott)은 ‘사회적 성(Gender)’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생물학적 성(Sex)과 구분함으로써 양성 간의 사회적 특성과 차이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성’을 ‘계급’과 ‘인종’과 같은 유효한 역사 분석 범주로 제시하여 사회 역사를 이해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매김시켰다.⁹⁸⁾

‘사회적 성’ 개념의 도입 이후, 여성사 연구자들은 신체사 연구에서 개별 주체의 의식을 중요한 분석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회 담론 및 문화 미시 권력을 분석 도구로 삼아 여성 신체 연구의 발전과 확장을 크게 견인하였다.

3) 중국 여성해방운동과 민국시기 복식 연구

서구에서 진행된 중국 근대 여성 복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궁중 복식이나 대표적인 복식 형식에 대한 분석과 실물 자료 및 이미지 수집에 집중되어 있

96) 장초(2023). 광고 속 여성 조각상의 전환과정에 대한 시각문법 이론적 고찰 . 국민대학교 우주문화디자인학과, 서울.박사학위논문.pp.60-120.

97) 史敏(2017). 中國現代女性身體史研究述評. 史學月刊, (02), p.104.

98) Scott, J. W.(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55), pp.1053-1075.

으며 주로 사료 및 유물의 수집과 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Dress in Detail from around the World』(세계 복식의 세부), 『Chinese Clothes』(중국 복식), 『Chinese Dress: From the Qing Dynasty to the Present』(중국 복식: 청대에서 현대까지) 등의 저작에는 중국 근대 여성 복식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복식이 내포하는 문화적 의미의 발굴, 예술적 특징의 해석, 근대 복식 변혁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그 깊이도 충분하지 않다.

최근에는 해외 학자들의 중국 여성 복식 문화에 대한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 근대 여성 복식에 대한 연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과 존 S. 메이저(John S. Major)의 저서 『China Chic: East Meets West』⁹⁹⁾에서는 중국 복식의 변천 과정을 다루며 특히 치파오의 예술적 특징과 문화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안토니아 피난(Antonia Finnane)의 『Changing Clothes in China』¹⁰⁰⁾은 글로벌화 관점을 바탕으로 주제별 구성을 통해 중국 복식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새롭게 조망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신해혁명 시기의 높은 깃과 몸에 꼭 맞는 저고리, 학생복, 남장을 한 여성복, 새로운 혼례복, 개량 치파오 등 여러 유형과 시기의 근대 여성 복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저서는 근대 여성 복식의 변화 양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국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연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루린(2024)은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에서의 현모양처 담론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신여성』과 『부녀잡지』 두 잡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20세기 초 한중 양국에서 ‘현모양처’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 이미지와 복식 표현이 어떻게 유사하거나 다른 양상을 보였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

99) Steele, V, amp; Major, J. S(1999). China Chic: East Meets We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55-190.

100) Finnane, A.(2008). Changing Clothes in China: Fashion, History, N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313-342.

다. 그녀는 한중 양국의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여성이 문화와 가족 윤리의 매개자로 기능하며 그 복식 이미지가 전통과 근대, 서양과 토착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고 보았다. 특히 중국에서는 여성이 한편으로는 ‘모성 민족주의’의 도덕적 책임을 부여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치파오, 서양식 제복 등 근대 복식을 통해 신체와 정체성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였다.¹⁰¹⁾ 이 연구는 한중 문화의 공통된 담론 구조 속에서 여성 이미지의 형성 메커니즘을 드러내며 민국시기 신여성 복식 이미지를 분석할 때 ‘근대 이상 여성’이라는 사회적 구성 개념이 시각 기호와 패션 표현을 통해 복식 체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루린의 이론적 틀은 사회 전환기 속 여성들이 복식을 통해 국가 담론, 도덕적 기대,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해석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교차문화적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노과와 고헌진¹⁰²⁾은 중국 전통 여성 ‘도대수(倒大袖)’ 의상을 활용한 현대패션디자인 분석을 통해, ‘도대수’가 전통 여성 신체 이미지의 매개체로서 현대 패션 디자인에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소재, 실루엣, 상징 체계의 비교를 통해 복식 언어 속에서 여성 신체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의 여성해방운동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대만의 유명한 복식 역사 전문가인 왕유청(王宇清)은 『역대 부녀 포복 고실』¹⁰³⁾에서 근대 각 시기의 여성 의복을 고증하고 근대 여성들이 입은 기모가 만주 여성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주, 진, 한, 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걸영(袁杰英)의 『중국 치파오』, 바오밍신(包铭新)의 『중국 치

101) 루린(2024).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에서의 현모양처 담론에 관한 비교 연구: 신여성과 부녀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91-104.
 102) 노과, 고헌진. (2025). 중국 전통 여성 '도대수(倒大袖)' 의상을 활용한 현대패션디자인 분석 - 2014년~2024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 75(1), pp.92-114.
 103) 侯霞(2017). 旗袍造型變遷及其審美研究. 輕紡工業與技術, 46(2), p.38.

파오』, 류위(刘瑜)의 『중국 치파오 문화사』 등 여러 저서에서 기모를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기술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체계적인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 기타 근대 여성 의복 관련 저서로는 고흥흥(高洪兴)의 『纏足史』¹⁰⁴⁾가 있으며 이는 근대 여성의 전족 궁혜의 특성, 구성, 종류 등 다양한 측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항하이(杭海)의 『명청 시대부터 민국 시대까지의 여성 전통 은 장신구妆』¹⁰⁵⁾는 중국에서 드물게 여성 전통 은饰 연구에 관한 저서로, 발饰, 귀饰, 목饰, 손목, 반지, 악세서리 등의 여섯 부분을 나누어 명청부터 민국시기의 여성 은饰을 분류 연구했다. 이 저서는 주로 근대 실물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양혜아(梁惠娥)와 최영영(崔荣荣)이 편집한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구름 어깨』¹⁰⁶⁾는 강남대학 민속복식 전수관에 소장된 200여 점의 청대 이후 민속 유산인 구운肩을 바탕으로, 구운肩의 형태, 무늬, 색상, 원단을 분석하여 그 예술적 미감과 풍부한 문화적 내포 및 민속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판젠화(潘建华)의 『운루심 의(雲縷心衣): 중국 고대 내의 문화사』¹⁰⁷⁾는 예술 디자인학 관점에서 고대 여성 속옷의 문화, 형태, 색상, 무늬, 기법 등 다양한 측면을 자세히 논의한 저서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국 근대 여성 연구는 여성 신체 이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복식 연구 측면에서는 여전히 서구의 여성 연구 이론과 결합되지 못하고 기존의 자료 수집과 개괄적 논의에 머물러, 근대 중국 여성 복식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 근대 여성의 복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근대 여성 복식이 현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고 변천 체계

104) 高洪興. (2004). 纏足史. 華成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pp.50-249.

105) 杭海(2005). 妝匣遺珍：明清至民國時期女性傳統銀飾.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pp.15-420.

106) 梁惠娥, 崔榮榮(主編)(2013). 中國最美雲肩：情思回味之文化. 鄭州：河南文藝出版社.pp.25-220.

107) 潘建華(2005). 雲縷心衣：中國古代內衣文化. 上海：上海古籍出版社.pp.30-127.

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체 해방의 관점을 도입하여, 여성 신체 이론을 통해 복식, 신체, 자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여성 복식과 신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Ⅲ. 중국 여성해방운동으로 인한 민국시기 신여성의 이미지와 복식 변화

1. 민국시기 신여성의 이미지

1) 신여성 이미지 형성 요인

민국시기 신여성 이미지의 탄생은 근대 중국 사회 구조, 사상 관념, 문화 표현 방식의 심층적인 변혁에서 비롯되었다. 여성해방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여성은 점차 전통 사회의 ‘현모양처’ 라는 단일한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적 주체로서 공적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미지의 형성은 다양한 사회적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중국의 근대성 전환 과정에서 성별 구조 재편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청말의 유신 사조의 대두는 신여성 이미지의 발아에 있어 초기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무술변법 시기, 유신파 지식인들은 ‘여학교 설립’ 과 ‘전족 폐지’ 등을 주장하며 봉건 예교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국가 부강의 전략적 조건으로 격상시켰고 량치차오(梁启超) 등은 “남녀가 함께 교육을 받아야 문명과 개화의 기초가 된다”고 명확히 주장함으로써, ‘여성은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다’ 라는 전통적인 성별 관념을 뒤흔들었다.¹⁰⁸⁾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신문화운동은 전국적으로 사상 계몽을 촉진하였고 이는 여성의 자아의식 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후스(胡适), 천두슈(陈独秀) 등은 『신청년(新青年)』 잡지를 통해 개인주의와 인권 평등을 주장하며

108) 劉秀英(2002). 維新時期梁啟超女子教育思想述評. 呼蘭師專學報, 18(4), p.17.

‘여성 해방’을 사회 진보의 상징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 다수의 여성 지식인들이 교육, 문학, 언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기 시작하였고 단지 필치로 시대적 담론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과 복장을 통해 전통 여성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이념을 드러냈다. 일부 여성들은 스스로를 신여성으로 정체화하며 적극적으로 공공 사안과 사회 개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¹⁰⁹⁾

여학교 제도의 확립과 보급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도 한층 더 변화하였다.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는 『교육종지(教育宗旨)』를 반포하며 남녀의 교육권 평등을 명시하였고 전국 각지에 여학교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이러한 신식 교육을 통해 여성은 근대적 지식 체계를 습득하고 문화 자본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시대 의식을 지닌 새로운 유형의 지식 여성층이 형성되었다.¹¹⁰⁾ 이들은 사상적 표현에서 독립된 입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언행, 복식 스타일, 심미적 태도에 있어서도 ‘구식 여성’과는 전혀 다른 근대적 여성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빙신(冰心), 세빙잉(謝冰瑩), 휘비청(呂碧城) 등은 문학과 사회활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내면과 외면의 기품 모두가 신여성의 사회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적 차원에서 서구 사상과 물질적 산물의 유입은 중국 여성의 신체 의식과 미적 관념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전통 복식의 신체를 억압하는 형태는 점차 폐기되고 실용성, 밀착성, 자유도를 중시하는 신식 복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여학교 교복, 서양식 롱스커트, 개량 치파오 등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여성 신체는 은폐에서 드러냄으로, 억압에서 실천적 행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갱신이 아니라,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여성 이미지의 광범위한 확산은 또한 신식 매체 시스템의 구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부녀잡지』, 『신여성』, 『량유화보(良友畫報)』 등 출판

109) 姚霏(2012). 五四時期的新婦女雜誌研究. 近代中國婦女史研究, (20), p.33.

110) 楊天平(2002). 民國初年的教育宗旨. 師資培訓研究, (2), p.49.

물은 근대 여성의 생활상을 대거 실었으며 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독서, 자전거 타기, 연설, 여행, 노동 등 다양한 장면 속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중 매체는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미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안 저지(Joan Judge)는, 근대 미디어는 단순히 여성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시각문화 속에서 근대 여성에 대한 ‘식별 가능한 템플릿’을 적극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신여성을 지식 엘리트의 상징에서 사회문화적 보편 인식으로 전환시켰다고 지적하였다.¹¹¹⁾

민국시기 신여성 이미지의 형성은 사상 계몽, 교육 제도, 서구 문화의 유입, 시각적 전파 메커니즘 등 여러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이미지는 단지 하나의 사회적 역할 변화일 뿐만 아니라, 복식과 신체 기호의 재구성 과정이기도 하다. 신여성의 등장은 여성 정체성의 역사적 돌파를 의미할 뿐 아니라, 복식의 기능과 형식에 새로운 발전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복식 변천 연구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2) 신여성 이미지의 특징적 요소

민국시기 신여성의 이미지는 근대 중국 여성들이 사상 계몽, 신체 의식의 각성, 사회 참여의 확장 과정 속에서 점차 확립해 나간 것이다. ‘순종, 정절, 현숙’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 여성의 도덕적 역할과는 달리, 신여성 이미지는 근대성과 주체성을 동시에 지닌 문화적 면모를 드러내며 그 특징은 여러 층위에서 관찰되고 정리될 수 있다.

사상 의식의 측면에서 신여성은 전례 없는 독립성, 자율성, 비판 정신을 드러낸다. 신문화운동의 영향 아래, 여성들은 전통 유교의 ‘남존여비’ 윤리 논리에서 벗어나 ‘자아’와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

111) Judge, J(2008). The precious raft of history: The past, the West, and the woman question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87-195.

들은 문학 창작, 신문 기고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적 입장을 표명하고 성별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1928년 덩링(丁玲)이 발표한 『사페이 여사의 일기(莎菲女士的日記)』는 신여성 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작으로 간주되며 작품 속 주인공은 뚜렷한 자아의식, 감정적 성찰 능력, 그리고 사회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¹¹²⁾

신체 표현의 측면에서 신여성은 여성 신체에 대한 전통적인 억압을 깨고 ‘은폐, 절제’ 중심의 신체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자유로운 신체 태도를 추구하였다. 단발, 전족 폐기, 간편복 착용은 여성 신체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행위로 자리잡았다. 쨥웨이(曾越)는 이러한 신체의 변화가 단지 외형적인 전환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공적 공간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동시에 그들의 행위와 표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¹³⁾ 이 시기 잡지, 정기간행물, 화보 등 매체 이미지에서는 신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연설하고 독서하며 운동하는 모습이 빈번히 등장하며 이들은 ‘신체적 능동성’과 ‘성별 가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복식 스타일의 측면에서 신여성 이미지의 핵심 특징은 복식의 현대화, 실용화, 변화성에 나타난다. 학당 제복, 개량 치파오, 서양식 롱스커트 등 신식 여성복이 청말 이후 신체를 가리던 넉넉한 전통 복식을 점차 대체하게 되었다. 복식은 ‘예의와 제도’를 강조하던 방식에서 ‘표현’ 중심의 양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실용성과 심미성의 융합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적 성별 역할과 대립되는 시각적 논리를 구축하였다. 안토니아 피난(Antonia Finnane)은 연구에서 치파오의 유행이 단순한 유행 현상을 넘어 “신체 해방의 시각 언어”라고 지적하였다.¹¹⁴⁾ 신여성은 복식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전환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 대한 능동적 구성 능력을 확립하

112) 陳麗, 李家富(2015). 源於性別意識的顛覆與反叛——重讀丁玲的莎菲女士的日記. 昭通學院學報, 37(04), p.75.

113) 曾越(2014). 전계서, p.82.

114) Finnane, A.(2008). 전계서.

였다.

신여성의 사회적 역할 또한 뚜렷한 확장을 겪었다. 여성은 더 이상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 언론, 의료, 출판, 사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직업 여성의 이미지는 도시에서 점차 보편화되었으며 그들은 학교 교단, 편집부, 병원, 강연장 등에서 지식 전달자, 문화 참여자, 사회 건설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직업 여성과 공적 여성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천평위안(陳平原)은 여성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의 남녀 구조 재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¹¹⁵⁾

문화적 소양과 지적 역량의 향상 및 외적 표현은 신여성 이미지의 핵심 특징 중 하나를 구성한다.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일정 수준의 논리적 표현 능력, 언어적 교양, 심미적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질은 일상생활 방식, 사회적 언어, 복식 선택, 독서 취향 등에서 전통적인 ‘규방 여성’과는 전혀 다른 지식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부녀잡지』, 『신여성』 등 간행물에서는 이상적인 여성의 내면적 자질과 외형적 풍모를 묘사할 때 이성적이거나 심미적이고 지성 있다고 하는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¹¹⁶⁾ 이러한 서술은 사회가 근대 여성에 대해 품고 있던 인식과 긍정적 평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민국시기 신여성의 이미지는 더 이상 전통 여성 역할의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사상적 자유, 신체의 자율성, 복식의 현대성, 행동의 개방성, 문화적 의식을 아우르는 복합적 존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시각적 형식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민국시기 복식 변천에 명확하고 강력한 문화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115) 陳平原(2013). 女學堂的故事——從北京畫報看晚清女子教育. 看歷史, (002), p.36.

116) 閔桂媚(2008). 1990年代以來中國女性形象變遷的實證研究——對中國婦女雜誌的內容分析. 東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0(2), p.178.

3) 신여성 이미지의 사회적 의의

민국시기 신여성의 등장은 중국 사회가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전환 과정 속에서 중요한 문화적 표지로 작용하였다. 신여성은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유교적 성별 규범을 타파했을 뿐 아니라, 신체, 복식, 사회적 행동 등 시각적, 행위적 표현을 통해 가정, 사회, 국가 내 여성의 역할 정체성을 재구성하였다. 여성은 점차 공적 정체성과 자율적 사고 사회적 주체성을 지닌 근대적 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신여성 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는 단지 사회적 성별 구조의 진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근대화, 사회 구조의 재편, 문화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신여성의 이미지는 사회적 성별 구조의 재편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 중국에서는 ‘내외유별, 남존여비’ 라는 성별 분업 이념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여성은 오랜 기간 가정, 혼인, 출산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¹¹⁷⁾ 이에 반해 신여성은 교육을 받고 직업 세계에 진입하며 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점차 ‘가정 중심의 개인’ 에서 ‘사회적 주체’ 로의 역할 전환을 이루어냈다.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은 ‘아내, 어머니’ 에서 ‘학생, 교사, 기자, 작가’ 로 확장되었고 이는 기존의 성별 역할에 기반한 이원적 구조를 허물며 성평등과 사회의 다양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왕정(王政)은 그의 연구에서 “여성 공간의 확대는 민국시기 중국 사회 재편의 중요한 징표 중 하나” 라고 지적하였다.¹¹⁸⁾

신여성 이미지는 여성 개인의 신체와 표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여성 주체성의 시각적 구현으로 나타난다. 복식 스타일 측면에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신체를 억압하고 은폐하던 복장을 버리고 치파오, 제복, 평상복 등 개인의 형태를 부각시키는 근대적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현대 여성’ 의 주체 의식을

117) 布萊恩·特納(2000). 身體與社會. 馬海良 等譯.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p.347.

118) Wang, Zheng(1999). Women in the Chinese Enlightenment: Oral and Textual Histo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60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복장은 단순한 심미적 선택이 아니라, 여성도 자신의 신체를 드러낼 권리, 공적 공간에 진입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다. 조안 저지(Joan Judge)는 여성 이미지에서 ‘신체 표상’의 변화는 단지 형식의 혁신이 아니라 사회적 표현 메커니즘의 전환이며 그 본질은 여성 주체가 사회 담론 공간을 쟁취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¹¹⁹⁾

신여성의 등장은 시민 의식과 근대적 가치의 실천을 촉진하였고 성평등 인식의 형성을 견인하였다. 그들은 사회 사안, 정치 의제, 문화 창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유, 평등, 독립, 자아실현 등 근대적 이념을 일상생활과 정체성 구축 속에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여성의 사회적 공간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근대 국민 사회를 수립하는 데 있어 성별 차원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류칭핑(刘青峰)은 연구에서 여성의 ‘시민화’가 중국 사회가 ‘가족-황권’ 구조에서 ‘국가-개인’ 구조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 고리라고 지적하였다.¹²⁰⁾ 신여성은 단순히 하나의 성별 각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 질서 구축을 견인하는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시각문화 차원에서 신여성 이미지는 뚜렷한 시각적 문화성과 여론 규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신여성이 대표하는 심미 양식과 행위 방식은 점차 식별 가능한 시각적 템플릿을 형성하였고 이는 『량유화보』, 『부녀잡지』, 『신여성』 등의 간행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사회 대중에 의해 수용되고 모방되며 내면화되었다. 단발머리, 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드러내는 자세, 지적 분위기를 풍기는 복식과 태도는 여성의 일상적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 여성은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적 논리를 잠재적으로 설정하였다.¹²¹⁾ 이러한 시각의 규범화는 중국 복식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교화 기능을 수행하였다.

119) Judge, J. (2008). 전개서. p.82.

120) 李欣蓮(2022). 開放中的變遷: 再論中國社會超穩定結構. 政治科學季評, (64), p.26.

121) 吳詠梅, 李培德(2014). 圖像與商業文化: 分析中國近代廣告. 香港大學出版社, p.57.

민국시기 신여성 이미지의 사회적 의미는 그녀들이 국한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서 해방해서 미국 시기 신여성은 선도자이자 근대 가치의 담지자 시각문화의 규범 형성자다. 이로써 중국 사회가 전통적 성별 질서에서 근대적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데 깊이 있는 변화를 촉진하였다는 데에 있다. 신여성은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복식 문화의 기능 전환과 시각적 표현 방식의 현대화에 확고한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변혁에도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민국시기 복식의 변화 양상

1) 전통 예교 관념의 완화와 신체 구속 해방

(1) 전통 예교 관념의 완화

중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시기에서, 전통 예교 관념의 약화는 여성 복식 변천을 견인한 중요한 동력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는 봉건 윤리로부터 근대적 가치관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신체 인식, 복식 형태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복식은 단순한 신체 은폐 수단이 아니라 사회 문화와 윤리 규범을 담은 물질적 매개체이기에 여성 복식의 조정은 외형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그 이상으로 전통 예교 권위의 약화와 여성 주체 의식의 싹틔음을 깊이 있게 반영하였다.

여자 교육의 부상은 예교 관념의 약화를 직접적으로 견인한 중요한 동력이었다. 19세기 말, 서양 교육 제도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최초의 신식 여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학교는 전통적으로 통용되던 “여자는 무재(無才)가 곧 덕이다”라는 관념을 타파하고 여성이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여학교의 등장은 여성에게 지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식에 있어서도

개혁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여학교 교복은 서양식 교복의 영향을 받아 간결한 재단을 도입하였고 장식적인 자수나 비단 등의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소매 길이와 옷자락을 점차 짧게 하여 여성의 일상 활동에 더욱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¹²²⁾ 1907년, 청 정부는 처음으로 여성이 신식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¹²³⁾ 이후 여성들은 학교, 사회단체, 언론 등 보다 넓은 공적 공간에 점차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 복식의 스타일도 변화하였으며 전통적인 만주식 기장(旗裝)과 한족식 장포는 점차 간결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여성 복식의 디자인은 경량화되며 사회 활동 참여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나아갔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복식 선택은 대개 가정, 가부장제, 사회적 계급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었다. 그러나 사회 근대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은 일정 부분 복식 자율권을 갖기 시작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여성의 정체성은 전통적인 ‘가정의 부속물’에서 독립된 개체로 점차 전환되었으며 복식은 더 이상 정조나 가문 윤리의 상징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성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도구로 변화하게 되었다.¹²⁴⁾ 직업 여성의 등장은 복식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일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신문사, 학교, 은행 등 신흥 직업 영역에 진입하였고 이들 여성의 복장도 함께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여교사, 여성 기자 등은 화려한 전통 의복 대신 간결하고 실용적인 복식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복식은 점차 사회적 기능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그림 20>에서 볼 수 있듯이 교실에서도 단순한 예의나 의례의 상징이 아닌 실천적 요구를 반영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복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전통 예교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04년, 『여학보(女学报)』는

122) 袁仄, 胡月(2010). 百年衣裳: 20 世紀中國服裝流變. 上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p.61.

123) 蔣美華(2006). 辛亥革命時期女性角色變遷的特點. 山西師大學報 社會科學版, 33(4). p.118.

124) 蔣美華(2006). 상계서, p.120.

『여자의 복제 개혁(女子之服制改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여성은 가정 윤리 기준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하였다.¹²⁵⁾ 이와 같은 견해는 여성 복식이 점차 가부장적 규범에서 개체적 자율성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비록 여전히 사회적 도덕 관념의 제약은 존재했지만 그 변화의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림 20> 19세기 말~20세기 초 교실 풍경

명청 시기 여성 복식의 주요 특징은 은폐성, 층적성, 장식성이며 이는 여성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단정함’과 ‘절제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반드시 넉넉한 장삼, 땅을 끄는 긴 치마, 두꺼운 옷을 착용하여 신체 곡선을 가리고 동시에 남성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회피해야 했다.¹²⁶⁾ 복식은 단순히 사회적 신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성 도덕 규범의 구체적 실천이기도 하였다. <그림 21>과 같이 설명 추가하는 민초 시기 여성 복식 이미지로, 이미 지 속 상의는 짧은 저고리이고 하의는 치마다. 19세기 후반, 서구 사회 사상이

125) 許慧琦(2008). 超越服飾改革的改革論述——紀爾曼的女性的服飾及其批判意涵. 歐美研究, 38(2), p.344.

126) 沈從文(2008).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120.

유입되면서 중국 지식인 사회는 전통 예교가 여성에게 가하는 규율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여성 복식의 개혁을 사회 진보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위신과 학자들, 예컨대 Kang Youwei(康有為), Liang Qichao(梁啟超) 등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국가의 부강과 직결된다고 보았고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복식 개혁이 사회 근대화를 실현하는 핵심 고리라고 주장하였다.¹²⁷⁾ Tan Sitong(譚嗣同)은 “남녀는 모두 천지의 정수이며 똑같이 무한한 덕의 대업을 지닌 존재로서 마땅히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⁸⁾ 이는 여성의 역할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복식의 변혁은 곧 여성이 가정 중심의 윤리적 주체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전환되는 직접적 표현임을 보여준다. <그림 22>과 같이 이는 몇몇 여성들의 단체 사진으로 이들은 더 이상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캠퍼스에 참여하게 되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단발이나 낮은 포니테일 스타일로 하고 있으며 구두를 신었고 전통 유교 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1>

민초 시기 여성 복식



<그림 22>

1916년 배화여중(培華女中) 여학생들

127) 陶維兵(著), 李立華(主編) (2014). 從洋務運動到改革開放：武漢百年思潮研究. 武漢：武漢出版社. (武漢文化研究基地叢書). p.59.

128) 陳文聯(2000). 近代中國男女平等思想的歷史考察. 衡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04), p.98.

또한, 여성 복식 개혁은 일부 전통 사회 집단의 반발에도 직면하였다. 예컨대, 1912년 『天鐸』는 여성의 복장이 점점 더 기이해지고 서양을 모방하며 예교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기사를 실은 바 있다.¹²⁹⁾ 1910년 『申報』 또한 여성 복식 개혁이 “과도하게 서구화되어 민족적 특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서양식 복장을 모방하면 사회 분위기가 사치스럽고 퇴폐적으로 변하며 가정 윤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³⁰⁾ 이러한 발언들은 사회 전체가 근대화로 나아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전통적 관념이 여성 복식의 변화를 일정 부분 억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여성 복식의 변화는 전통 예교 관념이 약화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이 시기의 복식 변천은 여전히 비교적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상징적 의미는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여성의 복식 선택은 점차 가정 윤리의 부속물에서 벗어나, 개인 정체성 표현의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곧 여성의 사회적 발화권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식의 간소화는 단순한 외형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담은 문화적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예교의 완화는 여성 복식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동시에 복식의 변혁은 다시 여성에 대한 예교적 규율을 약화시키며 양방향 상호작용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복식은 점차 단순한 윤리적 상징이 아닌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비록 이러한 변화는 계몽기에는 아직 전통적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이후 여성 복식의 근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이 사회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자율적 의식을 지닌 주체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29) 張世瑛(2013). 顛覆的笑聲— 辛亥革命中的嘉年華會. 國史館館刊, (5), p22.

130) 吳昊(2019). 都會雲裳：細說中國婦女服飾與身體革命 (1911-1935)(第二版). 香港：三聯書店有限公司. p.30.

(2) 신체 구속에서의 해방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오랜 시간 동안 예교의 규율을 받아왔으며 복식은 단지 여성의 몸을 가리는 외형적 형태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통제하는 중요한 도구였다. 유교 문화는 ‘삼종사덕(三從四德)’을 강조하였고 여성의 행동, 신체 형태, 복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절’과 ‘순종’이라는 도덕 기준에 부합해야 했다. 이러한 요구는 복식의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¹³¹⁾ 명청 시기 여성 복식의 주요 특징은 넓은 소매와 긴 상의, 여러 겹으로 겹쳐 입는 옷, 그리고 철저히 신체 곡선을 가리는 디자인이었다. 허리선이 드러나지 않는 장포와 땅을 끄는 긴 치마가 대표적이며 발마저 전족 제도에 의해 구속되어 여성은 걸음이 느리고 행동이 제한되었다.

추균(秋瑾)은 『자매들에게 드리는 경고(敬告姊妹們)』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발은 작게 동여매고 머리는 반짝이게 빗어 올리고…… 얼굴은 하얗게 분칠하고 볼에는 붉은 연지를 칠했다. 평생 남자에게 의지하며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남자에게 기대 살아간다”.¹³²⁾ 이 묘사는 봉건 사회에서 여성 신체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남성의 미적 기준과 사회 질서를 따르는 도구로 조작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성은 전족, 쪽진 머리, 속흉 등 다양한 장식적 형태를 강요받았고 이는 단순한 미적 표현이 아닌 신체에 대한 억압이자, 여성의 활동 자유를 박탈하는 장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은 가정 내부에 갇혀야 했으며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라는 성별 분업 구조가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전족 제도는 그 대표적 사례로, 여성은 ‘삼촌금련(三寸金蓮)’이라는 미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그림 23>에서 확인되듯이 어린 시절부터 발을 묶어 변형시켰고 느릿한 걸음걸이를 통해 이른바 ‘연약미(柔弱美)’를 표현

131) 宋金英(2018). 女為悅己者容: 中國古代女性服飾表徵與審美取向. 民俗研究, (3), p.75.

132) 夏曉虹(2014). 晚清女報中的國族論述與女性意識——1907年的多元呈現.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1(04), p.120.

해야 했다.¹³³⁾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는 신체 관행은 실질적으로 가부장제 사회가 복식을 통해 여성을 규율한 직접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족부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후 여성들의 신발 양식은 <그림 24>와 같다.



<그림 23>

삼촌금련(三寸金蓮) 형태



<그림 24>

민국시기 진자색 자수 천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여성 해방 사상의 부상은 신체 해방을 여성 권의 투쟁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켰으며 반(反) 전족 운동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신체 해방 운동이었다. 청말 위신 운동(維新運動) 시기, 지식인들은 서구 사회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족 제도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Kang Yuwei(康有為), Liang Qichao(梁啟超) 등은 전족이 단지 봉건적 악습일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Kang Yuwei는 『대동서(大同書)』에서 “인류가 겪는 불평등 중 가장 고통스러운 대상은 여성이다” 라고 지적하였다.¹³⁴⁾ 그는 또한 여성의 신체적 자율권조차 거의 완전히 박탈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심지어 허리를 졸라매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절단하며 몸을 조각한다.”¹³⁵⁾ 유신파는 “나라를 구하려면 먼저 민족을 구해야 하고 민족을 구하려면 먼저 민족을 해치는 것을 없애야 한다. 민족을 해치는 일 중 전족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라고 주장했다.¹³⁶⁾

133) 張若華(2015). 中國纏足歷史: 三寸金蓮一千年. 香港: 中華書局出版有限公司. p.21.

134) 康有為(2002). 大同書. 北京: 華夏出版社. p.118.

135) 康有為(2002). 상계서. p.132.

반전족 운동의 성공은 여성이 신체 자율권을 처음으로 획득한 역사적 돌파구였으며 동시에 복식 변혁의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여성은 신체적 자유를 얻은 이후, 봉건 사회의 성별 분업 체계를 돌파하고 교육, 경제, 사회 생활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사회 인식 변화의 촉진제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자수나 바느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 학문을 배우며 교사, 간호사, 기자 등 신종 직업군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는 여성들이 복식에 요구하는 기준을 단순히 “예절에 부합하는가”에 두지 않고 보다 넓은 사회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¹³⁷⁾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학교 교복, 개량 장삼, 간소화된 한족식 장포 등이 전통 여성 복식을 점차 대체하며 <그림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명신장(文明新裝) 유행을 형성하게 되었다. 여학교 교복은 일반적으로 서양식 재단의 상의와 넉넉한 긴 치마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으며 복잡한 옆단추나 자수 장식을 제거하고 목깃과 소매 등의 요소를 간소화하여 복식을 보다 가볍고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단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전통적인 가정 중심에서 점차 공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였다.



<그림 25> 문명신장(文明新裝) 유행을 반응한 복식

136) 朱升芹(2010). 淺談近代中國婦女反纏足運動. 傳奇·傳記文學選刊(理論研究), (12), p.64.

137) 張媛媛, 李夢雪, 張競瓊(2023). 近代女子足服觀念的轉變及原因. 絲綢, 60(02), p.163.

동시에, 이 시기의 복식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논쟁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다.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은 여전히 전통적 관념을 고수하며 여성의 복식은 ‘정숙하고 단정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1912년 『신보(申報)』는 신식 여성복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예교를 버리고도 거리낌이 없다고 하며 여성 복식의 간소화와 서구화를 전통 도덕에 대한 충격으로 간주하였다.¹³⁸⁾ 그러나 사회 변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비판은 점차 힘을 잃었고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복식 양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복식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표현하고 더 이상 남성 중심의 미적 기준이나 예교적 규범에만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계몽기 여성 복식의 변천은 중국 여성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근대적 개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상징한다. 반전족 운동은 여성의 신체를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걷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고 동시에 인식의 차원에서도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신체의 자유야말로 독립을 향한 첫걸음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 변화는 비록 여전히 일정 부분 전통적 관념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미 여성 정체성 재구성의 여정을 열었으며 여성을 사회 규범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객체에서 권리를 쟁취하는 주체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계몽기의 복식 변천은 단지 외형적 형태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여성 주체 의식 각성의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복식은 더 이상 사회적 계급이나 도덕 규범의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 개인 정체성의 매개로 작용하게 되었다. 반전족 운동의 추진과 함께 여성들은 점차 신체적 속박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복식 또한 보다 자유롭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138)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上海文化出版社. p318.

2) 전통과 서양 요소의 융합 및 복식 양식의 간소화

(1) 전통과 서양 요소의 융합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변천 과정에서, 성장기의 복식은 단순히 전통적 속박을 돌파한 데 그치지 않고 동시에 서구 복식 문화의 수용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¹³⁹⁾ 이 시기 중국 사회는 서구 문화의 영향이 점차 심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복식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전환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가 되었다. 여성 복식의 양식은 점차 봉건 예교가 부여한 신체의 제약을 탈피하고 은폐 중심의 형태에서 보다 자유롭고 실용적이며 개성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변화 과정에서 전통 복식 요소와 서구 복식 요소의 융합은 핵심적인 특징으로 작용하였다.¹⁴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신해혁명 이후 전개된 신문화운동과 오사운동은 중국 사회의 사상 구조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 이념이 대중 속으로 깊이 스며들면서 성별 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확립되었다. 여성들은 신식 교육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복식에 대한 요구 역시 점차 실용적이고 편안한 현대 복식으로 변화하였다. 비록 전통 복식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 형태와 디자인은 점차 서양의 영향을 받아 전통과 서양이 융합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예컨대 <그림 26>에서 1920년대 초기에 변형된 치파오는 전통적인 장삼의 기본적인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서양식 재단 기법을 흡수하여 더욱 몸에 밀착된 라인을 갖추게 되었으며 소매나 칼라 등 세부 디자인에서도 서구적 요소가 반영되었다. 20세기 1920년대 서양 의상을 나타낸 <그림 27>에서 나타나듯이 전통의 험렁한 포복에 비해 개량 치파오는 여성의 신체 곡선을 드러내어 더욱 현대적인 미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상 활동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다.¹⁴¹⁾

139) 趙燕(2013). 民國時期女性服飾變遷特點探析. 絲綢之路, (4), p.52.

140) 李冰(2016). 清末民初滿漢女性服飾的交融與變遷. 理論觀察, (7), p.127.



<그림 26>

20세기 1920년대 초기에 서양 요소를
흡수한 개량 치파오



<그림 27>

20세기 1920년대 서양 의상

복식의 기능성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여성 복식은 실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양 복식의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 복식에 내재된 복잡한 장식적 요소들을 점차 약화시켜 나갔다. 전통 여성복의 넓은 소매와 긴 옷자락은 점차 좁은 소매와 짧은 길이의 형태로 대체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일상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회 인식의 전환을 상징하였다.¹⁴²⁾ 또한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 복식의 어깨선 구조, 허리선을 조이는 디자인, 그리고 보다 간결한 재단 방식과 같은 일부 요소들이 민국시기 여성 복식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동양의 우아함과 서양의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여성 복식 양식이 형성되었다.¹⁴³⁾ 또한 <그림 29>에서 같은 시기의 서양 모던한 감각의 의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융합은 단순한 시각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상징

141) 黃能馥, 陳娟娟(2004). 中國服飾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p.376.

142) 張天亮(2012). 淺談民國時期旗袍式樣的大變革. 活力, (10), p.183.

143) 邵晨霞. (2010). 西風東漸對民國時期服飾的影響. 絲綢, (04), p.48.

이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 여성들이 복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전통적인 성별 관념의 구속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 28>

서양 요소가 융합된
치파오



<그림 29>

서양의 모던한 감각의
의상



<그림 30>

서양식 얇은 직물로
제작된 치파오

전통과 서양 요소의 융합은 여성 복식에 전례 없는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서양 원단의 도입을 통해 양복용 울직물, 쉬폰, 실크 새틴 등을 활용하여 복식의 질감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주로 비단 소재에 의존하던 복식과 비교해 보다 <그림 30>에서 나타난 듯이 풍부한 층차감과 입체감을 갖춘 새로운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동시에 장식 양식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서양식 레이스, 자수, 단추 디자인 등이 중국 복식에 정교하게 융합되어 전통 자수 기법과 어우러짐으로써 독특한 미학적 스타일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 복식은 우아함과 단정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현대 여성의 개성 표현에 대한 욕구도 함께 반영하였다. 또한 복식의 색채 배합 역시 서양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어두운 색조가 주를 이루던 것에서 점차 밝고 경쾌한 색감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사회가 여성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별히 이 시기 서양 복식 요소가 민국 여성 복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에도 불구하고 전통 복식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독특한 문화 융합 현상을 형성하였다. 개량 치파오는 서양식 재단 방식을 차용하였지만 <그림 31>에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중국식 입깃(立領), 옥색 단추(盤扣) 등 전통적인 디테일을 유지하고 있어 동서양 문화의 접점을 잘 보여준다.¹⁴⁴⁾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성들이 보다 전통적인 복장을 선호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단정하고 단아한 이미지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서양 복식 요소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었고, 기능성과 개성이 강조된 복장이 점차 확대되었다.¹⁴⁵⁾ 이러한 현상은 비록 민국시기 여성 복식이 서양 스타일로 향해 가고 있었지만 전통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복식이 현대 사회의 실용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 문자형 고리(文字扣), 인심 고리(嵌芯扣), 인사경화 고리(嵌絲硬花扣)

민국 여성 복식은 흥성기에 접어들며 전통과 서양 요소의 융합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융합은 단순한 복식 스타일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인식, 성별 의식, 미학적 가치관의 전환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여성은 더 이상 단지 사회 전통 규범의 수용자에 머물지 않고 복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자

144) 包銘新(2004). 近代中國女裝實錄. 上海: 東華大學出版社. p.167.

145) 周錫保(2011).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p.527.

신의 주체성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복식의 변화는 곧 여성 정체성 인식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서양 복식 요소의 유입은 여성복을 더욱 실용적이고 간결하며 개성 있게 만들었고 동시에 일부 전통 복식 요소는 보존되어 시대적 특색을 지닌 혼합 양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해방운동의 전개를 한층 더 촉진하였으며 현대 여성 복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복식 양식의 간소화와 개량

장아이링(张爱玲)은 1942년 영문 잡지 『20세기(二十世纪)』에 발표한 수필 『Chinese Life and Fashions』에서 자필 삽화를 통해 근대 여성 복식 이미지의 변천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이는 앞서 시기별로 살펴본 복식 변화 양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림 32>¹⁴⁶⁾에서 보이듯이, 본 자료는 근대 여성 복식 이미지의 변천 과정을 실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시간대별 복식 이미지 분석과 대체로 일치한다. 약 반세기 동안 여성 복식은 신체를 은폐하던 방식에서 신체를 드러내고 곡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19세기 말에는 여전히 은폐한 상태에 머물러 대부분의 신체가 여러 겹의 의복으로 가려져 있었고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은 발, 손, 신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는 팔꿈치, 발목, 허리선이 점차 드러났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팔, 종아리, 가슴, 허리, 엉덩이 등의 신체 곡선이 복식에 의해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여성의 신체 형태를 기존의 축소된 어깨, 평평한 가슴,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실루엣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여성의 성적 특징을 보여주는 형태로 회복시켜 나간 것이다. 궁극적으로, 파마, 치파오, 하이힐 등은 여성의 모던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여성의 정체성과 패션 의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요소가 되었다

146) Chang, E. (1943). Chinese Life and Fashions. Shanghai: The 20th Century, pp.54-61.



〈그림 32〉 근대 여성 복식 이미지의 변천

① 상의하상(上衣下裳) 착장 형식의 변화

전통 중국 사회에서 한족 여성의 복식은 주로 ‘상의하상(上衣下裳)’ 형식을 따랐다. 후한 시대 유희(劉熙)는 『석명, 석의복(釋名, 釋衣服)』에서 “상의(衣)는 의지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의지하여 한서(寒暑)를 피하는 것이고 하의(裳)는 가린다는 뜻으로, 자신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¹⁴⁷⁾ 이는 의복이 갖는 기본적인 기능인 방한, 방서 외에도, 신체를 은폐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전통적인 예제(禮制) 문화의 규율 아래, 남성 중심의 여성 신체 미학은 은밀하고 절제된 형태를 지향하였다. 여성의 신체는 ‘넓은 옷자락과 긴 소매’의 복식 구조에 의해 철저히 가려졌으며 체형의 특성이 약화된

147) 劉熙(原著), 任繼昉, 劉江濤(譯註)(2013). 釋名, 釋衣服. 北京: 中華書局, p.16.

채 은폐된 상태로 표현되었다. 이는 신체 노출을 억제하고 겸손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던 전통 미학과 도덕 관념의 직접적인 반영이었다.

1898년 무술변법 시기 전족 반대 운동의 대두와 함께 여성의 족부가 먼저 해방되었고 이는 기존의 복식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며 복식 개혁을 촉진시켰다.¹⁴⁸⁾ 20세기 초 여성 복식의 전반적 스타일은 몸에 잘 맞고 슬림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33>에서 넉넉했던 의복 몸판과 소매는 점차 좁아지고 짧아지면서 여성의 날씬한 체형과 가느다란 손이 드러나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은 바지를 겉옷으로 착용하기 시작했으며 ‘상의하복(上衣下褲)’ 형식의 착장이 유행하였다. <그림 34>에서 나타나듯이 바짓부리의 너비도 점차 몸에 밀착되며 여성의 다리 실루엣 또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33> 20세기 초
상의하상(上衣下裳) 형태



<그림 34> 20세기 초
상의하복(上衣下褲) 형태

‘흥여학(興女學)’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민국 이후 여학생들이 착용한 간결하고 몸에 잘 맞는 ‘문명신장(文明新裝)’은 근대 문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복장은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특히 유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그림 35>에서 나타난 ‘나팔소매(喇叭管袖子)’ 디자인의 상의는

148) 馮君(2002). 戊戌變法與中國近代社會的構建.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5(4), p.43.

가느다란 손목과 잘록한 허리를 드러냈고 하의로는 셋업식 스커트를 착용하였으며 치마 길이가 짧아져 발목이 노출되었다.¹⁴⁹⁾ 치마의 구조 역시 전통적인 넓은 ‘묶는 형식의 치마(围系之裙)’에서 몸에 밀착되는 서양식 ‘입는 형식의 치마(套穿之裙)’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 전족 반대 운동이 심화되면서 도시의 대다수 여성들이 전족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복식 스타일 역시 변화하였고 상의와 하의 모두 신체를 드러내고 간편하며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가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에 대해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35> 문명 신장(文明新裝)

② 의상연속(衣裳连属) 착장 형식의 변화

예로부터 중국 여성의 착장 형식은 ‘상의하상(上衣下裳)’ 외에도 ‘의상연속(衣裳连属)’ 형식이 존재하였다. <그림 36>에서 나타나듯이 포복(袍服), 포복식(袍服式)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¹⁵⁰⁾ 청나라 이래로, 만주족 여성들은 대체

149) 崔榮榮, 牛犁. (2015). 民國漢族女裝的嬗變與社會變遷. 學術交流, (12), p.216.

로 넓고 곧은 실루엣의 포복 또는 포복식을 착용하였으며 보통 바지와 함께 치마되었다.¹⁵¹⁾ 신해혁명 이후, 만주족 여성의 포복 양식은 점차 유행에서 멀어졌고 만주족 여성들 또한 점차 몸에 잘 맞는 상의하상 형식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¹⁵²⁾ 20세기 초, 남녀 평등을 주장하던 일부 혁명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한 형태의 간결한 포복 또는 포복식을 착용하면서 여성의 남성 복식을 착용하는 표현으로 활용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주로 도시 지역에서는 전통 포복식을 개량한 복식, 즉 치파오(旗袍)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¹⁵³⁾

<그림 37>에서 초기 치파오의 디자인은 남성의 포복, 포복식과 유사하게 넓고 곧은 A라인 형태였다. 이러한 장식은 간결하고 절제되어 있어 진보적인 여성들과 여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여성들은 단발 운동의 실행과 더불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간결한 치파오와 매치하여 문명적이고 진보적인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비록 치파오의 몸통은 넓어 여성의 신체를 대부분 가렸지만 손목과 발목 부분은 노출되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여성들은 치파오 안에 바지 대신 스타킹을 착용하였다.



<그림 36> 중국 전통 포복



<그림 37> 치파오의 초기 양식

근대 여성 복식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보면 의상연속(衣裳连属)의 착장 형식

150) 劉靜軒(2014). 論上衣下裳制的符號學意蘊及其影響. 鄭州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47(04), p.186.

151) 李金俠(2014). 淺談清代滿漢女子服飾特徵. 煙台南山學院學報, (1), p.58.

152) 李長莉, 劉志琴, 閔傑, 羅檢秋(2015). 近代中國社會文化變遷錄 第三卷. 浙江人民出版社, p.794.

153) 崔榮榮(2016). 明代以來漢族民間服飾變革與社會變遷. 武漢: 武漢理工大學出版社, p.114.

은 넓고 곧은 실루엣의 포복, 포복식에서 점차 곡선을 강조하는 치파오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복식 양식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은폐함에서 부분 노출함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신체를 가리던 복식은 근대화와 여성해방운동의 추진 속에서 점차 몸에 밀착되고 신체 곡선을 드러내는 치파오로 대체되었다. 복식의 간소화와 개량은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여성이 독립과 해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신체관과 복식관이 얼마나 크게 변모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3) 여성의 정체성 의식과 복식의 신체 밀착

(1) 여성의 정체성 의식

민국시기 여성 해방운동이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자유 의식은 점차 각성되었고 이는 복식의 변천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중국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깊은 변화를 겪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 또한 커다란 전환을 맞이했다. 자유 의식의 각성은 단지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깊이 있게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여성 정체성의 변화는 외적 이미지의 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조와 문화 인식의 변혁이 맞물린 결과이다. 복식은 하나의 문화 기호로서 여성 주체성의 각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매개가 되었다. 여성들은 복식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표현하고 전통적 관념의 구속을 돌파하며 현대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여성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

20세기부터 시작된 현대 복식 패션의 역사는 신체 구속의 해방에서 신체 외형의 긍정, 나아가 신체에 대한 욕망의 추구로 이어지는 형성과정이며 이는

점점 더 육체로 향하는 신체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¹⁵⁴⁾ 1930년대에 접어들며 중국 사회의 근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 교육의 보급과 직업 여성 집단의 확대는 여성을 더 이상 가정 내 역할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 보다 다양한 정체성을 수행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현모양처관념은 점차 신여성 의식으로 대체되었고 여성들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추구하며 이를 복식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복식은 사회적 기호로서 미학적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깊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신문화운동 이후 여성 복식의 변화는 단지 외양의 변화가 아닌, 신체 해방과 전통 예교에 대한 도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복식은 여성 정체성 인식의 문화적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는 여성 자유 의식의 각성을 반영한다.¹⁵⁵⁾ 여성들은 복식 선택에 있어 더 이상 전통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개성과 근대성을 추구하는 복장을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독립적인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식의 현대화는 여성의 정체성 인식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 중국 사회는 여성의 은근함과 단정함을 중시하였으며 여성 복식은 신체의 특징을 감추기 위해 느슨하고 겹겹이 덧댄 형식을 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 복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몸에 꼭 맞는 재단,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복장이 점차 유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미적 양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수용하고 긍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¹⁵⁶⁾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여성 주체성 의식의 각성을 보여준다. 여성은 점차 자신을 사회나 가정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개인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복식 선택 또한 외부의 사회 규범에 의해 결정되던 것에서 벗어나 자아 의식을 표현하는

154) 齊志家(2012). 當代服裝時尚的身體研究. 美與時代(上), (4), p.21.

155) 吳聰, 劉亞茹, 陶曉晗, 嚴彤彤(2023). 전계서, p.109.

156) 趙莉, 劉衛(2023). 民國女學生運動裝的形制變遷及審美轉向. 絲綢, 60(08), p.160.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여성의 정체성 인식은 타자에 의해 규정되던 존재에서 스스로 정의하는 주체로 변화한 것이다.

의식의 각성과 여성 정체성 인식의 전환은 사회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직업 여성의 증가로 인해 여성 집단은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30년대에 여성들은 은행, 학교, 언론 기관 등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더 이상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여성들의 복식 선택에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을 불러왔으며, 전통적인 복잡한 복식은 점차 간결한 재단과 유려한 선을 가진 의복으로 대체되었고, 몸에 밀착된 치파오나 서양식 정장 등이 직장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더 이상 가정 내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업적이고 현대적인 여성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식의 변화는 여성 정체성 전환의 외적 표현으로, 여성 주체성의 향상을 드러낸다.

사회학 이론에 따르면, 복식은 단순한 물질문화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를 반영하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이론, 지멜의 패션 사회학, 푸코의 신체 규율 이론 등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 이론은 복식이 사회적 기호로서 개인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적 차이를 표현하며,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공동으로 밝혀내고 있다.

복식의 변화는 여성의 성별 정체성 재구성 또한 반영하였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 정체성은 남성의 인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복식 디자인 역시 남성 중심의 미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30년대 여성 복식의 변화는 여성이 점차 남성 중심의 미의식을 탈피하고 자아 인식의 구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⁵⁷⁾ 이 시기의 여성 복식은 더 이상 단순히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체 정체성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복식은 개성, 자유, 독립을 강조하며 여성은 전통 사회가 부여한 수동적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여성 해방운동이 단지 사회적 지위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구성하게 하였음을 의미하며 여성 주체 의식의 전면적인 각성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의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정체성 인식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복식은 문화적 상징으로서 여성 주체 의식 각성의 직관적 표현 수단이 되었으며 복식의 현대화, 변화성, 다양성을 통해 여성은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고 전통 사회가 규정한 단일한 여성 이미지의 틀을 깨뜨렸다. 복식의 변천은 단지 외형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을 전통적인 성별 질서로부터 해방시키고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 신여성 형상을 창조하게 하였다. 여성은 더 이상 수동적인 사회의 부속물이 아닌, 주체성을 지닌 사회적 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한 동시에, 오늘날 여성해방운동의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

(2) 복식의 신체 밀착과 노출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변천은 단순한 사회문화 변화의 축소판이 아니라, 여성 주체 의식 각성의 외적 표현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에 접어들며 여성 해방운동은 절정기에 이르렀고 여성들은 더 이상 단순히 사회 참여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과 외적 이미지 속에서도 스스로 자유와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여성 복식의 가장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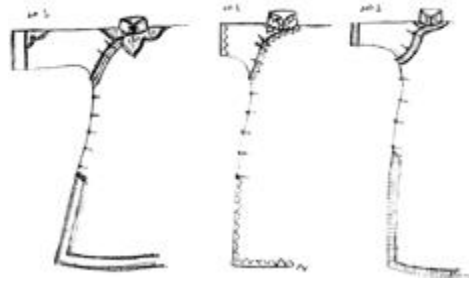
157) 秦純(2024). 批判與認同：時代漫畫 中摩登女性形象的時尚進程. 設計, (9), p.1039.

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재단의 신체 밀착화와 신체 일부의 노출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근대 여성 정체성의 확립을 상징하는 전환점이기도 하였다. 복식은 과거 신체를 은폐하는 도구에서 점차 여성의 자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변모하였고 이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 신여성 이미지로 구체화되었다.

20세기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복식은 느슨하고 몸을 가리던 스타일에서 몸에 밀착되어 형태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패션 스타일의 전환을 넘어 여성이 자기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스스로 확보했다는 점을 상징한다. 치파오는 이 시기의 중심 복식으로, 그 변형의 핵심은 몸에 밀착된 재단의 강화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허리 라인을 조여 20년대의 느슨하고 수직적인 디자인과 달리 여성의 신체 곡선을 뚜렷하게 드러내도록 하였다. 어깨 라인도 강조되어, 초기의 여유로운 어깨선은 보다 밀착된 재단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통해 어깨가 더욱 또렷하고 당당하게 표현되어 여성 이미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매 형태도 변화하였는데, 1920년대 치파오는 여전히 긴 소매가 주류였으나 30년대부터는 짧은 소매나 민소매 디자인이 점차 유행하면서 팔이 보다 드러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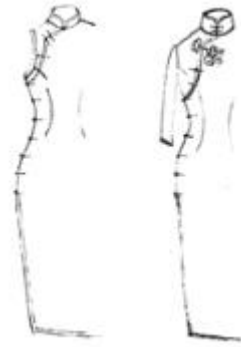
장아이링은 『갱의기(更衣記)』에서 치파오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소매의 폐지라고 언급하였고¹⁵⁸⁾ 이와 관련된 개량 치파오는 <그림 38>과 같다. 이는 여성 복식이 단순한 은폐에서 자신감 있는 노출로 전환되었음을 상징한다. 복식의 신체 밀착 재단은 미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 또한 더욱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었다.

158) 陳平原 (2020.). 課堂外的讀本系列 閒情樂事. 香港: 香港城市大学出版社. p. 95.



<그림 38> 1920년대 초 개량 치파오

<그림 39>에서 절개선(省道)이 있는 재단 방식과 소매의 폐지는 치파오를 점점 더 패션화된 복식으로 변화시켰다(<그림 39> 참조).



<그림 39> 1920년대 초기 개량 치파오

치파오의 높은 트임 디자인은 1930년대 여성 복식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였다. 1920년대의 치파오는 여전히 긴 치맛단과 낮은 트임이 주를 이루었지만,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트임이 점차 높아져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¹⁵⁹⁾ 이러한 디자인의 변화는 전통 복식이 여성의 신체를 가려야 한다는 규범을 정면으로 돌파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여성 스스로의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었음을 상징한다. 치파오의 트임 유행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여성 정체성 인식의 외적 표현이었다. 다리 노출 측면에서,

159) 朱琰(2017). 從旗袍之美看民國時期的大眾審美心理與女性服飾審美趨向. 南京藝術學院學報 美術與設計版, (02), p.93.

전통 복식에서는 여성의 다리가 긴 치마와 헐렁한 바지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지만, 1930년대의 고트임 치파오는 여성의 다리 곡선을 드러내며 가리는 것이 단정하다는 기존 인식을 깨뜨렸다.¹⁶⁰⁾ 팔 노출 면에서는 민소매 치파오와 반소매 치파오가 유행하며 여성의 팔 노출이 일반화되었고 이는 기존 복식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허리 조임과 몸에 밀착된 재단의 결합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체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봉건 사회가 여성의 신체에 부여했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표현하게 했다. 주목할 점은 신체의 노출은 단순한 서양 패션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이 시기 여성들은 점차 가정을 벗어나 직업 세계로 나아갔고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몸에 밀착된 재단과 부분 노출 디자인은 여성이 더욱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여성이 더 이상 수동적인 사회 기호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현대적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복식의 신체 밀착화와 신체 노출의 경향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0년대 여성은 사회에서의 정체성이 점점 더 다양해졌으며 더 이상 전통적 가정 내의 아내나 어머니에만 머물지 않고 교사, 기자, 사무원, 예술가 등 독립적인 직업인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여성의 복식이 사회 활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을 요구했다. 따라서 복식 재단의 변화는 단순한 미학적 조정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반영하는 표현이었다. 이 시기 『량유(良友)』 화보 등 패션 매체들도 여성 복식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했다. 1934년 『량유』에 실린 패션 칼럼에서는 “현대 여성의 복식은 단지 외면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개성과 사회적 역할을 드러내는 표현

160) 王珊珊(2016). 淺談二十世紀二十年代至四十年代旗袍下擺的發展演變. 明日風尚, (17), p.395.

이다” 라고 강조했다.¹⁶¹⁾ 이는 복식의 변화가 더 이상 남성의 미적 기준에 수동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율적으로 자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복식 재단의 신체 밀착화와 신체 노출이 여성 해방의 진전을 나타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복식의 현대화를 지지하며 복식의 자유는 여성이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은 여성 복식의 개방성이 전통 도덕관념을 위협하며 심지어 사회 기풍을 해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류하이쭈 예술수필(劉海粟藝術隨筆)』은 1935년 한 글에서 근대 여성의 복장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예교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¹⁶²⁾ 이러한 논쟁은 사실상 여성 해방 과정에서의 신구 관념의 충돌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다.

복식 재단의 신체 밀착화와 신체 노출은 민국시기 절정기에 나타난 여성 복식 변천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패션 스타일의 진화가 아니라, 여성 주체 의식 각성의 외적 표현이었다. 복식을 통해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 사회적 변혁 속에서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갔다. 복식의 변화는 여성의 외적 형상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별 역할에 대한 재정의의를 유도하였다. 복식은 더 이상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성이 자율성을 쟁취하고 개별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변천은 단순한 사회 변화의 외적 표현을 넘어,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과 사회적 정체성의 전환을 깊이 있게 반영하는 과정이었다. 계몽기에서 절정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복식은 구속에서 해방으로, 은폐에서

161) 孔培, 孫聰(2022). 民國女性服裝審美的現代化進程——以良友報刊為例. 包裝與設計, (5), p.156.

162) 劉海粟(2001). 전개서, p.30.

부분 노출로, 보수에서 개방으로의 변화 경로를 거쳤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한 여성 복식의 변천사가 아니라,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과정이며 현대 여성 복식 디자인과 여성 주체성 연구에 중요한 역사적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Ⅳ. 여성해방운동이 투영된 민국시기의 신여성 복식

사례 및 3D 자료 구현

1. 자료 구현의 개요

본 프로젝트는 3D CLO 가상복식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 여성 해방운동의 각기 다른 단계에 해당하는 민국시기 대표 여성 복식을 3차원 디지털로 복원하고 동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델링 작업은 본 논문에서 구분한 세 가지 역사적 시기-계몽기, 성장기, 절정기-를 중심으로, 구조설계, 실루엣 특징, 소재 표현, 착용 상태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여성 복식이 사회적 정체성 재구성 과정 속에서 지닌 문화적 함의와 변화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베이징, 홍콩, 우한, 상하이 네 지역의 주요 박물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민국시기 여성 복식 실물 사진 총 126장을 촬영하였다. 이들 이미지 자료는 역사 복식 샘플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3D CLO 가상 모델링의 실제 작업 과정에서는 의복 구조의 완전성, 이미지의 선명도, 양식의 대표성, 역사 단계와의 대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3장의 실물 사진을 모델링의 주요 원형 자료로 선정하였다. 채택된 샘플들은 명확한 연대 구분이 가능하고 의복 구조가 온전히 드러나 있으며 ‘신여성’의 신체 표현이라는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져 재단 및 소재 세부를 복원하는 데 적합한 자료들이다.

이와 동시에, 모델링 샘플의 시대감과 표현의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연구자는 민국시기 역사 사진 자료 중 여성의 복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 8장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량유』, 『부녀잡지』, 『영룡』 등의 간

행물에서 시각적 표현력이 뛰어난 삽화 5점을 보조적 모델링 참고 자료로 채택하였다. 이들 이미지에 담긴 자세, 동작, 배경 장면 및 복식의 조합 방식은 가상복식의 착용 효과 구성과 동적 시뮬레이션 구현에 생동감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세 개의 역사적 단계별 주제에 따라 총 36벌의 가상 복식 모델링을 완성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12벌씩 제작되었다. 이는 각각 ‘전통성과 진보성’, ‘변화성과 다양성’, ‘간결성과 실용성’이라는 핵심 스타일 방향성과 대응된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문헌 자료, 이미지 샘플, 실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각 시기 복식의 의복 비율, 구조선, 문양 배치, 동적 드레이프 표현 등을 정밀하게 복원하였다. 또한 3D CLO 플랫폼을 활용하여 런웨이 애니메이션과 밀착 착용 시뮬레이션을 구현함으로써, 복식이 단순한 ‘정적 재현’을 넘어 ‘동적 표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설득력과 시각적 전달력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3D CLO를 통한 3차원 모델링과 동적 구현을 통해 중국 ‘신여성’의 복식과 여성 자아 정체성 의식의 각성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을 한층 풍부하게 하고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심화시켰다. 동시에 디지털 패션의 표현 형식과 문화적 확산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였다.

2. 자료 기획 단계

1) 주제의 설정

1단계에서는 전통성과 진보성이 공존하는 계몽기 복식을 다루며 전통성을 반영한 복식 4벌과 전통성과 진보성이 겸비된 복식 4벌, 그리고 진보성을 반영한 복식 4벌로 구성된다. 2단계에서는 변화성과 다양성이 가미된 성장기 복

식을 다루며 총 12벌의 복식을 제작하였다. 3단계에서는 간결성과 실용성을 반영한 절정기 복식을 다루며 총 12벌의 복식을 제작하였다.

(1) 계몽기

계몽기 주제는 전통, 문화적 근원, 전환의 시작이다

본 단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무술변법, 전족 반대 운동 등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며 여성이 점차 봉건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복식 또한 전통적인 신체 은폐 형식에서 근대적 스타일로 이행하는 단초가 나타나는 시기를 조명한다. 의상은 사선 깃, 옆트임 단추, 입깃 등 전통 복식 구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부 디자인과 재단 방식에서는 근대 복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몸에 밀착되는 재단과 복잡한 장식의 절제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여성이 ‘가정의 부속물’에서 ‘사회적 개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초기 자아 정체성의 각성을 표현한다.

본 시기의 디자인 목표는 근대 초입기 복식이 전통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구질서와 신질서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자아 정체성 각성의 출발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다.

(2) 성장기

성장기 주제는 다양성, 개성 해방, 표현의 자유이다

신문화운동의 확산과 여성 교육의 보급에 따라 사회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하게 된다. 여성은 복식을 통해 자아 정체성, 사상 해방, 심미적 다양성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복식 디자인은 신체에 더욱 밀착된 구조를 띠며 개량 치파오, 바지차림, 현대적 장식 문양 등 서구적 요소를 흡수하여 여성복은 다양성, 개성 해방, 자유로움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개인의 스타일과 시대의 개방성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 시기의 디자인 목표는 사회문화 속에 있는 다양성과 화려함이 복식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여성이 복식을 매개로 자아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태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다.

(3) 절정기

절정기 주제는 미니멀리즘, 기능성, 생활과의 융합

민국시기 여성해방운동이 절정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은 교육, 직장, 사회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고 이는 복식이 보다 간결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복식 디자인은 착용의 편안함과 활동의 용이성을 중시하며 전반적인 스타일은 절제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띤다. 장식은 최소화되었으며 중성적인 색조, 여유로운 바지 실루엣, 허리선을 살짝 강조한 재단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의 복식 구조는 일정한 여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 곡선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나 사교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본 시기의 디자인 목표는 현대적 생활방식 속에서의 패션의 간결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현실 속 신여성이 추구한 간결함, 효율성, 자아 주장 중심의 의복 선택을 표현하는 데 있다.

2) 신여성 복식의 특성

(1) 전통성과 진보성이 공존하는 계몽기의 복식

계몽기는 중국 여성 복식 변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는 깊은 전통 문화의 영향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회 현대화 과정의 충격을 함께 받는 시기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 사회는 봉건 제도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되는 중대한 시기에 있었으며 여성은 이 과정에서 점차 전통적인 가정의 울

타리를 벗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서양 사상의 유입과 자국 내 사회 변혁이 동시에 여성 복식의 변화를 이끌며 전통성과 진보성 사이에서 이행기적 특성을 나타냈다.¹⁶³⁾

봉건 사회에서 여성 복식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도덕과 윤리 관념을 담는 매개체였다. 청대 여성 복식의 특징은 가림성, 복잡한 장식, 사회적 신분 구분의 강조에 있었다. 만한(滿漢) 문화의 융합은 여성 복식을 장포, 큰 소매, 허리를 조이는 구조, 신체 곡선을 가리는 형태로 발전시켜, 봉건 사회가 요구한 ‘단정함’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여성을 가정의 부속물로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¹⁶⁴⁾ 그러나 19세기 말 신식 교육의 확산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복식에도 조정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 유교적 관념의 제약을 받았지만 일정한 진보성 또한 반영하였으며 계몽기의 여성 복식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독특한 균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① 전통성

본 연구에서의 전통성은 단순히 기존 문화 양식의 기계적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에 나타나는 역사적 연속성과 문화적 규범성을 지칭한다. 전통성은 복식의 외형적 형식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성별 질서, 도덕 관념, 신체 인식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물질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복식이라는 매개 속에서 전통성은 종종 ‘신체-윤리-사회’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며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이 깊은 중국 사회에서는 여성 복식의 전통성이 여성 신체의 은폐, 성별 행위에 대한 규율, 예교적 도덕의 시각적 구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계몽기 여성 복식은 여전히 전통 문화의 깊은 영향을 계승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드러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회 변혁이 여

163) 高春明(2014). 垂衣裳而天下治——中國古代服飾的演變. 資本市場, (10), p.127.

164) 周錫保(2011). 전개서, p.534.

성 복식의 변화를 촉진했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전통 복식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였다. 만주족 여성은 여전히 기장을 주로 착용하였고 한족 여성의 복식은 주로 장삼과 치마가 중심이었다. 청대 전통 장삼은 느슨하고 넓은 소매를 특징으로 하며 옷 길이는 일반적으로 무릎을 넘겼고 유교의 ‘합축적 아름다움’이라는 도덕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가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¹⁶⁵⁾ 민국 초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량 치파오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느슨한 전통 복식을 선택하여 사회가 기대하는 여성의 정절과 단정함을 유지하려 하였다.

계몽기의 여성 복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색채 및 장식 미학을 따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청대 여성 복식은 주로 장청색, 흑색, 진홍색 등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여성의 내면성과 단정함을 표현하였다.¹⁶⁶⁾ 동시에 자수 기법은 여성 복식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상류층 여성의 복식에서는 모란, 매화, 구름 무늬 등 복잡한 자수 문양이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미학적 양식은 민국 초기까지도 지속되었으며 일부 복식은 단순화되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미적 기준은 여전히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계몽기 여성 복식은 단순한 개인의 심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도덕 규범의 상징이었다. 전통 여성 복식은 신체의 노출을 피하고 팔과 다리를 가리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유교적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9세기 말 『신보(申報)』에서는 여성의 노출된 복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며 “여성의 복장은 단정하고 우아해야 하며 피부를 드러내는 것은 부덕한 행위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¹⁶⁷⁾ 따라서 개량 복식조차도 일정 부분 전통적인 도덕 기준에 부합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여론의 비난을 피할

165) 周錫保(2011). 상계서, p.475.

166) 顧頡剛(2011). 顧頡剛讀書筆記: 卷一. 北京: 中華書局. p.178.

167) 劉義慶(編著), 朱碧蓮, 沈海波(譯註)(2024). 世說新語上. 北京: 中華書局.p132

수 없었다.

② 진보성

비록 계몽기 여성 복식은 상당 부분에서 전통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회적 변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복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를 통해 복식은 점진적인 ‘진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성’이란 복식의 기능적 구조, 미학적 표현, 성인지적 측면에서 전통적 제약을 점차적으로 극복하며 현대 사회의 요구와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지 외형적 형식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이 점진적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

계몽기에는 여성 교육의 확산과 사회 활동의 증가에 따라 여성 복식이 점차 간결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전통 여성 복식의 복잡한 구조는 점차 간소화되었으며 특히 지식 여성 계층 사이에서 장삼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소매는 좁아져 일상 활동에 더욱 적합하게 되었다.¹⁶⁸⁾ 1898년 무술변법 시기, 개혁파는 여성이 신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성 복식 또한 근대 생활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식의 기능성을 중시하였다. 이 시기부터 여학생 교복이 등장하였고 디자인은 서양식 교복의 간결한 특징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장식을 제거하고 입기 편한 입깃, 좁은 소매, 일렬 단추 방식의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계몽기에는 여성 복식의 색상이 점차 짙고 어두운 색조에서 부드럽고 화사한 색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기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일부 신흥 도시의 여성들은 옅은 하늘색, 분홍색, 연한 녹색 등 산뜻한 색조를 선택하여 맑고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¹⁶⁹⁾ 이러한 변화는 당시 사회가

168) 鄔紅芳, 董曉芳(2012). 旗袍演變的社會學視角解讀. 西安工程大學學報, 26(2), p.185.

169) 王穎, 申亞萍(2015). 從月份牌廣告中的服飾元素探析女性的性別角色變遷. 新聞研究導刊, (17),

여성 복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지만, 여성들이 자아 표현을 모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복식 선택에 대한 주체성도 점차 확대되었다. 계몽기의 여성 복식은 여전히 사회 규범의 영향을 받았지만, 복식 선택에서 여성의 자율성이 뚜렷이 강화되었다.

③ 전통과 진보가 공존하는 특성

계몽기의 여성 복식은 전통에서 완전히 단절되거나 완전히 근대화된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사이의 이행기적 단계에 위치하며 양자가 공존하는 이행기적 특성을 드러낸다.

복식 전반은 여전히 느슨한 실루엣을 유지했지만, 일부 신식 복장은 보다 몸에 맞는 재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초기 개량 치파오는 여전히 긴 기장과 넉넉한 형태를 유지했지만, 전통 여성복에 비해 선이 더욱 유려해지며 점차 현대적인 몸에 맞춘 재단 방식으로 이행하였다.¹⁷⁰⁾ 동시에 신식 여학생 교복은 비교적 슬림한 윤곽을 적용했으나, 긴 소매와 긴 치마를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의 단정한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전통 여성 복식은 주로 짙은 색조를 사용하였으나, 신식 복장은 점차 부드러운 색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계몽기의 여성 복식은 색채 면에서 전통과 현대의 중간에 위치하며 짙은 색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점차 연하고 우아한 색조로 전환되었다. 1910년대의 개량 복식에서는 상의는 여전히 남색이나 흑색이 주를 이루었으나, 하의에는 점차 연분홍, 연황색 등의 색상이 등장하였다.¹⁷¹⁾

계몽기 여성 복식 개혁은 계층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보수파

p.181.

170) 王迪(2014). 中國旗袍的歷史演變. 美術教育研究, (19), p.73.

171) 顧頴剛(2011). 전개서, p.179.

는 여성 복장이 전통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고 진보파는 여성 복장이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몽기의 복식 개혁은 종종 절충적인 방식을 취했으며 전통 요소를 보존하면서도 점진적으로 현대적 디자인을 도입하였다. 예컨대 긴 치마의 길이를 발목 위로 단축하되 무릎을 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계몽기 여성 복식의 변화는 봉건적 미학에서 현대 미학으로의 이행기를 보여준다. 이 시기의 복식은 여전히 전통적인 장식 양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형태 면에서는 점차 간결해지고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民国 초기의 여성 복식은 과거의 ‘은폐의 미’에서 ‘자연미’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신체에 대한 구속을 점차 약화시키고 보다 가볍고 활동적인 형태를 드러냈다. 이 과정은 여성 이미지를 단순히 ‘도덕적 상징’으로 여겼던 기존 사회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 개성과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계몽기 여성 복식의 변화는 전통성, 진보성 및 양자의 공존적인 특성을 함께 보여준다. 전통성 측면에서 여성 복식은 여전히 봉건 사회의 넉넉한 재단, 어두운 색조, 신체를 가리는 설계를 이어받아 유교 도덕 관념에 부합하였다. 진보성 측면에서는 여성 복식이 간결함, 실용성, 개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색채가 더 다양해지고 복식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복식 변화는 단순히 여성 신체 해방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의 중요한 표지로 작용하며 중국 여성이 봉건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과정을 증명한다.

(2) 변화성과 다양성을 가미한 성장기의 복식

성장기(1920~30년대)는 중국 여성 복식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여성 해방운동의 전개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면서 여성들은

점차 교육, 직장, 사교 등 공적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복식 또한 변화하여 다양성과 변화성 표현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변화는 복식의 스타일, 재단, 색채, 장식 등 외형적 측면뿐 아니라 미학적 관념의 전환과 사회적 여성 의식의 조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의 복식은 더 이상 단순히 사회 규범의 매개가 아닌, 여성의 정체성 인식과 개성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① 다양성

성장기 여성들은 더 이상 단일한 복식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복식을 선택하면서 다원적인 복식 형태를 형성하였다.¹⁷²⁾ 이 시기 개량 치파오가 점차 보급되며 가장 대표적인 여성복이 되었다. 앞선 시기의 비교적 험렁한 스타일에 비해, 성장기의 치파오는 신체에 밀착된 재단과 정교한 재봉으로 여성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강조하였다.¹⁷³⁾ 이러한 변화는 서양의 입체 재단 기술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이미지에 대한 사회의 현대적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복식은 점차 착용 상황에 따라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들은 다양한 장소에 맞추어 복식 스타일을 조절하기 시작하였다. 일상생활에서는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치파오는 일정한 여유 있는 실루엣을 유지하였고 사교적 상황에서는 민소매, 허리라인 강조, 높은 트임 등의 디자인이 사용되어 고급 사교 자리에서 인기를 끌었다. 직장 환경에서는 일부 직업 여성이 서양식 재킷, 허리선이 강조된 외투 등의 더욱 간결하고 단정한 복식을 선택하였으며 이러한 복식은 사회적 예의에 부합하는 동시에 여성의 직업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복식 스타일의 다양성은 여성들이 더 이상 하나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다양화된 정체성에 따라 복식을 조정하게 하였으며 복식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의 직접적

172) 趙燕(2013). 民國時期女性服飾變遷特點探析. 絲綢之路, (4), p.52.

173) 吳小兵(2009). 民國時期旗袍的改良與發展. 遼東學院學報 社會科學版, 11(4), p.96.

인 표현이 되었다.

복식의 디테일 디자인 또한 다양성 특색을 띠게 되었으며 입깃, 사선 여밈, 트임 등의 요소가 활용되어 복식 스타일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는 여성들이 개성미를 추구했음을 나타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성 미의식 변화도 반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은 착용 방식에서도 더 큰 자율성을 획득하여, 더 이상 전통 복식 규범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스타일링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진보적 여성들은 단발머리, 민소매 치파오, 바지 등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며 더욱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식 재단의 변화는 여성 이미지를 더욱 우아하고 현대적으로 만들었으며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흐름은 여성 주체 의식의 각성을 상징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사회가 정의한 여성상을 수용하지 않고 복식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② 변화성

여성 복식은 색채 활용과 장식 디자인 측면에서 뚜렷한 변화성을 나타냈다. 전통 복식이 주로 감청, 진홍, 흑색 등 차분한 색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분홍, 파랑, 초록, 노랑 등 밝은 색상이 점차 여성들의 선호를 얻으며 복식의 시각적 표현력을 높였다. 동시에 장식 스타일도 복잡한 양식에서 간결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과도한 자수나 테두리 장식 대신, 기하학적 문양, 간결한 꽃무늬,¹⁷⁴⁾ 의복의 색채와 장식의 다양성은 전체 복식을 더욱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식의 색채 및 장식 변화는 여성 이미지의 입체감과 시각적 미감을 향상시켰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개성화된 복식 표현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던 사회 규범을 돌파하여, 여성이 복식을 통해 자아의 스타일과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게 되

174) 張萬君(2015). 淺談中國旗袍的樣式. 文藝生活 下旬刊, (4), p.137.

였음을 의미한다.

성장기의 여성 복식 변화는 다양성과 변화성 표현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여성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산업 발전과 문화 확산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은 결과이다. 복식의 스타일, 재단, 색채, 장식에서 다양화 경향에 이르기까지, 여성 복식은 더 이상 단순한 사회 규범의 상징이 아니라, 개성과 정체성, 사상 표현의 매개체가 되었다. 여성은 복식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심미성 창조자가 되었으며 복식은 여성의 사상, 사회적 역할 변화, 개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3) 간결성과 실용성을 반영한 절정기의 복식

민국시기 여성 복식은 1930~1940년間に 절정기에 접어들며 복식 스타일의 변화는 단순한 유행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성 사회적 지위 변화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여성해방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여성은 사회적 역할의 독립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복식에서도 번잡한 장식을 벗어나 현대 생활의 요구에 부합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복식의 간결화는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이는 단지 현대적 미학 개념의 전환일 뿐 아니라 여성 자아 정체성 인식의 강화이기도 하다.

① 간결성

이 시기 치파오 디자인은 극단적으로 간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20대 치파오에 비해, 193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의 치파오는 스타일상 더 몸에 밀착되었고 장식은 간소화되었으며 전체적인 선은 더 부드럽고 유연해졌다. 복잡한 자수, 트리밍, 전통적인 매듭 단추 등 장식 요소는 점차 사라지고 복잡한 무늬 대신 단색 또는 간결한 기하학 무늬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디자

인 스타일은 복식의 실용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 여성의 미적 요구에도 부합하였다.¹⁷⁵⁾

간결한 스타일의 형성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직업 여성이 점차 증가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외관의 복식에 만족하지 않고 직장과 일상생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의복을 선호하게 되었다. 1936년 『량유(良友)』 화보의 한 패션 기사에서는 “오늘날의 직업 여성은 치장을 즐기기보다는 복장의 몸에 맞음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지나치게 화려하면 가볍게 보인다”고 언급하였다.¹⁷⁶⁾ 이 관점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 복식의 심미적 경향이 복잡하고 화려한 양식에서 간결하고 우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치파오의 디자인 변화는 단지 서양의 모더니즘 디자인 이념을 수용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여성의 주체 의식이 강화된 표현이기도 하다. 치파오는 ‘국복’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였으며 점차 도시 여성의 일상 복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여성의 자아 인식을 반영하며 더 이상 전통적으로 수동적으로 사회 규범을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미지를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독립적인 주체임을 보여준다.

② 실용성

이 시기 복식의 실용성은 무시할 수 없는 특징으로, 주로 기능적 디자인의 최적화 및 소재의 개선에서 나타난다.

우선, 의복의 기능성이 강화되면서 복식은 점차 간편하고 편안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치파오는 여성의 신체에 더욱 밀착된 재단을 통해 보행과 활동 시의 편의성을 높였다. 1930년대의 치파오는 대체로 H자형 또는 X자형 재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920년대의 다소 느슨한 A자형 디자인과 비교했을

175) 劉濤(2014). 民國時期旗袍的創新與傳播. 遼寧絲綢, (03), p.20.

176) 水果(2011). 花樣旗袍. 現代青年, (3), p.44 .

때 허리선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정한 여유감을 유지하여 착용 시의 편안함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¹⁷⁷⁾ 또한, 옷자락 길이는 일반적으로 종아리 중간까지로 짧아졌으며 소매 형태 역시 초기의 긴 소매나 넓은 소매에서 팔에 밀착되는 7부 소매 또는 반소매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 생활의 리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자신감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둘째, 소재 선택이 더욱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전통적인 견사 치파오 역시 이 시기에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면직물, 포초, 얇은 명주 등 더 가볍고 편안하며 관리가 용이한 소재가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일상복으로 착용되는 치파오에는 통기성이 뛰어나고 땀 흡수력이 우수한 소재가 대거 채택되었다. 이러한 소재의 변화는 의복의 비용을 낮추어 대중화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상 활동에 대한 편의성 요구에도 부합하였다. 『신보(申報)』는 1938년 “도시 여성의 신식 복장”에 관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면직물 치파오는 오늘날 일상복으로 가장 선호되는 선택이며 내구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용이하여, 신시대 여성에게 이상적인 선택이다.”¹⁷⁸⁾ 이는 여성의 복식 선택이 과시적 소비에서 기능적 소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치파오는 선의 감각을 강조하고 색채 조화가 보다 조화롭게 구성되어 과도한 장식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의복 전체에 현대적인 감각을 부여하였다. 현대 미학에서는 복식의 아름다움이 외형적인 장식성뿐만 아니라 구조의 합리성과 착용자의 기품을 드러내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는 치파오는 유려하고 신체에 밀착된 간결한 선을 통해 여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며 시대적 분위기에 부합하는 현대 도시 여성의 미감을 표현하였다.

177) 於振華(2009). 民國旗袍. 東華大學. 博士學位論文. p.47.

178) 翟興娥(2009). 簡析 1911-1935 年申報女性服飾的傳播. 新聞界, (3), p.125.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복식의 간결성과 실용성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복식은 더 이상 남성의 미적 기준에 수동적으로 부응하는 도구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게 되었다. 의복의 기능성이 강화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도 연결되며 이들은 사회적 예의를 갖추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장을 필요로 하였다. 간결하고 실용적인 치파오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복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복식의 실용성은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독립성을 반영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민국시기 여성들은 점차 가정의 부속적 역할에서 벗어나 직장에 진출하고 사교 활동에 참여하며 나아가 정치 및 문화적 사안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복식의 간소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유행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현상이었다. 복식은 더 이상 신분을 과시하는 상징이 아니라, 개인의 스타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개별 가치관을 드러내는 표현 수단으로 전환되었다.

간결성과 실용성이 강화되면서 민국시기 여성 복식은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 중심의 단계에서 점차 현대적 미학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단계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복식사적 차원의 혁신을 넘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개인의식의 각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복식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복식 문화의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복식의 간결화는 여성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중시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복식의 실용화는 사회적 역할 속에서의 독립성과 능동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간결성과 실용성은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여성 주체성의 각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여

성 복식의 발전과 사회적 성별 인식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표 5> 민국시기의 중국 여성해방운동이 투영된 신여성 복식

| 단계 | 복식 변천 | 복식 특성 |
|-----|--|---------------|
| 계몽기 | 전통과 개량이 병존하며 장삼·넓은 소매 등 가림성 디자인을 유지하는 동시에 간결하고 실용적인 요소를 도입함 | 전통성과 진보성이 공존함 |
| 성장기 | 재단이 몸에 맞고 형태가 다양하며 개성과 상황의 차이를 강조하고 색상이 밝고 화려함 | 변화성과 다양성을 가미함 |
| 절정기 | 극도로 미니멀한 디자인 스타일로 복잡한 장식을 제거하며 H자형 또는 X자형 재단을 통해 선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원단은 경량화되고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감 | 간결성과 실용성을 반영함 |

3. 사례조사 및 분석 단계

중국 여성 복식이 전통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베이징, 우한, 상하이, 홍콩 등 네 지역의 주요 박물관을 방문하여 실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청말부터 민국 중·후기까지의 여성 복식 샘플을 중심으로 이미지 자료 수집과 실물 관찰을 병행하였다.

2024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을 방문하여 청말에서 민국 초기 사이의 여성 예복 및 개량 장삼 등 과도기 복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전통과 근대 복식 양식이 교차하는 이행기의 특징을 반영한 복식 실물을 관찰하고 총 39장의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이어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홍콩 역사박물관을 찾아 민국 후기(1930년대 말기부터 1940년대까

지)에 제작된 치파오를 중심으로 한 소장 복식을 조사하였고, 이는 치파오 양식이 정형화되고 여성 신체 미학이 강조된 시기의 특징을 반영하며, 총 24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024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우한 박물관에서 5·4 운동 및 여성의 직업화 과정(약 1919년~1930년대 초)과 관련된 복식 샘플을 수집하였으며, 개량 치파오, 작업복, 직업 유니폼 등을 포함하여 여성 사회 역할 확장의 초기 단계를 반영하는 복식 유형을 조사하였고, 총 17장의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상하이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20세기 1920~30년대 민국 중기 도시 여성의 패션 복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개량 치파오, 서양식 여성복 및 중서 융합 복식을 포함하여 ‘신여성’ 이미지의 성숙기를 대표하는 복식 특징을 확인하고, 총 47장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방문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박물관 자료 수집 현황 및 참고 자료

| 장소 | 일시 | 사진 수 | 시기 |
|-------------|--------------------|------|------------|
|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 2024년 7월10일~12일 | 39장 | 청말~민국 초기 |
| 홍콩 역사박물관 | 2024년 8월14일~16일 | 24장 | 민국 후기 |
| 우한 박물관 | 2024년 9월 5일~7일 | 17장 | 민국 전기 및 중기 |
| 상하이 역사박물관 | 2024년 10월 1일~3일 | 46장 | 민국 중기 |

1) 중국 박물관 현장의 사례조사

중국 박물관 체계에서 민국 시기 여성 복식의 수장 작업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가급 및 성급 주요 박물관을 중심으로 실물 보존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소장품은 주로 중국국가박물관, 난징박물관, 상하이

역사박물관, 텐진박물관, 광둥성박물관, 쑤저우박물관, 베이징고궁박물관, 홍콩 역사박물관, 우한박물관, 베이징민족복식박물관 등 대형 종합 또는 지역성 문화재 박물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박물관이 소장한 민국 시기 복식은 대부분 20년대 초부터 40년대까지의 실물 원본으로, 청말에서 현대 사회 초기에 이르는 복식 유형을 포괄하고 있다.

현존하는 소장품 중에서 치과오가 가장 많은 수량과 가장 완전한 보존 상태를 가진 품목이다. 난징박물관에는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비단 자수 치과오 20여 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일부 복식에는 실물 출처, 착용자 신분, 착용 장소 등의 상세한 기록도 함께 보존되어 있다. 상하이역사박물관은 민국 시기 여성의 사교용 예복, 개량 중국복, 서양식 정장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전시 배경 설명을 위해 패널, 문헌 복사본 등의 방식으로 복식을 보조 전시하고 있다.

복식 본체 외에도 일부 박물관은 복식과 관련된 액세서리류 유물도 함께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자 장식, 장갑, 신발, 장신구, 핸드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속품들은 민국 시기 여성 복식 문화를 완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일부 소장품에는 당시 의상점의 맞춤 제작 견본, 광고 책자, 패션 잡지 원본 등의 보조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민국 시기 도시 여성의 소비 형태와 복식 전파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민국 시기 교복, 직업 유니폼 등 대표적인 제도화 복식도 일부 소장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텐진박물관은 여성 사범학교 교복, 간호사 복장, 우편 여성 노동자 유니폼 등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여성이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 진출한 이후의 복식 형태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일부 박물관은 온라인 소장품 검색 시스템과 가상 전시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국가박물관, 중국실크박물관 등은 공식 홈페이지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민국 시기 복식의 고화질 이미지와 기본 소개를 제공함

으로써 연구자들이 열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각지의 문화재 박물관 기관은 일정 수량의 민국 시기 여성 복식 실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치파오, 양장, 유니폼, 교복, 솔, 액세서리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고 있어 민국 시기 신여성의 이미지와 복식 변화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민국 시기 신여성 복식을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이 의존하는 실물 자료의 출처는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 범위의 복식 소장 현황을 고찰한 바탕 위에, 지역 분포, 역사문화적 배경, 여성해방운동의 활발한 정도, 국제적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베이징민족복식박물관, 상하이박물관, 우한박물관, 홍콩역사박물관 등 네 개의 대표적인 기관을 복식 분석 및 디지털 모델링의 핵심 참고 자료 출처로 최종 선정하였다.

베이징민족복식박물관은 중국에서 전문성이 매우 높은 복식 전문 박물관으로, 소장 체계는 중국 각 민족의 전통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주요 복식 양식을 포괄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근현대 여성 복식의 보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장품에는 청말에서 민국 초기에 이르는 여성 복식 실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여성들이 봉건 전통 예교로부터 해방되어 점차 공적 생활로 나아가는 복식 전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복식 문화 연구에 집중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민족복식박물관은 체계적인 분류 방식과 전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소재, 공예, 기능에 따른 분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점차 구축해 나가고 있어, 이후의 이미지 수집 및 복식 구조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상하이는 근대 중국 신여성 운동의 발원지 중 하나로, 근대 여성 패션과 해방 운동이 교차한 장소이며, 20세기 초부터 수많은 여성 교육 기관, 언론 매체, 직업 여성 집단이 등장하였다. 상하이역사박물관이 소장한 민국 시기 여성

복식은 치파오, 서양복, 직업복, 교복 등 여러 유형을 포괄하고 있으며, 도시 중산층 여성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중 일부 복식은 민국 시기 진보적인 여학생, 직업 여성, 예술계 여성 대표 인사들에게서 유래하였으며, 신여성 해방 담론의 역사적 이미지와 높은 일치성을 보여준다.

우한은 신해혁명의 발발지이자 민국 시기 여성들이 혁명과 사회 건설에 참여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이다. 우한박물관은 지역 교육 기관과 여성 단체에서 유래한 민국 시기 복식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며, 여성 중학교 교복, 아동 여아복 등은 여성이 가정에서 공적 공간으로 나아간 역사적 발자취를 보여준다. 중부 내륙 지역의 여성해방운동은 연해 도시만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가운데 복식 변화의 궤적을 드러내며 지역성과 시대성을 동시에 지닌 대표적 의미를 지닌다.

홍콩은 중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민국 시기부터 광저우, 상하이 등지와 긴밀한 문화 및 패션 교류를 유지해왔다. 홍콩역사박물관은 민국 시기 홍콩 여성들이 착용한 치파오, 서양식 예복, 현대 교복 등의 대표적인 복식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간 협력을 통해 광저우 및 화교 여성 커뮤니티에서 기증한 일부 복식 유물도 확보하였다. 이러한 소장품들은 국제 교류와 근대성 구축 과정에서 여성 복식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홍콩은 중국 근대 복식 문화와 여성 이미지를 해외에 전파하는 데 있어 교량이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 네 개 박물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역사적 깊이, 지리적 범위,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갖춘 민국 시기 여성 복식 실물 샘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신여성 복식의 구성 논리”에 대한 탐구에 견고한 물질적 기반과 시각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신여성 복식의 사례 및 선정

본 단계의 복식 이미지 수집은 명확한 출처와 시대 및 복식 명칭 등 기본 정보를 구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民国 시기 중상류층 여성의 일상복, 예복, 직업 유니폼, 학생 교복 등을 중심으로 ‘신여성’ 이미지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하는 복식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수집된 이미지는 적절한 해상도를 갖추어 후속 3D CLO 모델링 및 시각적 스타일 분석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수집 작업의 주요 목적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의 원시 샘플 풀을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는 향후 이미지 선별, 복식 양식의 시대적 구분, 모델링 도식 작성 등 일련의 분석 절차를 위한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아울러, 중국 여성 해방운동의 각 발전 단계가 여성 복식 양상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조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계몽기, 성장기, 절정기라는 세 역사적 국면을 중심으로 선정된 이미지 속 대표 복식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로 사진을 번호에 따라 배열하여 분류하였으며, 해당 영상 결과물의 참고 자료는 <표7>에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기 복식의 스타일 및 상징적 의미 변화를 고찰하고, ‘복식-신체-사회’ 간 상호작용 구조와 그 시각적 표현 논리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둔다.

<표 7> 시기별로 자료 분류

| 시기 | 사진 수 | 번호 | 참고 자료 | 표현 특성 | 선정 번호 | 동영상 자료 |
|-----|------|--------|--------|-----------|--------------------|--------|
| 계몽기 | 31장 | 1~31 | <표 8> | 전통성 | 10, 11, 12, 13 | <표 11> |
| | | | | 전통성 및 진보성 | 22, 23, 24, 26 | <표 12> |
| | | | | 진보성 | 21, 17, 18, 25 | <표 13> |
| 성장기 | 43장 | 32~75 | <표 9> | 변화성 및 다양성 | 40, 41, 42, 43 | <표 14> |
| | | | | | 44, 59, 63, 68 | <표 15> |
| | | | | | 69, 70, 72, 75 | <표 16> |
| 절정기 | 52장 | 76~126 | <표 10> | 간결성 및 실용성 | 79, 80, 81, 83 | <표 17> |
| | | | | | 91, 99, 100, 101, | <표 18> |
| | | | | | 105, 106, 113, 126 | <표 19> |

(1) 전통성과 진보성을 활용한 계몽기 복식

계몽기 “신여성” 복식이 전통성과 진보성 사이의 과도기적 특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자는 앞서 제시한 126장의 이미지 자료 중에서 대표적인 복식 이미지 12장을 추가로 선별하여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단계의 디지털 모델링 및 스타일 분석의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다. 이 중 10번, 11번, 12번, 13번은 전통성을 대표하는 복식이며, 22번, 23번, 24번, 26번은 전통성과 진보성이 공존하는 복식을, 번호 21번, 17번, 18번 25번은 진보성을 대표하는 복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복식 양식은 주로 장오와 마면치마, 대금 상의와 바지, 개량형 치파오 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대 예복 제도에서 민국 시기의 실용적인 일상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이미지 속 초기 복식은 입깃, 옷고름, 대금, 와이드 소매 등 전통 한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색채와 문양 역시 중국 전통의 상징성이 뚜렷하다. 반면 후기 복식은 소재가 가볍고 재단이 간결하며, 하단 기장이 짧아지는 등 현대적인 디자인 특징을 나타내며, 여성들이 활동의 편의성과 개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진보적 경향을 드러낸다.

10번은 청말 민초의 대표적인 여성 예복으로, 대금 마괘와 마면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청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복식은 대칭 구성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운룡문과 해수강애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색조는 은회색과 분홍색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검정색 소매 부분이 층차 있는 대비를 형성한다.

11번은 청말 민초 만주족 여성의 예복으로, 사선깃 와이드 소매 곱과 마면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궁중 예복 제도를 계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칭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해수강애문, 금룡, 상운 등 길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주된 색상은 연보라와 짙은 남색이며, 검정 테두리와 금색·남색의 대비 색조가 조화를 이룬다.

12번은 청말 민초 만주족 여성의 평상복으로, 상의는 검정 깃이 배색된 미

색 사선깃 장산이며, 하의는 청록색 자수 마면치마다. 치마에는 나비와 감지 화훼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이 복장은 전통 한족 복식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색상과 조합이 한층 간소화되고, 구조적으로 실용성을 갖추어 전통적 양식과 일상복의 결합을 보여준다.

13번은 청말 민초 여성의 일상 복식으로, 우임 피파깃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주색은 연청색이고 보라색 직금과 금색 테두리 장식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 소매는 넓게 디자인되어 활동에 편리하다. 하의는 어두운색 롱스커트를 매치하였으며, 전체적인 스타일은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전통 예제의 영향 아래 초기 근대화 착장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22번은 민초 여성의 일상 오장으로, 분홍색 단면에 화조와 나비 자수가 놓여 있으며, 가장자리는 짙은색 실크 테두리로 장식되어 있다. 상의 길이는 짧아지고 소매 끝은 좁아졌으며, 하의는 전통 치마 대신 일자형 바지를 매치하였다. 이는 복식이 장식성에서 실용성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성의 착장 인식이 점차 현대화되어 가는 모습을 반영한다.

23번은 여성해방운동 초기의 복식으로, 남성복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은 스타일이다. 외투로는 짧은 사선깃 상의를 착용하고, 그 안에는 일자형 장산을 받쳐 입었으며, 하의는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색상은 자색이며, 감지 화훼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전통 예제로부터 벗어나 복식의 자율성을 향해 나아가려는 여성들의 초기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24번은 민초 여성의 복식으로, 안에는 연청색 입깃 장포를 입고, 겉에는 연자색 민소매 마감을 덧입은 구성으로 형태가 간결하고 단정하다. 전체 디자인은 장식이 거의 없으며, ‘여성이 남성복을 본받는다’는 유행의 영향을 받아, 신식 생활 관념 아래의 실용적 미감과 신여성 이미지를 드러낸다.

26번은 민초 여성의 일상 복식으로, 상의는 감청색 대금 장산에 선명한 노

란색 테두리 장식이 더해졌고, 하의는 어두운색 롱스커트를 매치하였다. 상의는 넉넉한 재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색상은 단순하고 절제되어 있어 청말 복식의 전통적인 색채 조합을 유지하면서도 전통 양식에서 현대화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21번은 민국 초 여성 학생복으로, 상의는 연청색 사선깃 단산이며, 연청색 직금 소재에 섬세한 직조 문양과 단 테두리 장식이 더해져 있다. 하의는 검정색 주름치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단정한 실루엣으로 활동성을 강조한다. 이 복식은 중식 구조와 서양식 실용 개념을 겸비하고 있어, 여성이 전통적 구속에서 벗어나 현대 교육 공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복식 표현이다.

17번은 민국 초 여성의 일상 장산으로, 우입 사선깃과 입깃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연한 살구색 단 소재에 촘촘한 암문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 실루엣은 여유 있고 수직적으로 떨어지며, 구조는 A라인 형태를 이루고 있어 신체 곡선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는 민초 시기 여전히 전통 예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여성의 미적 인식을 반영한다.

18번은 민국 초 여성의 치파오로, 입깃 우입 구조이며, 연한 노란색 직금 단 몸판에 기하학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소매는 회청색 원단이 배색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간소화된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성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있다.

25번은 민국 초 여성의 사선깃 치파오로, 기장은 중간 정도이고 몸에 잘 맞는 핏이며, 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온다. 이는 더 이상 청대 예복처럼 넉넉하고 복잡한 양식이 아니라, 재단이 간결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형태로, 여성이 점차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려는 요구를 반영한다.

<표 8> 전통성과 진보성을 활용한 계몽기 복식

| | | | | | | | |
|---|---|--|---|---|---|---|---|
|  |  |  |  |  |  |  |  |
| 1. 진한 모청색 타사실 채화 소매 여성 홀저고리 | 2. 청색 자카드 실크 여의 반장 무늬 운견 장식의 대립 여과 | 3. 베이지색 반장 무늬 자카드 실크 여성 겹저고리 | 4. 회색 기하문 자카드 실크 원형 장포 | 5. 연청색 은은한 무늬사 퀴팅 자수 화훼문 여성 솜장포 | 6. 보라빛 벨벳 일음매화문 테두리 장식 장포 | 7. 하늘색 금직 사선깃 단의 상의와 검은색 주름치마 착용 | 8. 보라빛 격자 개화문 자카드 단 섹장식 여성용 긴 저고리 |
|  |  |  |  |  |  |  |  |
| 9. 철회색 장단 선향 문양 감장 원보깃 긴소매 치파오 | 10. 흑색 단 봉황·모란 화훼·나비문 테두리 장식 여성용 여과, 연자색 화훼문 주름치마 그림 | 11. 자색 음문단 비파깃 마감 | 12. 흑백 배색 사선깃 장삼과 비취색 나비 자수 치마 | 13. 연청색 단면 자수 배색 비파깃 여성 저고리 | 14. 골금색 단면 사선깃 여성 저고리와 마면치마 세트 | 15. 먹색 난형 음문 사선깃 여성 저고리와 마면치마 세트 | 16. 갈색 장미 음문 사선깃 여성 저고리와 흑색 마면치마 세트 |
|  |  |  |  |  |  |  |  |
| 17. 살구노란색 단 바탕 물결 가장자리 도류 대소매 장삼 | 18. 민초 연황색 문단 배색 소매 치파오 | 19. 호청색 단면 자수 마면치마 세트 | 20. 현문초 장삼과 단면 치마 바지 세트 | 21. 자홍색 단 바탕 자수 사선깃 치파오 | 22. 분홍색 단 바탕 자수 화조문 사선깃 여성 저고리 | 23. 자색 권지련문 입깃 장삼 세트 | 24. 청색 입깃 장포와 연자주색 민소매 마감 |
|  |  |  |  |  |  |  | |
| 25. 자홍색 단 바탕 자수 사선깃 치파오 | 26. 하늘색 직금 사선깃 짧은 저고리와 검정색 주름치마 세트 | 27. 항지영 수채화 월패 광고화 | 28. 백상 수채화 월패 광고화 《추수이인》 | 29. 상설지소 투피스 | 30. 살구노란색 실크 광소매 상의와 흑색 자수 롱스커트 세트 | 31. 윤직 청문 장치파오 | |

(2) 다양성과 변화성을 표현을 반영한 성장기 복식

수집된 126장의 이미지 자료 중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민국 중기의 스타일적 특징을 보여주는 복식 이미지 12장을 선별하여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단계의 모델링 및 스타일 해석의 주요 참고 자료로 삼았다. 이들 복식은 신식 여학생 제복, 서양식 외투, 다양한 개량 치파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의 복식 선택에서 개별적 자의식과 개성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미지 속 여성 의복은 스타일 면에서 더욱 다양해졌으며, 치파오의 구조는 신체에 더욱 밀착되고, 디테일에서는 프릴, 프린트, 자수 등 다양한 장식 요소가 가미되었고, 소재 역시 투명한 레이스, 벨벳 플로킹 원단 등 가볍고 유행을 반영한 재질로 변화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문화의 다양화, 동서양 문화의 융합, 여성의 자아 정체성 의식이 고조된 양상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복식은 더 이상 전통적 예제에 얽매이지 않고, 정체성, 취향, 개성을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40번은 민국 중기 여학생 제복으로, 안에는 장소매 셔츠를 착용하고 겉에는 민소매 조끼형 원피스가 덧입혀져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고 구조는 단순하며 활동하기에 편리하다. 색상 조합은 주로 어두운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스타일은 소박하고 실용적이다. 이러한 복장 양식의 등장은 신여성이 점차 전통 예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교육과 사회생활의 무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민국 여성해방운동이 사상 계몽에서 제도적 실천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

41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겨울용 외투로, 허리를 잡아주는 긴 기장의 모직 코트 구조에 어두운색 털 칼라와 소매가 배색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단정하고 간결하다. 벨트를 이용해 허리를 조여 신체 라인을 강조하였으며, 민국 시기 여성해방운동이 점차 고조되고 복식 문화가 다양화되는 배경 속에서

이러한 복식 스타일은 여성의 정체성 인식, 신체 표현, 사회적 역할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42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예복으로, 허리를 잡아주고 아래로 퍼지는 스커트 디자인에 서양식 실루엣과 중식 입깃·사선깃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 민트그린 단면 위에 스팅글, 꽃 매듭, 술 장식이 더해져 있으며, 주로 사교적 장소에서 착용되었다. 이 복식은 여성이 공적 공간에 진출하고 근대적 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표현이다.

43번은 민국 중기 민소매 슬림핏 치파오로, 입깃과 몸에 밀착된 재단을 통해 여성의 신체 라인을 드러낸다. 연분홍색 바탕에 나비 프린트가 더해져 색감이 경쾌하고 스타일이 발랄하며, 이는 여성이 전통적 구속에서 벗어나 패션과 개성 표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44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치파오로, 자색 면직 원단에 노란색 국화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X자형 재단이 신체에 밀착된다. 반소매에 입깃 사선깃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느껴지며, 이는 여성들이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자아 표현과 정체성 인식을 추구하는 욕망을 반영한다.

59번은 민국 중기 슬림핏 반소매 치파오로, 신체 곡선을 따라 밀착되며 높게 잡은 허리선이 체형을 강조한다. 입깃 사선깃 구조에 반투명 레이스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서양의 현대적 재단 방식과 동양의 치파오 형식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유형의 치파오는 신여성이 현대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주체적 현대 의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63번은 민국 중기 여름용 민소매 분홍색 치파오로, 몸에 밀착되는 재단과 수수한 스타일이 특징이며, 팔을 가려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하이넥 디자인은 치파오의 형식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여성 복식 미학의 자유화를 반영한다.

68번은 민국 중기 치파오로, 흰색 벨벳 원단에 화려한 플라워 프린트가 더해져 있으며, 전통적인 입깃 우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단은 몸에 밀착되어 여성의 곡선을 강조하며, 다채롭고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낸다. 반소매와 롱스커트의 대비가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여성의 개성 표현과 정체성의식 향상이 두드러진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

69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치파오로, 연한 미색 금조를 바탕으로 어골 형태의 스트라이프가 장식되어 있다. 입깃 반소매에 허리를 잡아주는 밀착된 재단이며, 치맛자락은 바깥으로 퍼지는 형태이다. 증식 재단과 서양식 플레어 스커트 디자인이 융합된 실루엣으로, 여성 복식이 슬림화되고 현대화되어 가는 경향을 반영한다.

70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겨울용 예복형 치파오로, 보라색 벨벳 소재에 흰색 퍼 테두리가 더해져 보온성과 장식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의복의 칼라 부분에는 체크무늬가 배색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은 여성이 미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려는 태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의식이 현대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72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착장으로, 홍백 사선무늬 치파오에 미색 반소매 트임 상의를 매치하여 곡선미와 단정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디자인은 서양식 문양 스타일을 흡수하였다. 이러한 조합은 현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착장 자율성과 개성 표현을 잘 보여준다.

75번은 민국 중기 여성의 대표적인 일상 착장으로, 안에는 노란 바탕의 대형 플라워 치파오를 입고, 겉에는 파랑·흰색 체크무늬 퍼프 소매의 서양식 재킷을 걸쳤다. 색상이 선명하고 스타일은 발랄하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중서양 스타일이 융합된 형태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로 나아가 공적 생활에 참여하려는 자아 표현 의식을 반영하며, 민국 여성 복식의 다양화와 개성화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표 9> 다양성과 변화성 표현을 반영한 성장기 복식

| | | | | | | | | |
|---|---|--|---|---|---|---|---|---|
|  |  |  |  |  |  |  |  |  |
| 32. 흑색 음문초 넓은 가 장자리 반소매 치파오 | 33. 주황색 자카드 실크 긴소매 겹치파오 | 34. 연분홍색 자카드 실크 레이스 장식 반소매 겹치파오 | 35. 검은 바탕 금사 자수 문양의 긴소매 솜안감 치파오 | 36. 군청색 자카드 무늬 류상초 소재의 긴소매 치파오 | 37. 금황색 번문 벨벳 레이스 테두리 반소매 치 파오 | 38. 흑색 차콜 레이스 반 소매 치파오 | 39. 홍색 바탕 금화 번문 벨벳 반소매 치파오 | 40. 민국 시기 여학생 베 스트형 원피스 제복 |
|  |  |  |  |  |  |  |  |  |
| 41. 민국 여성 칼라 있는 모직 외투 | 42. 민트그린 스팅글 장 식 허리라인 치파오 스 타일 원피스 | 43. 분홍색 바탕 프린트 팔자깃 민소매 홀치파오 | 44. 자색 바탕 금색 자수 모직 겹치파오 | 45. 흑색 단 백란 자수 중식 입깃 치파오 | 46. 자색 바탕 금문 장미 문 단면 치파오 | 47. 청색 바탕 백화 프린 트 면실크 치파오 | 48. 단채 단 바탕 권지 모란문 장치파오 | 49. 쪽빛 실크 바탕 권지 연꽃문 테두리 장포 |
|  |  |  |  |  |  |  |  |  |
| 50. 흑색 바탕 주황·백 대형 꽃무늬 단면 치파 오 | 51. 흑색 바탕 컬러 플라 워 단면 치파오 | 52. 금문 광택 반소매 치 파오 | 53. 취영 화우 치파오 | 54. 행영 금수 치파오 | 55. 춘등 유광 치파오 | 56. 상영 방승 단치파오 | 57. 양화 반단추 자수포 | 58. 취선사문 치파오 |
|  |  |  |  |  |  |  |  |  |
| 59. 백색 슬림핏 레이스 반소매 치파오 | 60. 녹색 바탕 자카드 꽃 장식 실크 도류 대소매 겹치파오 | 61. 청비 음문 사선깃 장 삼 | 62. 매영 자색 실크 대립 저고리와 치마 | 63. 분홍색 소사 민소매 치파오 | 64. 프린트 실크 반소매 홀치파오 | 65. 전체 자카드 단 무늬 민소매 홀치파오 | 66. 금사 자수 음문 장치 파오 | 67. 회녹색 테두리 장식 입깃 치파오 |
|  |  |  |  |  |  |  |  | |
| 68. 백색 벨벳 프린트 | 69. 연금색 어골문 반소 매 치파오 | 70. 청색 바탕 백색 테두 리 벨벳 거울용 치파오 | 71. 분홍색 화훼 자수 반 소매 치파오 | 72. 황색 반소매 상의와 스트라이프 치파오 세트 | 73. 상아백 연단 나비 자 수 반소매 치파오 | 74. 흑색 바탕 홍모란 단 면 사선깃 치파오 | 75. 황색 바탕 프린트 사 선무늬 치파오와 청백 체크 반소매 외투 세트 | |

(3) 절정기 복식

앞서 수집한 126장의 이미지 중에서 민국 후기를 대표하는 “신여성” 복식 스타일을 보여주는 12장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선별하여 <표 10>에서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단계의 모델링 및 스타일 분류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 시기의 복식 스타일은 점차 전통 장식 요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디자인이 간결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며, 재단의 정돈된 선과 착용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식은 허리를 약간 잡아주는 실루엣, 입깃과 중소매 또는 반소매 디자인이 많으며, 소재는 가볍고 편안한 것이 주를 이루고, 색채는 점차 차분하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사용된다. 일부 복식은 서양식 수트 구조나 작업복 요소를 결합하여, 여성의 직장 및 공적 공간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반영한다. 이미지 속 복식 형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함과 실용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민국 시기 “신여성”이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점차 자아 정체성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뚜렷한 시대적 특성을 지닌다.

79번은 민국 절정기 여성의 치파오로, 주황색 단면에 단수문이 직조되어 며, 우입 대깃과 도대소매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체 재단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루엣은 간결하다. 착용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며, 복식이 장식성에서 기능성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80번은 민국 후기의 일상 치파오로, 사선깃 우입 구조에 한쪽 옷고름이 달려 있으며, 파란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간결하고 수수한 인상을 준다. 재단은 허리를 약간 잡아주면서도 구속적인 구조를 제거하여 착용의 편리성과 신체의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들이 실용성과 자아 표현을 중시하게 된 변화를 반영한다.

81번은 민국 후기의 민소매 치파오로, 흑금 세로 스트라이프 단면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입깃 우입 구조에 직선적인 슬림핏 실루엣을 갖추고 있다. 전체

적인 형태는 간결하고 단정하며, 곡선 강조를 최소화하고 직선적 라인을 통해 실용성과 현대감을 추구하는 여성의 복식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83번은 민국 후기의 모직 치파오로, 베이지색이 차분한 인상을 주며, 입깃 사선깃 구조로 전통적인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재단은 여유롭고 곧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며, 반소매와 측면 트임 디자인은 활동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여성들이 출퇴근과 공적 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기능성을 중시하게 된 경향을 잘 보여준다.

91번은 민국 후기의 민소매 치파오로, 입깃과 몸에 밀착된 재단이 신체 곡선을 부각시키며, 노란색 마름모 문양이 간결하고 눈에 띈다. 소재는 가볍고 활동하기에 편리하여, 여성의 자신감 있는 표현과 복식의 실용화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99번은 민국 후기 여성의 치파오로, 분홍빛 오렌지색 사 소재에 몸에 밀착되는 재단이 적용되었으며, 간소화된 운문과 하이슬릿 디자인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가볍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도시 여성들이 자유로움, 편안함, 미적 감각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던 경향을 반영한다.

100번은 민국 후기의 파란색 벨벳 치파오로, 플로킹 압화 기법으로 꽃과 잎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입깃 우입 장소매 구조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간결하면서도 보온성이 강조되며, 실용성과 섬세함을 겸비한 복식이다. 이는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활발해진 민국 여성들이 자아 표현과 정체성 인식을 추구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작용하였다.

101번은 민국 후기의 민소매 하이슬릿 치파오로, 은회색 레이스 소재에 몸에 밀착되는 재단이 적용되었으며, 서양식 네크라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가볍고 자유로운 인상을 준다. 측면 트임은 무릎 위까지 올라가며, 이는 민국 후기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더욱 활발하고 자율적인 이미지로 변화해 간 모습을 반영한다.












105번은 민국 후기 여성의 투피스 세트로, 미색 자카드 소재에 입깃 상의와 몸에 잘 맞는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단정한 실루엣을 갖추고 있다. 중식 디테일과 서양식 재단이 융합된 이와 같은 세트복은 민국 후기 직장과 사교 등의 장소에서 널리 착용되었으며,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착장 형식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106번은 민국 후기 여성의 출퇴근용 복장으로, 빨간 체크무늬 치파오에 회색 트임 니트 가디건을 매치하였다. 구조는 간결하고 활동에 용이하며, 복식이 곡선 강조의 구속성에서 실용적이고 경량화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113번은 민국 후기 여성의 장소매 치파오로, 청라색 계열에 물방울 모양 문양이 조화를 이루며, 재단은 슬림핏으로 몸에 밀착된다. 세트 구성된 아우터는 디자인과 색상이 통일감을 이루며, 전반적으로 모던한 장식주의 스타일을 띠고 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간결하고 현대적이며, 실용성과 장식성이 융합된 특징을 잘 보여준다.

126번은 녹색 바탕의 별무늬 치파오로, 탄탄한 소재와 간결한 대칭 문양이 사용되었으며, 구조적으로는 하이넥 입깃과 사선깃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몸판은 약간 허리를 잡아주는 형태이지만 전체적으로 여유 있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민국 후기 여성 복식에서 실용성과 활동의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표 10> 간결성과 실용성을 반응한 절정기 복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연청색 연성 양단 자수 반소매 치파오 | 77. 연기색 자카드 순유 주단 테두리 긴소매 면 치파오 | 78. 짙은 갈색 자카드 견사 중간소매 치파오 | 79. 연노란색 방격권 초문 자카드 견사 측면 트임 입깃형 대소매 치파오 | 80. 파란색 세로줄무늬 사선 깃 치파오 | 81. 흑금색 줄무늬 단면 무소매 치파오 | 82. 베이지색 견단 붉은꽃 자수 직소매 치파오 | 83. 카멜색 모직 반소매 겹치파오 | 84. 녹색 바탕 화문라오 안감 벨벳 반소매 치파오 | 85. 유백색 자수 레이스 장식의 시스루 조지 샤 소재 민소매 단층 치파오 | 86. 미베이지색 미세한 결무늬 사선 깃 넓은 소매 치파오 |
|  |  |  |  |  |  |  |  |  |  |  |
| 87. 황갈색 바탕 마름모 무늬 사선 깃 치파오 | 88. 금사 수놓은 석류꽃무늬 사선 깃 치파오 | 89. 직조된 광택 격자 무늬 치파오 | 90. 자운 잠익 치파오 | 91. 노란색 마름모 무늬 무소매 치파오 | 92. 연분홍색 자카드 반소매 치파오 | 93. 자수 무늬 갈색 견면 겨울용 장삼 | 94. 사선 깃 자수 면사 장삼 | 95. 암적색 테두리 면직 장삼 | 96. 흑색 단 테두리 사선 깃 면 장삼 | 97. 갈색 바탕 작은꽃무늬 사선 깃 장삼 |
|  |  |  |  |  |  |  |  |  |  |  |
| 98. 황흑 격자무늬 사선 깃 면 장삼 | 99. 연분홍 오렌지색 운문 사 소재 밀착형 치파오 | 100. 파란색 플룩 벨벳 긴소매 치파오 | 101. 은회색 레이스 무소매 하이슬릿 치파오 | 102. 중식 단추 장식 치파오 세트복 | 103. 입깃형 나비 매듭 자수 투피스 | 104. 검정 바탕 컬러 도트 프린트 칼라 세트 치마 | 105. 베이지색 자카드 입깃형 세트 치마 | 106. 연분홍 보라색 격자무늬 사선 깃 치파오 및 회색 니트외투 | 107. 검정 무늬 붉은 바탕 반소매 치파오 | 108. 연녹색 사선결 단면 사선 깃 치파오 |
|  |  |  |  |  |  |  |  |  |  |  |
| 109. 미세한 결무늬 갈회색 사선 깃 테두리 장식 치파오 | 110. 회색 바탕 청색 테두리 사선 자수 반소매 치파오 | 111. 흰색 바탕 청색 격자무늬 단 자수 반소매 치파오 | 112. 베이지색 자수 민들레 문양 사선 깃 치파오 | 113. 청람색 물방울 무늬 긴소매 치파오 | 114. 검정 단 바탕 금색 원형 단화문 반소매 치파오 | 115. 카멜 그레이색 프린트 견사 일체형 민소매 치파오 | 116. 미금색 바탕 잔꽃 문양 직금 반소매 치파오 | 117. 아이스 블루색 단면 자수 치파오 및 레이스 숄 구성 | 118. 공작과 모란 자수 청색 단면 치파오 | 119. 검정 바탕 컬러 플라워 도트 스트라이프 배색 세트복 |
|  |  |  |  |  |  |  | | | | |
| 120. 금색 단면 자수 슬립핏 치파오 | 121. 진홍색 단 바탕 화훼 자수 반소매 치파오 | 122. 검정 벨벳 장미 테두리 장식 긴소매 치파오 | 123. 공작청색 모란 문양 단면 트임형 치파오 | 124. 취색 배경의 화려한 꽃무늬 치파오 | 125. 불꽃 꽃무늬 장식 치파오 | 126. 청색 바탕 별무늬 입깃형 장치파오 | | | | |

4. 디자인 및 3D 제작 단계

본 연구는 민국시기 여성 복식의 디지털 복원을 위해 3D CLO 모델링과 영상 제작 기술을 통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전체 복식 복원과 영상 연출을 위한 기술적 및 시각적 설계의 기본 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및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고 각 복식의 구조와 스타일을 분석하며 시기별로 재현할 대표 복식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전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3D CLO의 가상 패턴과 봉제 구조를 설계하고 계몽기, 성장기, 절정기의 복식 특성을 시각화할 수 있는 모델링 준비 단계를 마련한다. 또한, 패션쇼 영상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무대 구성, 모델 동작 콘티, 카메라 워킹의 방향성 등을 기획한다. 각 시기의 사회적·미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무대 연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제작 단계에서 조명, 공간, 음악, 영상 편집에 반영할 주요 연출 전략을 정리한다. 이처럼 디자인 준비 단계는 단순히 기술적 시뮬레이션에 앞서 연구의 전체 방향과 시각적 구현 목표를 명확히 하며 후속 단계의 모델링, 렌더링, 영상 제작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기능한다.

1) 복식 모델링 및 원단 시뮬레이션

본 연구는 3D CLO를 활용하여 복식 모델링 및 원단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 시기의 신여성 복식이 지닌 구조 및 소재 변화의 특징을 반영하여, 계몽기, 성장기, 절정기 세 단계에 따라 디지털 복식 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였다. 모델링 방식은 주로 사용자 정의 패턴 도식과 봉제 구조 설정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의상의 기본 실루엣, 패턴 치수 및 비례 관계를 분석한 후 모델링 과정에서 어깨선, 소매 형태, 깃 모양, 의복 길이 등 핵심 구조를 조정하여 민국시기 착용 특성과 신체 표현을 충실

히 반영하였다.

특히 계몽기 복식에서는 장얼과 마면치마, 맞깃 저고리 등과 같은 전통 의상의 복원도가 중요하였으며 맞깃, 넓은 소매, 옆트임 단추 등 중식 구조의 디테일을 정밀하게 재현하였다. 성장기 복식은 허리라인 강조, 입체적 재단, 영양식 요소의 혼합이 핵심이므로, 가슴 다투, 허리선, 어깨 구조의 표현력을 강화하였다. 절정기의 복식은 편안한 착용감을 중심으로 한 개량 치과오가 주를 이루며 몸에 밀착되면서도 유연한 곡선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모델링하여 실용성과 간결성이라는 시각적 특징을 부각시켰다.

원단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미지 자료 속 의상의 시각적 질감과 역사적 시기별 실제 원단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실크, 면마, 기능성 섬유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각각 설정하였다. 계몽기 복식은 주로 두껍고 무게감 있는 직물이나 광택감 있는 공단 실크가 사용되었기에, 시뮬레이션 시 광택도와 중량감을 높게 설정하여 전통적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성장기 복식에는 쉬폰, 면직물, 자카드 실크 등 중경량 소재가 대거 사용되며 여성의 신체 실루엣과 장식성을 부각하기 위해 원단의 드레이프성 및 표면 질감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절정기 복식의 경우, 면마 혼방, 기능성 섬유, 무광 실크 등의 소재가 활용되며 시뮬레이션 설정은 각이 잡히는 질감, 빠른 건조, 주름 방지 기능이 반영되어 여성의 일상 및 직장 생활 속 의복 기능성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였다. 원단의 무게, 두께, 신축성, 마찰력 등의 수치를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각 복식이 가상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처짐과 동적 반응을 구현할 수 있었으며 전체 디지털 모델링의 표현력과 사료 재현도를 높였다.

2) 아바타 설정 및 동작 디자인

가상 패션쇼 제작 과정에서 모델의 설정과 동작 디자인은 복식의 동적 표현을 구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인 디지털 모델을 채택하여,

민국시기 여성의 신체 비율과 분위기 특성을 실감나게 재현함으로써 복식과 인물 이미지 간의 역사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강화하였다. 동작 설정에서는 복식이 움직임 속에서 드러내는 구조적 특성과 소재의 질감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런웨이 워킹, 360도 회전 전시, 정지 포즈 전환 등 다양한 연출 방식을 설계하였다. 동영상 제작은 키프레임 기반의 사전 동작 설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모델의 보행이 자연스럽고 리듬감 있게 흐르도록 조절함으로써 복식의 움직임 속 밀착감과 세부 변화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복식의 디지털 복원에서 사실성을 크게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3) 가상 카메라 운용 디자인

가상 패션쇼 영상 제작에서 카메라 워킹 디자인은 복식의 세부 표현과 동적 질감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카메라 워킹 설계에 있어 다각도의 시각 전략을 적용하여 복식의 구조와 미감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였다. 정면 추적 카메라는 모델이 보행할 때 전체 실루엣을 포착하여 복식의 드레이프감과 전체적인 스타일을 강조하고 후면 추적 카메라는 모델의 보행 과정에서 등판 라인과 밑단의 동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의복의 전체 실루엣과 후면 디테일을 강조하였다. 부드러운 카메라 이동을 통해 소재가 몸의 흔들림에 따라 생성하는 자연스러운 주름과 입체적 재단 효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운용 방식은 가상 패션쇼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복식사 연구에 있어 보다 몰입감 있는 관찰 시점을 제공한다.

4) 무대 디자인

3D CLO 런웨이 영상 제작 과정에서 조명과 공간 설정은 단순한 시각 보조와 공간 구성의 기능을 넘어서 복식의 주제를 강조하고 시각적 리듬과 감성적 몰입을 유도하는 핵심 연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전체 연출의 일관된 스타일 유지와 복식 중심성의 강조하고 배경 요소의 시각적 간섭 최소화를 위

해 시기별 전시 모두에서 ‘단일 냉광 조명 + 미니멀 공간 + 흰색 런웨이’의 조합을 기본 구성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각 역사적 단계의 주제적 특성에 따라 조명의 강도와 방향, 런웨이의 구조, 배경 분위기 등을 섬세하게 조절함으로써 복식 스타일의 차별성과 시각적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 계몽기 무대 디자인

제1장 계몽기 패션쇼는 계몽기 복식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구조와 초기 개량 양식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런웨이 디자인은 문화적 근원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는 과도기의 복식 형태를 반영한다. 조명 디자인에서는 단일 냉광을 정면 상단에서 수직으로 투사하여 부드럽고 안정된 명암 대비를 형성함으로써 원단의 질감, 새틴 소재의 반사광, 재단 윤곽 등을 효과적으로 재현하였다. 동시에 지나치게 강한 하이라이트로 인해 복식 디테일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여, 역사적 분위기의 정적이고 절제된 감성을 유지하였다. 런웨이와 배경은 모두 반사 없는 흰색 소재를 사용하여 시각적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관람자의 시선을 복식 그 자체의 구조와 조형 변화 과정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환경은 ‘고요 속의 변혁’이라는 문화적 정서를 자아내며 전통의 제약 속에서 의식이 서서히 깨어나던 계몽기 여성의 내면적 긴장감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킨다.

(2) 성장기 무대 디자인

제2장 성장기 패션쇼는 성장기의 전통과 서구적 요소가 융합되는 전환기로서 스타일이 다채롭고 형태가 풍부한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성과 미학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런웨이의 조명은 여전히 단일 냉광을 기본으로 하되, 조도의 강도와 투사 각도를 조정하여 45도 측면 사선에서 비추는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명암과 질감 효과를 연출하고

복식의 실루엣 변화, 절개 디자인, 복잡한 자수와 소재 간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대 구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흰색 T자형 런웨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가장자리에 은은한 청회색 투사 효과를 더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연출은 도시 생활 속에서 점차 개성을 드러내고 사회적 발화를 시도하던 이 시기 여성의 시각적 태도를 반영하며 복식을 통한 자아 표현의 다양성과 시대성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한다.

(3) 절정기 무대 디자인

제3장 패션쇼는 복식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스타일로, 여성이 본격적으로 현대 사회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절정기의 복식의 특성을 표현한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복식이 지닌 간결함, 정제된 실루엣, 이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냉색 계열의 메인 조명을 유지하면서 조명 위치를 기존보다 다소 높이고 모델 전면 상단으로 길게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원단 전체에 균일한 밝기를 확보하고 그림자의 균형을 맞춰 재단 라인과 구조의 명료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무대 환경은 극도로 미니멀하게 구성되어 모든 장식 요소를 제거하고 순백의 배경과 직선형 T자형 런웨이만을 남김으로써 관객의 시선이 복식 그 자체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여성이 복잡한 문화적 혼란을 통과해 궁극적으로 ‘이성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시대적 전환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장의 복식 패션쇼는 통일된 공간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조명 각도, 투사 효과, 무대 시각 언어의 미세한 조정을 통해 민국시기 여성들이 각기 다른 사상 단계에서 보여준 미적 성향과 정체성 의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런 무대 디자인을 통해 복식 표현을 극대화한 본 연출은 3D CLO 모델링 영상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역사적 주제를 시각적 서사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5) 콘티 및 동영상 제작

(1) 계몽기: 전통성과 진보성

중국 민국시기의 계몽기에 접어들면서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면서 복식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번 패션쇼의 주제는 “계몽기: 전통성과 진보성”으로, 민국 초기에 여성복식이 전통에서 근대적 형태로 점차 전환되는 과정을 12벌의 연속적인 동적 시연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현하였다. <표 11>에서 나타나는 1~4번은 전통성을 표현하고 <표 12>에서 나타나는 5~8번은 전통성과 진보성의 공존을 거쳐 <표 13>에서 나타나는 9~12번은 진보성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을 따르며 이러한 복식 변화가 여성의 주체 의식이 점차 깨어나는 과정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전통성을 표현하는 1~4번 복식 전시 파트에서는 청말의 복식 구조, 문양, 미학을 보존한 대표적 양식을 선택하였다. 마면치마, 사선 여밈의 장삼 등이 그 예로, 주로 의례적 장소에서 착용되었으며 이는 당시 여성이 여전히 봉건적 예교 체계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의상의 전반적인 색채는 차분하고 구성은 대칭적이며 문양은 복잡하여 복식이 신분 정체성과 행동 규범을 구현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한다.

전통성과 진보성의 공존을 보여주는 5~8번의 의상은 구조적 변화와 착용 방식의 전환을 드러낸다. 일부 의상에서는 남성복화된 디자인이 나타나고 치마 대신 바지가 사용되며 색채 역시 한층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띤다. 이는 사회 변혁 초기 여성들이 복식 선택에 있어 보다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스타일은 여학생, 신식 가정의 주부, 지식 여성 등에게서 자주 나타났으며 복식이 보수와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전시된 진보성을 표현하는 9~12번 복식은 여학생복과 개량 치파

오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경향을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 복식들은 여전히 여유 있는 재단과 전통적인 구조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색채, 스타일링, 의복 길이 등의 세부 요소에서 한층 더 유연하고 단순화된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당시 교육을 받고 자립을 추구하던 여성들이 복식을 통해 자아 의식을 표현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복식 구조는 점차 간결해지고 색채는 이성적으로 조정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통 미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초기 근대 여성들이 복식을 통해 개성과 정체성을 탐색하려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번 패션쇼는 봉건적 예교의 구속이 점차 ‘이완’ 되어 가는 역사적 감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복식의 외형적 변화는 여성의 신체 의식, 사회적 정체성, 생활 방식의 점진적 돌파를 반영한다. 복식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착용되는 옷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아 인식을 전환해가는 하나의 매개체로 기능한다. 또한 3D CLO를 활용은 전통 복식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계몽기 여성 이미지의 변천에 대한 관객의 직관적 이해를 더욱 증진시킨다. 소재 시뮬레이션과 동적 효과 처리를 통해 의복의 드레이프감 문양의 리듬감, 착용 상태에서의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사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복식과 신체, 개인과 시대 간의 시각적 연관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일부 복식 조형의 재현 과정에서 박물관 소장 복식 이미지가 모델링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는 복식 양식의 역사적 정확성과 문화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디지털 복원을 통해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한층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 복식의 대중적 확산과 재인식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 패션쇼는 신여성이미지가 계몽기의 한 단면을 시각적으로 서사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D CLO 모델링 과정에 착수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박물관에서 수집한 이미지 자료에 대해 구조 분석과 시각적 해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이미지는 정면 시점만이 보존되어 있어 복식의 등판 구조, 안감 세부, 트임 형태 등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모델링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재현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당시 복식의 구조 논리와 현존 실물의 유사 모델을 바탕으로, 만청에서 민초에 이르는 복식 공예서적에서 제시된 재단 조각 정보를 참고하여 누락된 부위에 대해 합리적 추정과 구조 보완을 진행하였다.

특히 등판 모델링에 있어 연구는 ‘보수적 복원 + 구조 추론’ 원칙을 따랐다. 이미지 정보가 결여된 경우, 유사 복식의 등판 재단 방식과 착용 습관을 참고하여 대칭 또는 반대칭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역사 이미지에서 가상 모델링으로의 전환 작업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의 기술 과정에 그치지 않고, 복식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맥락의 복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융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표 11> 계몽기 복식 1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표 12> 계몽기 복식 2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표 13> 계몽기 복식 3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2) 성장기: 변화성과 다양성

중국 민국시기의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신여성들은 복식을 통해 다채로운 정체성과 미적 감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번 패션쇼는 “성장기: 변화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국 신여성의 다양한 추구를 시도하는 것을 복식으로 구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총 12벌의 연속적인 복식 시연을 통해 중식 기반의 전통적 형태에서 중서양 스타일이 혼합된 새로운 복식 형태로의 전환 과정을 담아내어 시대적 변화를 향한 여성의 능동적 대응을 시각화하였고 패션쇼는 <표 14>, <표 15>, <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복식 형태와 스타일이 훨씬 더 다채로워졌다. 청말의 느슨하고 부피가 큰 실루엣에서 벗어나 허리선을 살짝 강조한 디자인으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절개·재단의 변형 서양식 칼라와 짧은 재킷 형태 등이 함께 시도되었다. 이러한 복식의 다양화는 신여성이 전통과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스스로의 스타일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자각의 표현으로 읽힌다.

변화성 측면에서는 소재와 장식의 선택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기존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견직물과 망사 소재를 사용하고 여기에 정교한 자수와 화려한 직조무늬, 광택 소재 등의 장식을 더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풍부한 효과를 추구했다. 색채 역시 더욱 과감하고 선명해지면서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자기표현 욕구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새로운 여성상과 함께, 일상과 사회에서의 자기정체성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

성장기의 복식 변화는 여성 복식과 사회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해방운동은 여성의 사상적 각성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복장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복장은 더 이상 예교나 계층의 상징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여성이 내면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패션쇼는 3D CLO 모델링 과정에서 복식의 신체 밀착도, 색채 구성의 독창성, 디자인의 다양성 등 시각적 요소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여성들이 추구하던 ‘새로운 자아’의 이미지가 생동감 있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번 패션쇼는 단순히 민국 성장기 복식 양식의 동적 재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태도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여성이 더 이상 외부로부터 정의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복장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녀들은 전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도, 서구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하지도 않으며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서 점차 자율적이고 다양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성장기를 반영한 변화성과 다양성의 복식 모델링 과정에서 연구자는 서로 다른 신분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착용 양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성장기 복식 이미지 12장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여학생, 지식인 여성, 도시 직업 여성 등이 포함되며, 해당 이미지들은 대부분 단일 시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정면 위주의 구도가 많고 복식의 등판 구조나 동적인 상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3D CLO에서 복식의 전체 구조와 착용 상태를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 시기의 역사적 의복 실물 샘플과 구조 도판을 참고하고, 현대 복식 디자인의 구조 대칭 원리를 결합하여 누락된 복식의 등판 세부를 구성적으로 추론하였다. 특히 소재 처리, 복식 재단 조각의 연결 방식, 밑단 윤곽 등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복식의 3차원적 완전한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일부 세부 사항은 논리적 모델링 기법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앞판 구조와 의복 기능에 근거하여 등판 재단 방식을 추론함으로써 합리적인 복원을 실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해당 시기 복식에 나타난 소재 및 색채의 풍부성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며, 3D CLO 플랫폼에 새틴, 레이스, 면직 등 다양한 속성의 원단

텍스처를 도입하고, 실제 착용 상태에서의 광택, 드레이프, 주름의 동적 표현을 모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물리적 속성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모델링의 몰입감과 시각적 표현력을 향상시켰다. 최종적으로 디지털 런웨이 시연을 통해 정적 이미지에서 동적 의상으로의 시각적 전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장기’ 복식의 다원성, 자유로움, 시대적 생동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였다.

<표 14> 성장기 복식 1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표 15> 성장기 복식 2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표 16> 성장기 복식 3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3) 절정기: 간결성과 실용성

중국의 민국 시기의 절정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뚜렷하게 향상되고 직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 복식은 간결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을 드러냈다. 본 연구에서 재현한 패션쇼의 대표 복식들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패션쇼는 <표 17>, <표 18>,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간결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복식의 구조가 과거보다 눈에 띄게 단순화되었다. 장식 요소가 최소화되고 실루엣이 깔끔하며 절제된 형태를 강조로써, 과거의 화려함이나 장식적 복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여성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실용성 측면에서는 직업 참여와 공적 공간 활동의 증가에 발맞춰, 복식이 실제 생활에서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미세하게 허리를 조이는 치파오, 여성용 정장, 출퇴근에 적합한 간단한 상의와 하의 세트 등은 대표적 스타일로, 활동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품위를 갖춘 이미지를 구현한다. 색채 역시 중성적이고 차분한 톤을 중심으로 하여 과도한 시각적 화려함을 지양하고 복식의 실용적 가치와 착용자의 편안함을 강화하였다.

전체적으로 절정기의 복식은 단순한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자아 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졌음을 반영한다. 3D CLO 모델링과 동적 구현 과정에서는 복식의 구조적 설계와 신체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적절한 공간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 시기의 복식은 더 이상 과도하게 몸의 곡선을 강조하지 않고 약간 여유 있는 재단과 적절히 몸에 맞는 구조를 통해 편안한 착용감과 사회적 활동에의 적응성을 조화롭게 추구한다.

이번 패션쇼는 여성들이 교육, 직업, 공적 활동 등에서 점차 활발히 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복식이 기능적 요구와 자아 표현을 동시에 아우르

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신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아름다움’ 만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보다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복식 선택을 통해 뚜렷한 시대 의식과 독립적인 인격을 드러냈다. 복식은 현실 삶의 논리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고 근대화 과정 속에서民国 후반기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절정기 복식 양상의 3차원 재현을 실현하기 위해, 필자는 선정된 12점의 대표적인 절정기 여성 복식 이미지를 모델링 샘플로 활용하였다. 이 시기의 이미지 자료는 이전 시기보다 해상도와 세부 묘사 면에서 더 풍부하였으나, 여전히 등 부위 구조의 부재, 원단 질감의 불분명, 일부 구성 요소의 모호성 등과 같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미지 속 구조 정보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는 역사적 실물 자료, 복식 구조도, 유사 유형의 의류 기술 문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고, 논리적 추론법을 통해 구성적 보완을 수행하였다. 특히 등 부위의 윤곽, 히든 버튼의 위치 등 세부 사항에 있어 연구자는 역사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을 진행하였으며, 추론에 근거한 영역과 실물 자료로 입증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모델링의 과학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미지 자료를 3D CLO 플랫폼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등판 또는 안감 구조에 대해서는 앞면 패턴의 대칭성과 착용 논리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등판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넥라인, 소매산, 겨드랑이 연결 부위의 재단 조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등판 구조를 합리적으로 복원하였고, 당시 유행했던 ‘세미-피트 재단’ 트렌드를 반영하여 의복과 어깨·등판 사이의 여유분 및 신축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시뮬레이션된 복식이 역사적 현실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였다.

<표 17> 절정기 복식 1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 |
|-----|--|---|--|--|---|---|--|---|--|--|--|---|--|--|--|--|
| 복식 |   |  |  |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 |  | |

<표 18> 절정기 복식 2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표 19> 절정기 복식 3

|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원자료 및 패턴 | 복식 앞 면 | 복식 뒷 면 |
|-----|--|---|---|---|---|---|--|---|---|--|---|---|
| 복식 |  |  |  |  |  |  |  |  |  |  |  |  |
| 패션쇼 |  | | |  | | |  | | |  | | |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민국 시기 신여성 복식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 해방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여성의 사상적 계몽, 사회적 역할 변화, 신체 인식의 각성이 복식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복식-신체-사회’의 삼중 구조를 바탕으로 복식이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닌 여성 주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규명하였다. 복식의 밀착화, 개방적 구조, 전통과 현대의 디자인 융합은 당시 여성의 자아 인식과 사회적 위치 변화를 반영하는 시각적 결과물로 기능하였다.

연구는 민국 시기의 신여성 복식을 계몽기, 성장기, 절정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복식 특성과 그 이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계몽기 복식은 전통성과 진보성이 공존하는 형태로, 여성의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의 신체 표현과 정체성 탐색을 보여주었다. 성장기에는 복식이 점차 다양성과 화려성의 특성을 가졌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심미 의식 고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정기에는 실용성과 간결성이 강조되며, 이는 여성 주체 의식의 성숙과 현실 적응력을 반영하였다.

실증적 측면에서는 베이징, 우한, 상하이, 홍콩 등 네 지역의 박물관에서 수집한 총 126장의 복식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중 대표적인 36세트를 선정하여 3D CLO 기술로 디지털 복원 및 3D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 시기의 복식 시리즈에 대한 시각화 동영상도 제작함으로써, 문헌 기반의 분석에서 나아가 시각 문화 연구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 이미지 실증, 디지털 재현을 통합한 융합적 접근을 통

해 복식과 여성 의식의 상호작용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다만 연구의 범위가 도시 중산층 여성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는 다양한 계층 및 지역의 복식 문화를 포괄하는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민국 시기 복식의 시각적 표현이 여성의 정체성, 사회 변화, 문화 정치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복식 문화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고, 민국 시기 신여성 이미지의 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복식이 단순한 신체 장식의 차원을 넘어, 여성의 정체성, 사회적 의식 및 문화 정치가 교차하는 종합적 표현 매체로 기능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 중국 여성의 전통에서 현대 주체성으로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특히 ‘복식-신체-사회’의 삼중 상호작용 구조를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성 복식의 변천이 단지 유행의 반영이 아니라 여성 주체 의식의 성장, 사회적 역할의 재구성, 신체 인식의 진화가 시각적으로 구현된 결과임을 밝혔다. 복식은 여성의 권력, 신체 규율, 문화적 표상 등 복합적 의미가 교차하는 시각문화의 핵심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학문적 기여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계몽기-성장기-절정기’라는 새로운 삼단계 발전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정치 사건 중심의 전통적 시대 구분을 넘어 사상과 시각문화의 내적 공명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 구조의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역사 문헌, 시각 이미지, 현장 조사, 3D CLO 디지털 모델링을 통합한 ‘문헌-실물-가상 복원’의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복식 연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였고, 디지털 인문학 및 여성 시각문

화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적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의 연구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가 민국 시기 치파오의 변천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현대 개량 치파오의 전개 양상을 포괄하여 그 지속성, 변용성, 문화적 재해석을 비교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통-현대’ 사이의 여성 복식 정체성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국 시기 신여성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신문광고, 영상 아카이브, 여성 잡지 등 대중 매체 자료를 보다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텍스트 분석 및 시각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접목하여 치파오가 시대의 미적 감각과 젠더 상징으로 구성되는 문화적 서사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3D CLO를 활용한 복식의 3차원 시각화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복식 전시의 상호작용성과 몰입감을 강화하고, 교육, 전시, 문화 콘텐츠로서의 복식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모델과 실천적 방법론의 양 측면에서 치파오 연구의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였으며, 민국 여성 복식의 시각적 표상, 문화적 계승, 그리고 당대적 재해석에 관한 다각적 통찰을 제공하였다. 향후 치파오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의 융합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그 응용 범위 또한 매우 넓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학위논문>

- 루린(2024).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에서의 현모양처 담론에 관한 비교 연구: 신여성과 부녀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순샤오동(2021). 중국 잡지 양우(良友)에 나타난 신여성복식의 특성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산업디자인, 패션산업융합디자인학과, 경기도 용인. 박사학위논문.
- 왕싱카이(王星凱)(2021). 청말 민국기 (天乳) 운동 : 여성 복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초(2023). 광고 속 여성 조각상의 전환과정에 대한 시각문법 이론적 고찰. 국민대학교 우주문화디자인학과, 서울. 박사학위논문.

<학술지>

- 노과, 고현진. (2025). 중국 전통 여성 '도대수(倒大袖)' 의상을 활용한 현대패션디자인 분석 - 2014년~2024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 복식, 75(1), 92-114.

<해외문헌>

<단행본>

- Beauvoir, S.(1949). Le Deuxième Sexe II: L'expérience vécue. Paris:

- Gallimard. Steele, V., amp; Major, J. S(1999). *China Chic: East Meets We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nnane, A(2008). *Changing Clothes in China: Fashion, History, N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udge, J(2008). *The precious raft of history: The past, the West, and the woman question i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 Offen, K. M(2000). *European feminisms, 1700-1950: a political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 Wang, Zheng(1999). *Women in the Chinese Enlightenment: Oral and Textual Histo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nslow, B(2015). *Sisters of Suffrage: British and American Women Fight for the Vote*. In *Teaching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Context*. Routledge. 顧燕翎, 劉毓秀, 王瑞香, 林津如, 范情, 張小虹, 黃淑玲, 莊子秀, 鄭至慧, 鄭美里(2020). *女性主義理論與流變 (完整修訂版) (Vol. 62)*. 台灣: 貓頭鷹出版社.
- 王政(2001). *越界*.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嚴復(2023). *天演論*. 台北: 千華駐科技.
- 袁仄, 胡月(2010). *百年衣裳: 20 世紀中國服裝流變*. 上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郭延禮(2013). *解讀秋瑾: 上冊*.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杜學元(2011). *社會女性觀與中國女子高等教育*. 北京: 人民出版社.
- 劉海粟(2001). *人體模特兒*. 收錄於: *劉海粟藝術隨筆*.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 曾越(2014). *社會, 身體, 性別: 近代中國女性圖像身體的解放與禁錮*.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陳東原(2009). *中國婦女生活史*. 上海: 上海书店.

- 黃金麟(2006). 歷史, 身體, 國家: 近代中國的身體形成(1895-1937), 北京: 新星出版社.
- 謝選駿(2023). 纏足背后的亡國痛苦: 纏足戰略考. 收錄于: 謝選駿全集(第225卷).
- 高洪興(2004). 纏足史. 華成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
- 杭海(2005). 妝匣遺珍: 明清至民國時期女性傳統銀飾.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 梁惠娥, 崔榮榮(主編)(2013). 中國最美雲肩: 情思回味之文化. 鄭州: 河南文藝出版社.
- 潘建華(2005). 雲縷心衣: 中國古代內衣文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布萊恩·特納(2000). 身體與社會. 馬海良 等譯.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 吳詠梅, 李培德(2014). 圖像與商業文化: 分析中國近代廣告. 香港大學出版社.
- 吳昊(2019). 都會雲裳: 細說中國婦女服飾與身體革命 (1911-1935)(第二版). 香港: 三聯書店有限公司.
- 沈從文(2008). 中國古代服飾研究.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 陶維兵(著), 李立華(主編) (2014). 從洋務運動到改革開放: 武漢百年思潮研究. 武漢: 武漢出版社.(武漢文化研究基地叢書).
- 張若華(2015). 中國纏足歷史: 三寸金蓮一千年. 香港: 中華書局出版有限公司.
- 康有為(2002). 大同書. 北京: 華夏出版社.
- 高春明(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 上海文化出版社.
- 黃能馥, 陳娟娟(2004). 中國服飾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包銘新(2004). 近代中國女裝實錄. 上海: 東華大學出版社.
- 周錫保(2011).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Ibid., p.475.
- 劉熙(原著), 任繼昉, 劉江濤(譯註)(2013). 釋名, 釋衣服. 北京: 中華書局,
- 李長莉, 劉志琴, 閔傑, 羅檢秋(2015). 近代中國社會文化變遷錄 第三卷. 浙江人民出版社.

崔榮榮(2016). 明代以來漢族民間服飾變革與社會變遷. 武漢: 武漢理工大學出版社.

顧頡剛(2011). 顧頡剛讀書筆記: 卷一. 北京: 中華書局.

劉義慶(編著), 朱碧蓮, 沈海波(譯註)(2024). 世說新語上. 北京: 中華書局.

張小虹(2016). 時尚現代性.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陳平原(2020). 課堂外的讀本系列 閒情樂事. 香港: 香港城市大學出版社.

<해외 학술지>

De Beauvoir, S(1951). Le deuxième Sexe, I. Les Faits et les Mythes. Revista Portuguesa de Filosofia, 7(1).pp. 96-97

Scott, J. W(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91(55), pp. 1053-1075.

Chang, E(1943). Chinese Life and Fashions. Shanghai: The 20th Century. pp.54-61.

Judge, J(2001). Talent, virtue, and the nation: Chinese nationalisms and female subjectiviti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3), pp.765-803.

蘇哲(2012). 建國方略. 江蘇警官學院學報, (3), pp.61-61.

朱曉慧(2015). 新中國建國初期的婦女解放: 人權視角的透視. 人權, (3), pp.89-100.

閔杰(2004). 20世紀80年代以來的中國近代社會史研究. 近代史研究, 140(2), pp.208-257

林曉珊(2011). 走向理論自覺與方法自覺: 婦女性別社會學在中國(1995-2010). 浙江學刊, (06), pp.188-193.

- 謝子艷, 戚孟勇(2024). 人以載衣：探婦人畫報中的女性身體時尚設計. 设计, 9(1), pp.681-689.
- 谷鵬飛, 趙琴(2012). 中國當代服飾審美風尚與主體身份認同關係的嬗變. 社會科學戰線(6), pp.147-153.
- 楊劍利(2013). 國家建構語境中的婦女解放——從歷史到歷史書寫. 近代史研究,(3), pp.110-124.
- 周亞平(2000). 唐群英與近代女權運動. 湖南教育學院學報, (4), pp.34-37.
- 薛文彥(2001). 辛亥革命時期的婦女解放運動.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19(6), p.65-67.
- 胡嬌陽, 遂振煜(2025). 三綱五常的內在邏輯——以朱熹理氣先後的詮釋為中心. 文化學刊(02), pp.132-135.
- 尚宇菲(2024). 晚清興女學之濫觴及其方法論研究. 寧波大學學報(教育科學版), 46(05), pp.64-73.
- 董麗敏(2008). 民族國家, 本土性與女性解放運動——以晚清中國為中心的考察. 南開學報 哲學社會科學版, (4), pp.32-39.
- 王英(2003). 康有為的大同書及其大同思想. 山東省農業管理幹部學院學報, (4), p.108-109.
- 李愛勇(2013). 康有為與大同書中的平等觀問題. 信陽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33(2), pp.134-137.
- 薛治國, 劉立豐(2001). 自然人性與人人平等——實理公法全書評述. 萍鄉高等專科學校學報, (2), pp.18-20.
- 李媛(2017). 梁啟超變法通議中的啟蒙思想研究. 商丘師範學院學報, 33(2), p.52-56.
- 簡姿亞(2005). 從辛亥革命時期女性報刊看女性的覺醒. 湘潭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9(z2), pp.76-78.

- 王靜(2004). 清末民初女子社團興起的歷史背景. 株洲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9(6), pp.85-87.
- 石琳(2015). 淺析五四時期婦女解放運動興起的特點. 黑龍江史志, (9), pp.71-72.
- 賴莉雲(2004). 清末民初女權思想的演變. 經濟與社會發展, 2(12), pp.95-98.
- 姜衛玲(2016). 近代報刊中知識女性的身份認同與主體建構. 新聞戰線, (2), pp.100-103.
- 韓賀南(2012). 中共將婦女解放納入民族解放的歷史必然性及理論支撐. 中共黨史研究, (6), pp.49-58.
- 夏曉虹.(2015).女界鐘:金天翮的“女權革命”論.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01), p.1-6.
- 焦玉蓮, 王曉嶸(2007). 中國近代婦女運動對社會變遷的影響. 太原大學學報, 8(3), pp.16-20.
- 蔣美華(2006). 辛亥革命時期女性角色變遷的特點. 山西師大學報: 社會科學版, 33(4), pp.118-122.
- 葉利軍(2004). 民初女子參政運動芻論. 求索, (2), pp.233-236.
- 劉希(2020). 問題化新女性: 五四女性文學中性別二元論和本質論的反抗性話語. 澳門理工學報, (4), pp.147-157.
- 余永躍, 雒麗(2018). 自由主義女權主義解讀. 山東女子學院學報, (3), pp.1-9.
- 方越(2024). 晚清男女小說家新女性書寫的不同面相. 湖北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51(06), pp.119-126.
- 吳聰, 劉亞茹, 陶曉晗, 嚴同彤(2023). 民國女性身體解放視角下旗袍廓形的設計變遷. 絲綢, 60(1). pp.106-113
- 朱琰(2017). 從旗袍之美看民國時期的大眾審美心理與女性服飾審美趨向. 南京藝術學院學報美術與設計版, (02), pp.92-95.
- 張春田(2015). 第二維新之聲—新青年中的啓蒙與自覺. 漢語言文學研究, 6(2), pp.18-22.

- 陳梅(2013). 從身體社會學視角淺談中國古代女性纏足現象. 青年文學家, (19), pp. 204-205.
- 馮偉才(2006). 如何書寫中國女性身體史—從纏足開始. 二十一世紀雙月刊, (97), p. 121-127
- 張曉瑾(2012). 清末到民國的服飾改革與社會心理的變化. 藝術百家, (A01), pp.61-63.
- 荒林, 諸葛文饒(2007). 西方女性主義理論在中國的傳播和影響. 海南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2), pp.76-91.
- 王耘(2008). 試析民國服飾文化的傳承與變異. 康定民族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17(3), pp.58-61.
- 趙曉華(2014). 清末民初的女著男裝現象. 求索, (12), pp.184-187.
- 呂文翠(2015). 民初海上百美圖時尚敘事與性別文化的塑形嬗變. 清華中文學報, (4), pp.375-436.
- 盛羽(2003). 旗袍的歷史演變及社會價值初探.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16(3), p.92-95.
- 謝天開(2012). 民國女性的短髮風波. 時代人物, (5), pp.119-122.
- 周洪宇, 周娜(2016). 隱喻的身體: 民國時期學校中的女子剪髮問題. 華東師範大學學報. 教育科學版, 34(4), pp.41-47
- 章開沅(2011). 辛亥百年遐思. 近代史研究, (4), pp.4-8.
- 楊聞宇(2010). 視死如歸的張挹蘭. 絲綢之路, (21), pp.62-63.
- 姚霏(2009). 近代中國女子剪髮運動初探 (1903-1927): 以身體為視角的分析. 史林, (2), pp.52-61.
- 曾越(2018). 民初新式百美圖的圖像範式與觀念重建. 四川戲劇, (3), pp.140-144.
- 劉瑜(2020). 民國文明新裝及其與改良旗袍的流行更替研究. 裝飾, (1), pp.80-83.
- 劉偉娜(2018). 婦女雜誌(1915-1931) 圖像中民國女性風貌研究. 出版發行研究, (10), pp.08-111.

- 楊釗, 郭曉, 劉高品(2024). 世變與迭新: 民國時期女性耳飾樣態藝術研究. 寶石和寶石學雜誌, 26(6), pp.148-160.
- 朱漢民(2018). 經典詮釋與道統建構——朱熹四書章句集注序說的道統論.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5(04), pp.33-40.
- 高婧(2008). 清代世風影響下的仕女畫與女性審美. 電影評介, (18), pp.87-88.
- 何悅馳(2019). 天乳運動及其影響. 愛知論叢, (107), pp.119-154.
- 吳小瑋(2015). 民國時期天乳運動探析. 貴州文史叢刊, (1), pp.45-50.
- 曾潔好(2017). 高底皮鞋長統襪, 袒胸露臂若為情——試從天乳運動看近代女性思想解放. 長江叢刊. pp.89-90
- 李鎮(2017). 蜜蜂小姐: 梁白波與20世紀30年代上海漫畫. 裝飾, (4), pp.80-81.
- 曾越(2015). 民國女性的曲線革命與女裝風潮. 看歷史, (006), pp.130-135.
- 田伊婷(2017). 天乳運動與 1920-30 年代月份牌. 議藝份子, (28), pp.21-31.
- 周茜(2008). 張愛玲散文更衣記解讀. 名作欣賞, (03), pp.43-50.
- 史敏(2017). 中國現代女性身體史研究述評. 史學月刊, (02), pp.102-111.
- 侯霞(2017). 旗袍造型變遷及其審美研究. 輕紡工業與技術, 46(2), pp.38-41.
- 劉秀英(2002). 維新時期梁啟超女子教育思想述評. 呼蘭師專學報, 18(4), pp.15-19.
- 姚霏(2012). 五四時期的新婦女雜誌研究. 近代中國婦女史研究, (20), pp.29-68.
- 楊天平(2002). 民國初年的教育宗旨. 師資培訓研究, (2), pp.49-52.
- 陳儷, 李家富(2015). 源於性別意識的顛覆與反叛——重讀丁玲的莎菲女士的日記. 昭通學院學報, 37(04), pp.73-75.
- 陳平原(2013). 女學堂的故事——從北京畫報看晚清女子教育. 看歷史, (002), pp.33-49.
- 閔桂媚(2008). 1990 年代以來中國女性形象變遷的實證研究——對中國婦女雜誌的內容分析. 東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0(S2), pp.177-182.
- 李欣蓮(2022). 開放中的變遷: 再論中國社會超穩定結構. 政治科學季評, (64). pp.25-27.

- 蔣美華(2006). 辛亥革命時期女性角色變遷的特點. 山西師大學報 社會科學版, 33 (4). pp.118-122.
- 許慧琦(2008). 超越服飾改革的改革論述——紀爾曼的女性的服飾及其批判意涵. 歐美研究, 38(2), pp.307-361.
- 陳文聯(2000). 近代中國男女平等思想的歷史考察. 衡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04), pp.94-100.
- 張世瑛(2013). 顛覆的笑聲— 辛亥革命中的嘉年華會. 國史館館刊, (5), pp.1-37.
- 宋金英(2018). 女為悅己者容: 中國古代女性服飾表徵與審美取向. 民俗研究, (3), pp.74-79.
- 夏曉虹(2014). 晚清女報中的國族論述與女性意識——1907年的多元呈現.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51(04), pp.118-132.
- 朱升芹(2010). 淺談近代中國婦女反纏足運動. 傳奇·傳記文學選刊(理論研究), (1 2), pp.63-64+72.
- 張媛媛, 李夢雪, 張競瓊(2023). 近代女子足服觀念的轉變及原因. 絲綢, 60(02), p p.163-170.
- 趙燕(2013). 民國時期女性服飾變遷特點探析. 絲綢之路, (4), pp.52-53.
- 李冰(2016). 清末民初滿漢女性服飾的交融與變遷. 理論觀察, (7), pp.126-127.
- 張天亮(2012). 淺談民國時期旗袍式樣的大變革. 活力, (10), pp.183-183.
- 邵晨霞(2010). 西風東漸對民國時期服飾的影響. 絲綢,(04), pp.47-49
- 馮君(2002). 戊戌變法與中國近代社會的構建.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5(4), pp.43-45.
- 崔榮榮, 牛犁(2015). 民國漢族女裝的嬗變與社會變遷. 學術交流, (12), pp.214-218.
- 劉靜軒(2014). 論上衣下裳制的符號學意蘊及其影響. 鄭州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47(04), pp.185-188.

- 李金俠(2014). 淺談清代滿漢女子服飾特徵. 煙台南山學院學報, (1), pp.56-59.
- 齊志家(2012). 當代服裝時尚的身體研究. 美與時代(上), (4), pp.20-22.
- 趙莉, 劉衛(2023). 民國女學生運動裝的形制變遷及審美轉向. 絲綢, 60(08), pp.159-165.
- 秦純(2024). 批判與認同：時代漫畫 中摩登女性形象的時尚進程. 設計, (9), pp.1039-1049.
- 朱琰(2017). 從旗袍之美看民國時期的大眾審美心理與女性服飾審美趨向. 南京藝術學院學報美術與設計版, (02), pp.92-95.
- 王珊珊(2016). 淺談二十世紀二十年代至四十年代旗袍下擺的發展演變. 明日風尚, (17), pp.395-395.
- 孔培, 孫聰(2022). 民國女性服裝審美的現代化進程——以良友報刊為例. 包裝與設計, (5), pp.156-157.
- 高春明(2014). 垂衣裳而天下治——中國古代服飾的演變. 資本市場, (10), pp.126-128.
- 鄔紅芳, 董曉芳(2012). 旗袍演變的社會學視角解讀. 西安工程大學學報, 26(2), pp.184-186.
- 王穎, 申亞萍(2015). 從月份牌廣告中的服飾元素探析女性的性別角色變遷. 新聞研究導刊, (17), pp.180-181.
- 王迪(2014). 中國旗袍的歷史演變. 美術教育研究, (19), pp.73-73.
- 趙燕(2013). 民國時期女性服飾變遷特點探析. 絲綢之路, (4), pp.52-53.
- 吳小兵(2009). 民國時期旗袍的改良與發展. 遼東學院學報 社會科學版, 11(4), pp.95-97.
- 張萬君(2015). 淺談中國旗袍的樣式. 文藝生活 下旬刊, (4), pp.137-137.
- 劉濤(2014). 民國時期旗袍的創新與傳播. 遼寧絲綢, (03), pp.20-21.
- 水果(2011). 花樣旗袍. 現代青年, (3), pp.44-45.

翟興娥(2009). 簡析 1911-1935 年申報女性服飾的傳播. 新聞界, (3), pp.124-125.

<해외 학위논문>

劉孝華(2019). 蔡特金婦女解放思想研究. 燕山大學. 博士論文

張佳沁(2020). 身體解放運動影響下我國女性服飾變遷研究. 江南大學

李浩(2023). 國聞報與維新輿論場域研究(1897-1900). 安徽大學 博士學位論文

周宇(2002). 天下為公——孫中山倫理思想研究. 湖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陳玉(2008). 民國時期女性服飾的歷史變遷, 河北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楊興梅(2006). 近代中國反纏足的努力與成效述略. 成都: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於振華(2009). 民國旗袍. 東華大學. 博士學位論文

<신문지>

黃玥(2021-02-19). 新青年喚醒新青年. 新華每日電訊, 001. doi:10.28870/n.cnki.nx
hmr.2021.001316.

<인터넷 자료>

重木(2024). “娜拉”在中国：大叙事下的女性解放. 澎湃新闻, <https://www.chinawriter.com.cn/n1/2024/0914/c404063-40320839.html>

蘇曉康(2025). 被解放與被犧牲的——難以描述的五億中國女性. CND刊物和論壇,
<http://hx.cnd.org/?p=244137>

李慶亨(2007). 明治維新與戊戌變法成敗因由之比較. 中華文史網, (12.1). <http://www.historychina.net/qsyj/ztyj/sxwh/2005-04-13/26599.shtml>

<그림 자료>

<그림 1>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2> 출처: <https://sergeplantureux.blog/znquetes-periode-2-age-dor/> (검색일: 2025.3.20)

<그림 3> 출처: <http://dangshi.people.com.cn/n/2014/0113/c85037-24101678.html>
(검색일: 2025.3.20)

<그림 4> 출처: <https://kknews.cc/zh-hk/world/jp8xg3l.html>(검색일: 2025.4.1)

<그림 5> 출처: <http://www.xhgmw.com/m/view.php?aid=23231>. (검색일: 2025.3.21)

<그림 6> 출처: <https://t.cj.sina.com.cn/articles/view/7037170167/pla372b1f700100m8uy>(검색일: 2024.10.24)

<그림 7> 출처: 錢病鶴. (1912.07.24). 誰是妓女, 誰是學生. 民立報, (5).(검색일: 2025.5.10)

<그림 8> 출처: file:///C:/Users/64624/Downloads/126009395%20(3).pdf. (검색일: 2025.3.14)

<그림 9> 출처: <https://v.ccdi.gov.cn/2022/03/04/VIDEHA3OcqbZcFfV22vAQWQ7220304.shtml>(검색일: 2024.11.22)

<그림 10> 출처: 丁悚. (2004). 民國風情百美圖.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p.5-17.
(검색일: 2025.1.5)

<그림 11> 출처: 丁悚. (1914). 封面. 禮拜六, (41), p.0.(검색일: 2025.4.3)

<그림 12> 출처: 翮. (1927). 在理髮店中的感想: 女子剪髮後的影響. 中國攝影學會畫報, (72), p.1. (검색일: 2025.3.14)

<그림 13> 출처: <https://www.zcool.com.cn/work/ZNTY4MTk1MTI=.html>(검색일: 2025.3.14)

- <그림 14> 출처: <https://www.qulishi.com/news/201407/15840.html>(검색일: 2025.3.14)
- <그림 15> 출처: <https://archive.org/details/liangyou-1937.06.15>(검색일: 2025.3.14)
- <그림 16> 출처: 蔣漢澄. (1927). 憑欄凝睇. 北洋畫報, (124), p.2. (검색일: 2025.3.14)
- <그림 17> 출처: 蔣漢澄. (1927). 憑欄凝睇. 北洋畫報, (124), p.2. (검색일: 2025.2.10)
- <그림 18> 출처: <https://m.sohu.com/n/476958547/> (검색일: 2025.2.11)
- <그림 19> 출처: <https://m-news.artron.net/news/20250405/n691841.html>.(검색일: 2025.2.11)
- <그림 20> 출처: <https://historyinphotos.blogspot.com/2013/10/china-1920s-1940s.html>(검색일: 2025.2.11)
- <그림 21> 출처: <https://news.xinmin.cn/2023/12/17/32546977.html> (검색일: 2025.1.28)
- <그림 22> 출처: https://www.sohu.com/a/393153375_120246643(검색일: 2025.1.28)
- <그림 23> 출처: <https://m.thyshoe.cn/4.html>(검색일: 2025.1.29)
- <그림 24> 출처: <https://item.fril.jp/76ffce32973e1f2b66e6c05e6d2c7be0>(검색일: 2025.1.29)
- <그림 25> 출처: https://www.sohu.com/a/474152090_121124386(검색일: 2025.2.01)
- <그림 26> 출처: https://k.sina.com.cn/article_6487051972_p182a88ec400100f54r.html(검색일: 2025.2.01)
- <그림 27> 출처: https://www.wikitree.com/photo/jpg/Young_evelyn_oxley(검색일: 2025.2.01)
- <그림 28> 출처: <https://www.zdic.net/ts/han/2018/11/580.html> (검색일: 2025.2.01)

- <그림 29> 출처: <https://www.ebay.com/itm/144375107653>(검색일: 2025.3.02)
- <그림 30> 출처: <https://read01.com/8aQ8x20.html> (검색일: 2025.3.02)
- <그림 31> 출처: <https://wapbaike.baidu.com/tashuo/browse/content?id=f008437b0e3ff8b1922d263d>(검색일: 2025.3.03)
- <그림 32> 출처: <https://zhuanlan.zhihu.com/p/698862276>(검색일: 2025.3.03)
- <그림 33> 출처: <http://www.laozhaopian5.com/fgly/970.html>(검색일: 2025.3.04)
- <그림 34> 출처: <https://minguowang.com/culture/wh-yzh/3238/>(검색일: 2025.3.04)
- <그림 35> 출처: <https://www.hercity.com/s/201512/28823.html>(검색일: 2025.3.04)
- <그림 36> 출처: 中國國家博物館
- <그림 37> 출처: 출처:http://www.xn--fiqs8sc0d09m065ahul.com/newsdetail_824395.html (검색일: 2025.3.05)
- <그림 38> 출처: <https://zhuanlan.zhihu.com/p/28885129>.(검색일: 2025.3.06)
- <그림 39> 출처: <https://zhuanlan.zhihu.com/p/28885129>.(검색일: 2025.3.06)

<표 자료>

<표 8> 사진 출처

- 1번. 진한 모청색 타사실 채화 소매 여성 홀저고리(深毛蓝柞蚕丝彩绘袖边女单袄),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2번. 청색 길상무늬 운견 장식 맞깃 여성 저고리(蓝提花绸饰如意盘长云肩对襟女褂),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번. 미색 만자무늬 양단 여성 겹저고리(米色盘长纹提花绸女夹袄),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4번. 회색 기하문 자카드 실크 원령 장포(灰色几何纹提花绸圆领长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5번. 연청색 음각무늬 거즈 솜 누빔 꽃무늬 여성 솜장포(蛋青色暗花纱绉绣花卉纹女绵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6번. 보라빛 벨벳 매화무늬 테두리 장식 장포(宝蓝丝绒冰梅纹镶边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7번. 하늘색 금직 사선깃 단의 상의와 검은색 주름치마 착용(缠枝花卉纹斜襟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8번. 보라빛 격자 개화문 자카드 단 섹장식 여성용 긴 저고리(宝蓝色棋格开花纹提花缎盘带饰边女长袄),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9번. 철회색 장단선향 말아깃 긴소매 치파오(铁灰色漳缎线香緞元宝领长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0번. 흑색 단 봉황·모란 화훼·나비문 테두리 장식 여성용 여과, 연자색 화훼문 주름치마(黑色缎镶凤凰牡丹花卉蝶纹边女褂·藕荷色花卉纹百褶裙图),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1번. 자색 음문단 비과깃 마감(紫色暗花缎琵琶襟马甲),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2번. 흑백 배색 사선깃 장삼과 비취색 나비 자수 치마(黑白拼接斜襟长衫与翠绿蝴蝶绣花裙),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3번. 연청색 단면 자수 배색 비과깃 여성 저고리(淡蓝缎面绣花拼接琵琶襟女袄),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4번. 귤금색 단면 사선깃 여성 저고리와 마면치마 세트(橘金缎面斜襟女袄与马面裙套装),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5번. 먹색 난형 음문 사선깃 여성 저고리와 마면치마 세트(墨绿色卵形暗纹斜襟女袄与马面裙套装),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6번. 갈색 장미 음문 사선깃 여성 저고리와 흑색 마면치마 세트(棕色玫瑰暗纹斜襟女袄配黑色马面裙套装),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7번. 살구노란색 단 바탕 물결 가장자리 도류 대소매 장삼(杏黄缎地波浪缘倒大袖长衫),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8번. 민초 연황색 문단 배색 소매 치파오(民初浅黄纹缎拼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9번. 호청색 단면 자수 마면치마 세트(湖蓝缎面绣花马面裙套装),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20번. 현문초 장삼과 단면 치마바지 세트(玄纹绸长衫配缎面裙裤套装),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21번. 하늘색 직금 사선깃 짧은 저고리와 검정색 주름치마 세트(天蓝织锦斜襟短衫配黑色百褶裙),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22번. 분홍색 단 바탕 자수 화조문 사선깃 여성 저고리(粉色缎地刺绣花鸟纹斜襟女袄),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23번. 자색 권지련문 입깃 장삼 세트(紫色缠枝莲纹立领长衫套装),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24번. 청색 입깃 장포와 연자주색 민소매 마갑(蓝立领长袍配藕紫色无袖马甲),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25번. 자홍색 단 바탕 자수 사선깃 치파오(紫红色缎地绣花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26번. 하늘색 직금 사선깃 짧은 저고리와 검정색 주름치마 세트(天蓝织锦斜襟短衫配黑色百褶裙),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27번. 향지영 수채화 월패 광고화(杭穉英手绘月份牌广告画),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28번. 후백상 수채화 월패 광고화 《추수이인》(胡伯翔手绘月份牌广告画《秋水伊人》),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29번. 상설지소 투피스(霜雪之素套裙),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30번. 살구노란색 실크 광소매 상의와 흑색 자수 롱스커트 세트(杏黄绸面广袖上衣与黑绣花长裙套装),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31번. 운직 청문 장치파오(云织青纹长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표 9> 사진 출처

- 32번. 흑색 음문초 넓은 가장자리 반소매 치파오(黑色暗花绸宽边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3번. 주황색 자카드 실크 긴소매 겹치파오(桔黄色提花绸长袖夹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4번. 연분홍색 자카드 실크 레이스 장식 반소매 겹치파오(肉粉色提花绸镶蕾丝短袖夹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5번. 검은 바탕 금사 자수 문양의 긴소매 솜안감 치파오(黑底金线刺绣图案长袖夹棉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6번. 군청색 자카드 무늬 류상초 소재의 긴소매 치파오(藏青色提花缎绸料长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7번. 금황색 번문 벨벳 레이스 테두리 반소매 치파오(金黄色烂花丝绒镶蕾丝边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8번. 흑색 차골 레이스 반소매 치파오(黑色车骨蕾丝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39번. 홍색 바탕 금화 번문 벨벳 반소매 치파오(红地金花烂花丝绒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40번. 민국 시기 여학생 베스트형 원피스 제복(民国时期女学生背心裙制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1번. 민국 여성 칼라 있는 모직 외투(民国女性翻领呢大衣),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2번. 민트그린 스팅글 장식 허리라인 치파오 스타일 원피스(薄荷绿亮片装饰收腰旗袍式洋装),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3번. 분홍색 바탕 프린트 팔자깃 민소매 홀치파오(粉底印花八字襟无袖单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4번. 자색 바탕 금색 자수 모직 겹치파오(赭地金色绣花毛呢夹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5번. 흑색 단 백란 자수 중식 입깃 치파오(黑缎绣白兰中式立领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6번. 자색 바탕 금문 장미문 단면 치파오(紫底金纹玫瑰纹缎面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7번. 청색 바탕 백화 프린트 면실크 치파오(蓝地白花印花棉绸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8번. 단채 단 바탕 권지 모란문 장치파오(丹彩缎地缠枝牡丹纹长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49번. 쪽빛 실크 바탕 권지 연꽃문 테두리 장포(靛青绸地缠枝莲纹滚边长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0번. 흑색 바탕 주황·백 대형 꽃무늬 단면 치파오(黑地橙白大花缎面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1번. 흑색 바탕 컬러 플라워 단면 치파오(黑地彩花缎面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2번. 금문 광택 반소매 치파오(金纹折光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3번. 취영 화우 치파오(翠影花雨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4번. 행영 금수 치파오(杏影金蕊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5번. 춘등 유광 치파오(春藤流光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6번. 상영 방승 단치파오(绡影方胜短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7번. 양화 반단추 자수포(洋花盘扣绣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8번. 취선사문 치파오(翠漩纱纹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59번. 백색 슬림핏 레이스 반소매 치파오(白色紧身蕾丝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60번. 녹색 바탕 자카드 꽃 장식 실크 도류 대소매 겹치파오(绿地提花镶花边真丝倒大袖夹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61번. 청비 음문 사선깃 장삼(青碧暗纹斜襟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62번. 매영 자색 실크 대립 저고리와 치마(梅影紫绸对襟袄裙),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63번. 분홍색 소사 민소매 치파오(粉色素纱无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64번. 프린트 실크 반소매 홑치파오(印花真丝短袖单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65번. 전체 자카드 단 무늬 민소매 홑치파오(满地提花缎无袖单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66번. 금사 자수 음문 장치파오(金绣暗花长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67번. 회녹색 테두리 장식 입깃 치파오(灰绿镶边立领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68번. 백색 벨벳 프린트(白色天鹅绒印花),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69번. 연금색 어골문 반소매 치파오(浅金色鱼骨纹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70번. 청색 바탕 백색 테두리 벨벳 겨울용 치파오(蓝地白缘绒面冬季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71번. 분홍색 화훼 자수 반소매 치파오(粉绣花卉中袖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72번. 황색 반소매 상의와 스트라이프 치파오 세트(黄短袖外搭条纹旗袍套装),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73번. 상아백 연단 나비 자수 반소매 치파오(象牙白软缎绣蝴蝶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74번. 흑색 바탕 홍모란 단면 사선깃 치파오(黑地红牡丹缎面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75번. 황색 바탕 프린트 사선무늬 치파오와 청백 체크 반소매 외투 세트(黄底印花斜纹旗袍配蓝白格短袖外套),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표 10> 사진 출처

- 76번. 연청색 연성 양단 자수 반소매 치파오(蛋青色软缎刺绣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77번. 연기색 자카드 순유 주단 테두리 긴소매 면 치파오(烟色提花顺纤维缎边长袖棉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78번. 짙은 갈색 자카드 견사 중간소매 치파오(深咖色提花绸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79번. 연노란색 방격권초문 자카드 견사 측면 트임 입깃형 대소매 치파오(鹅黄色方格卷草纹提花绸侧开立领倒大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80번. 파란색 세로줄무늬 사선 깃 치파오(蓝色竖条纹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81번. 흑금색 줄무늬 단면 무소매 치파오(黑金条纹缎面无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82번. 베이지색 견단 붉은 꽃 자수 직소매 치파오(笑色绸缎红花绣直袖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83번. 카멜색 모직 반소매 겹치파오(驼色毛呢半袖夹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84번. 녹색 바탕 화문 라오 안감 벨벳 반소매 치파오(绿地花罗衬绒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85번. 유백색 자수 레이스 장식의 시스루 조지 샤 소재 민소매 단층 치파오(藕粉色盘扣细珠花日常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86번. 미베이지색 미세한 결무늬 사선 깃 넓은 소매 치파오(米杏色细纹斜襟宽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87번. 황갈색 바탕 마름모 무늬 사선 깃 치파오(黄褐底菱形暗纹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88번. 금사 수놓은 석류 꽃무늬 사선 깃 치파오(锦绣榴华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89번. 직조된 광택 격자무늬 치파오(织影流光格纹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90번. 자운 잠익 치파오(紫韵蝉翼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91번. 노란색 마름모 무늬 무소매 치파오(黄色菱格无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92번. 연분홍색 자카드 반소매 치파오(淡粉提花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93번. 자수 무늬 갈색 견면 겨울용 장삼(绣纹棕色绸面冬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94번. 사선 깃 자수 면사 장삼(斜襟绣花棉绸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95번. 암적색 테두리 면직 장삼(暗红滚边绵织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96번. 흑색 단 테두리 사선 깃 면 장삼(黑缎滚边斜襟棉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97번. 갈색 바탕 작은 꽃무늬 사선 깃 장삼(棕地小花斜襟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98번. 황흑 격자무늬 사선 깃 면 장삼(黄黑格纹斜襟棉长衫),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99번. 연분홍 오렌지색 운문 사 소재 밀착형 치파오(粉橘色云纹纱质贴身旗袍), 연구자 촬영, 우한 박물관, 2024. 9. 6.
- 100번. 파란색 플록 벨벳 긴소매 치파오(蓝色植绒丝绒长袖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1번. 은회색 레이스 무소매 하이슬릿 치파오(银灰色蕾丝无袖高开衩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2번. 중식 단추 장식 치파오 세트복(中式盘扣旗袍套装),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3번. 입깃형 나비 매듭 자수 투피스(立领蝴蝶结绣花两件套),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4번. 검정 바탕 컬러 도트 프린트 칼라 세트 치마(黑底印花彩点翻领套裙),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5번. 베이지색 자카드 입깃형 세트 치마(笑色提花立领套装裙),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6번. 연분홍 보라색 격자무늬 사선 깃 치파오 및 회색 니트 외투(粉紫格纹斜襟旗袍配灰色针织外套),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07번. 검정 무늬 붉은 바탕 반소매 치파오(黑纹红底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8번. 연녹색 사선결 단면 사선 깃 치파오(浅绿斜纹缎面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09번. 미세한 결무늬 갈회색 사선 깃 테두리 장식 치파오(细纹棕灰斜襟滚边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10번. 회색 바탕 청색 테두리 사선 자수 반소매 치파오(灰底蓝边斜纹绣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11번. 흰색 바탕 청색 격자무늬 단 자수 반소매 치파오(白地蓝格缎绣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12번. 베이지색 자수 민들레 문양 사선 깃 치파오(笑色绣花蒲公英图案斜襟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13번. 청람색 물방울 무늬 긴소매 치파오(青蓝水滴纹长袖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 114번. 검정 단 바탕 금색 원형 단화문 반소매 치파오(黑缎金圈团花纹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15번. 카멜 그레이색 프린트 견사 일체형 민소매 치파오(驼灰色印花绸连肩抹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16번. 미금색 바탕 잔꽃 문양 직금 반소매 치파오(笑金地碎花织锦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17번. 아이스 블루색 단면 자수 치파오 및 레이스 숄 구성(冰蓝缎地绣花旗袍配蕾丝披肩),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18번. 공작과 모란 자수 청색 단면 치파오(孔雀牡丹绣花蓝缎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19번. 검정 바탕 컬러 플라워 도트 스트라이프 배색 세트복(黑地彩花点条纹拼接套装),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20번. 금색 단면 자수 슬림핏 치파오(金色缎面绣花修身旗袍), 연구자 촬영, 베이징 민족복식박물관, 2024. 7. 11.
- 121번. 진홍색 단 바탕 화훼 자수 반소매 치파오(绛红缎地花卉刺绣短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22번. 검정 벨벳 장미 테두리 장식 긴소매 치파오(黑绒镶蔷薇边长袖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23번. 공작청색 모란 문양 단면 트임형 치파오(孔雀蓝牡丹缎面开襟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24번. 취색 배경의 화려한 꽃무늬 치파오(翠影繁花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25번. 불꽃 꽃무늬 장식 치파오(焰花盈芳旗袍), 연구자 촬영, 상하이 역사박물관, 2024. 10. 2.
- 126번. 청색 바탕 별무늬 입깃형 장치파오(蓝地星纹立领长旗袍), 연구자 촬영, 홍콩 역사박물관, 2024. 8. 15.

ABSTRACT

A Study on the Clothing of New Women in the Republican Era Reflecting the Chinese Women's Liberation Movement

LYU CAILING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lothing of the “New Woman” during China’s Republican era with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Chinese women’s liberation movement. Focusing on the period of transformation in women’s social status and dress reform, it explores how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fluence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Woman image. By combining theoretical analysis with digital practice, the study visualizes the modern dress patterns of Chinese New Women through video representat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demonstrating that dress functions not merely as bodily covering or decorative form, but as a symbolic medium revealing the awakening of female self-identity.

The study first categorizes the development of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from the 1898 Hundred Days’ Reform to the New Culture

Movement in the early 1920s—into three stages: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Growth period, and the Climax period. It systematically investigates how women secured bodily and social rights and transitioned from traditional Confucian female ideals to emerging as New Women,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anti-footbinding campaign, the short-hair movement, and the “Natural Breast” (Tianru) movement.

Subsequently, the study centers on the changing vis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ew Woman image and applies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that integrates dress historiography, body theory, and cultural sociology. It analyzes how women’s dress during the Republican era restructured the boundarie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concealment and exposure—amid the breakdown of traditional ritual systems, cultural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and expanding gender consciousness. Through changes in ideology, dress construction, and bodily representation, the study reveals how dress functioned as a visual mediator of female subjectivity and shifting social perceptions.

Finally, using the 3D CLO virtual garment design tool, the study digitally modeled and visualized the Republican-era New Woman’s clothing. This includes garments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reflecting a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progress; garments from the Growth period emphasizing diversity and individual expression; and garments from the Climax period characterized by simplicity and practicality. This method transcends traditional textual dress research by transforming static visual materials into dynamic video archives. Based on the analytical structure of

“Body-Dress-Society,” the study aims to deepen scholarly understanding of the New Woman in Republican China.